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 1)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2. 설문조사 대상

- 1) 교수(인증 대학, 미인증대학) – 89명
- 2) 실무수련자(건축계열 회사 근무자 및 대학원, 취업준비생) – 63명
- 3) 건축사(설계사무소 근무자) – 82명

3. 설문조사 기간

–2023.09.15 ~ 2023.10.31(한달 반)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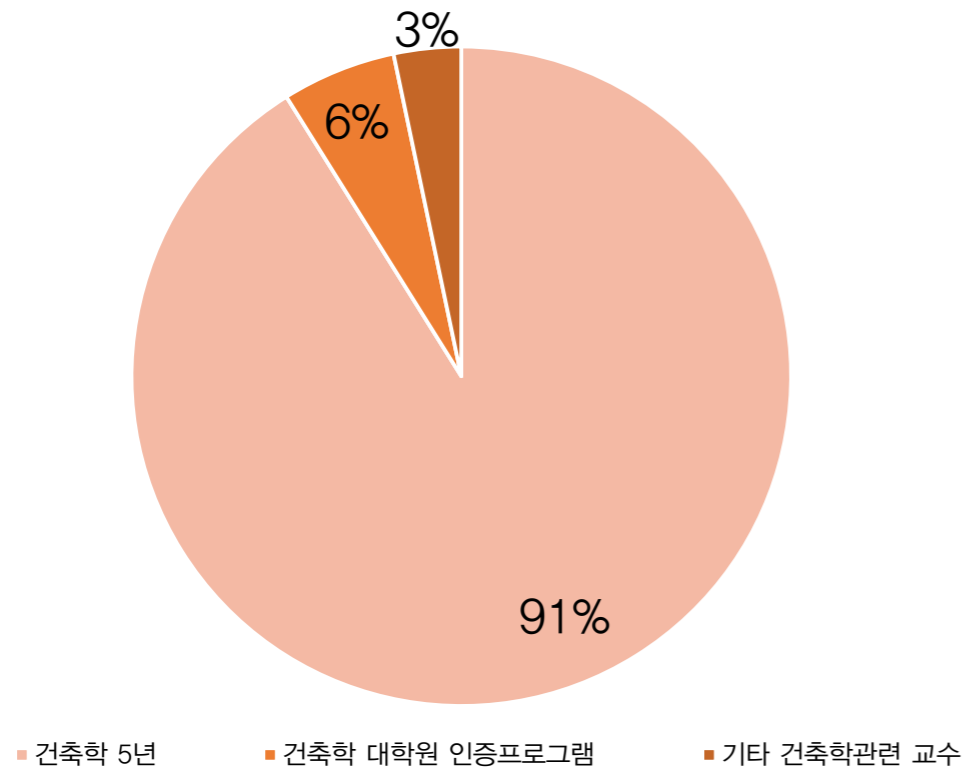
	질문사항	교수	실무자	건축사
인적사항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		●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		●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		●
	한국건축사 자격 소지 여부			●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재학기간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보완(강화)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선택)		●	
	졸업시기		●	
	귀하의 현재 직장은?		●	
	재학 중 건축학교육 인증실사 경험 유무		●	
	각 학생수행평가기준에 세부평가기준이 필요한가?	●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2.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		●
	2.1.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		●
	2.1.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		●
	2.1.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		●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
	2.3 학위 및 교과과정	●		●
	2.4 학생정보	●		●
	2.5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		●
	2.6 물리적 자원	●		●
	2.7 재정자원	●		●
	2.8 연구활동	●		●

	질문사항	교수	실무자	건축사
Part 3. 프로그램 학습성과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의 26개의 개수는?	●	●	●
	(부적절 혹은 매우 부적절 선택 시) SPC 26개 항목의 개수가 부적절한 이유는?	●	●	●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	●	●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이해한다'와 '할 수 있다' 2개의 성취도가 있습니다. 이의 적절성은?	●	●	●
	현재 학생수행평가기준의 분류체계는 적절한가? (종합적 평가)	●	●	●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	●	●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	spc 평가기준 1~26 적절도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건축적 사고 영역	●	●	●
	설계 영역	●	●	●
	기술 영역	●	●	●
	실무 영역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한국건축설계(능력)	●	●	●
	도시재생(이해,능력)	●	●	●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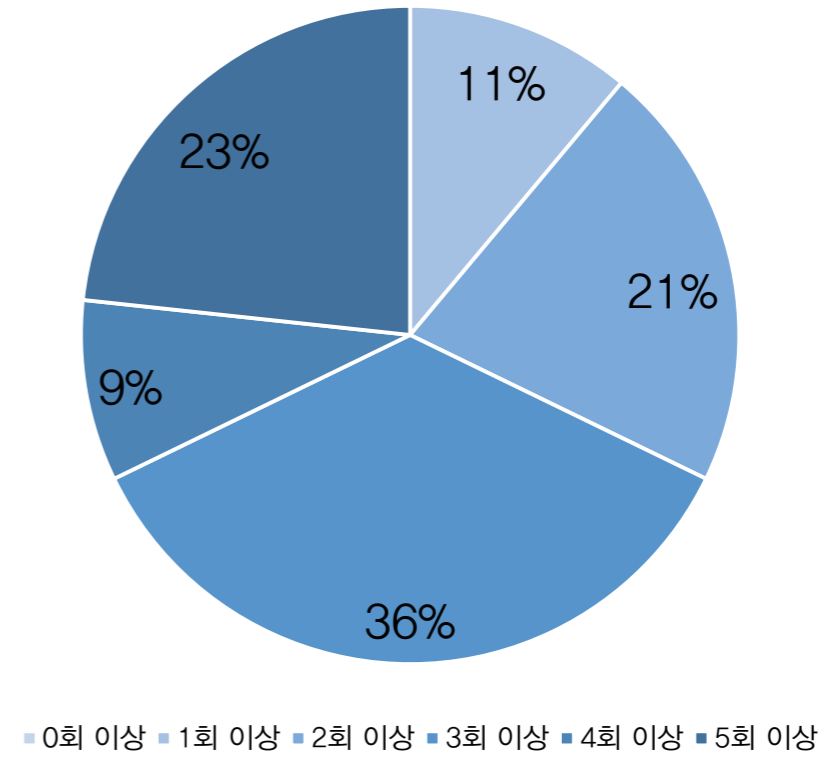
인적사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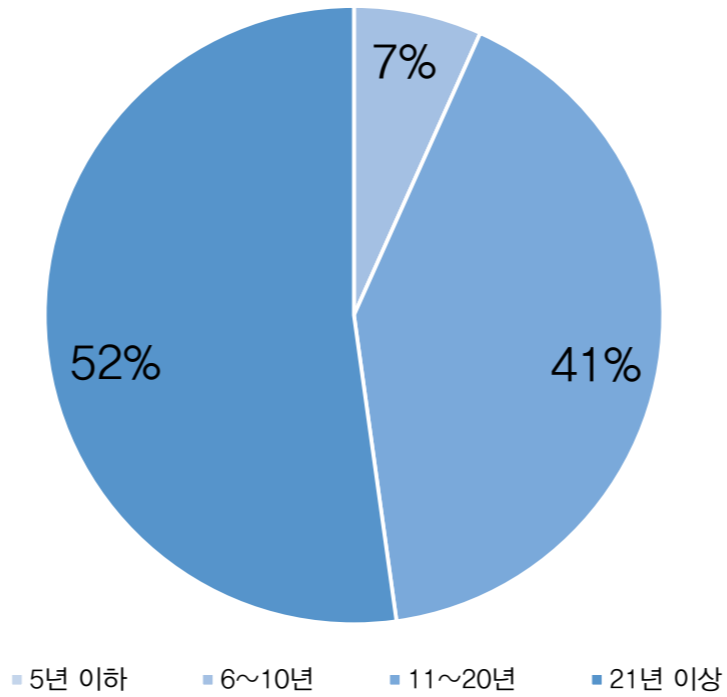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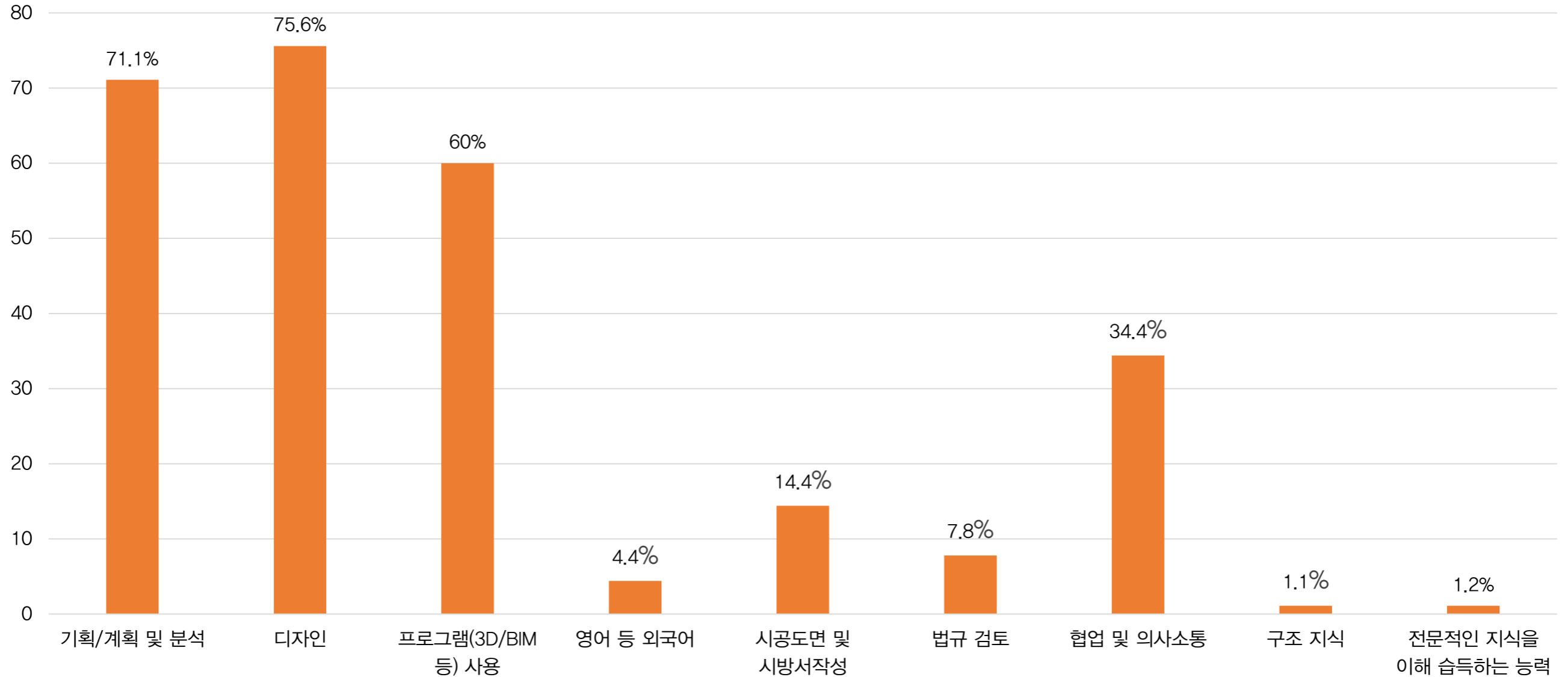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
(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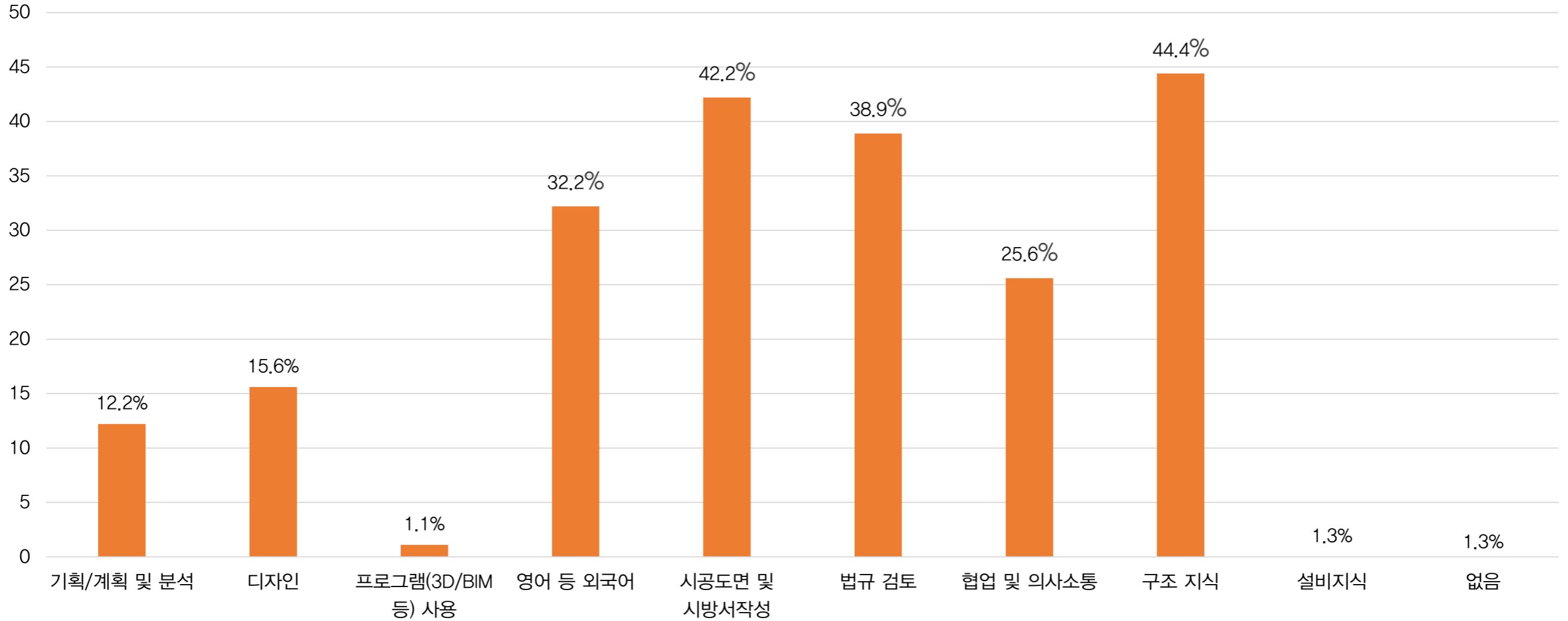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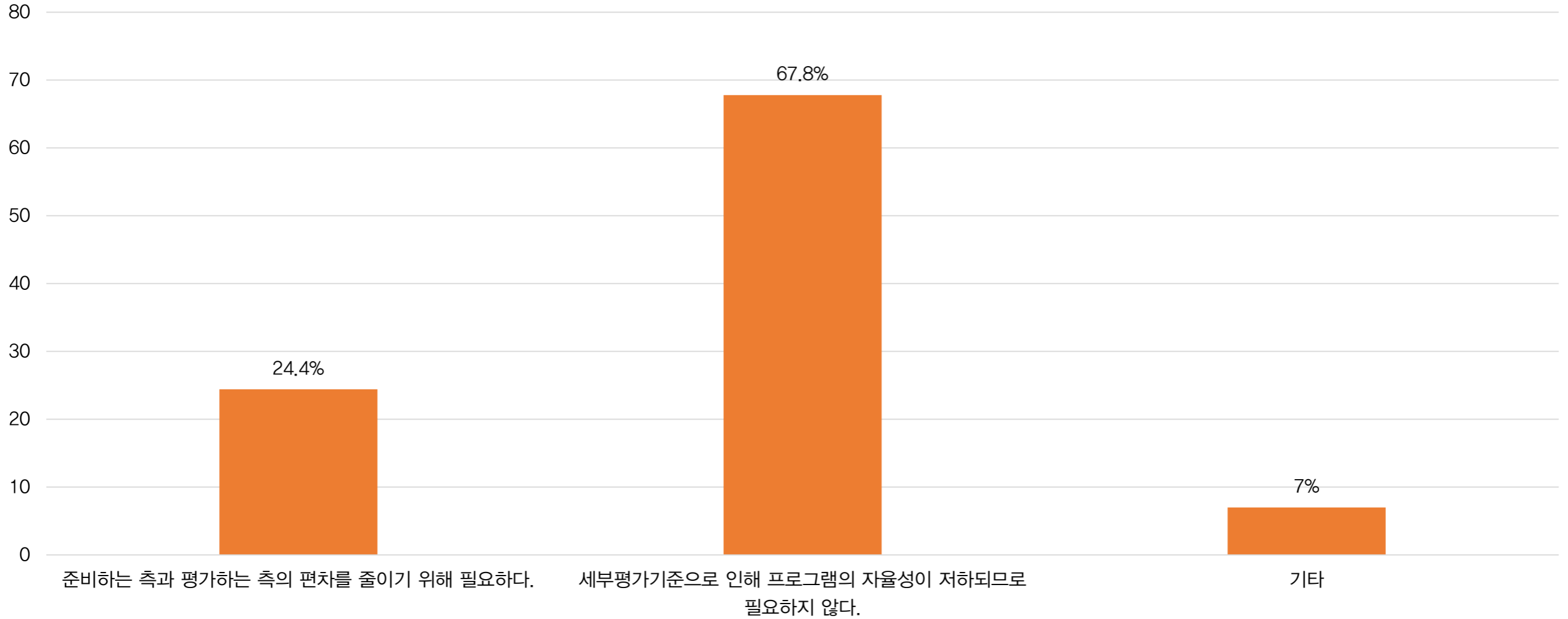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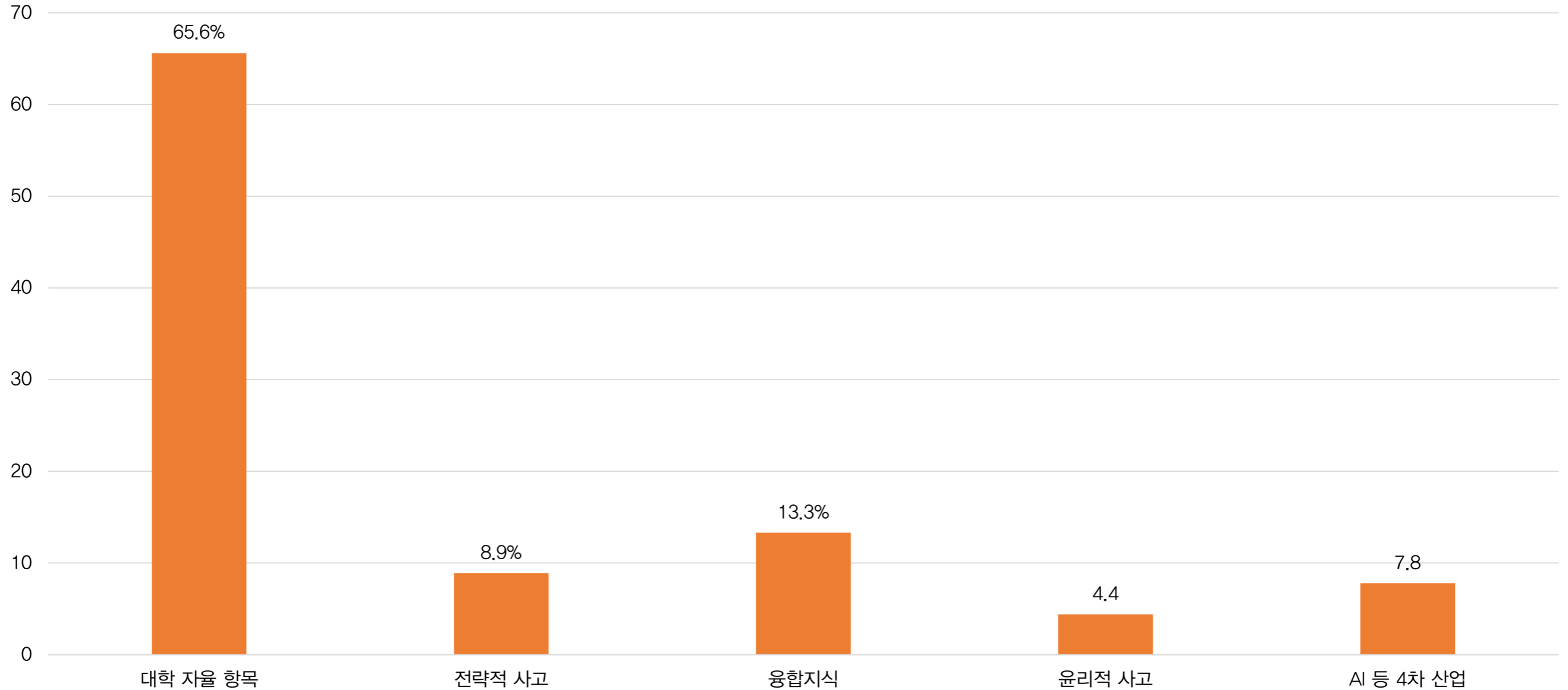
기타의견: 잡다한 분야를 조금씩 알 뿐, 가장 중요한 디자인 능력이 천편일률임, 학문적 다양성 확보, 지나친 실무중심의 기능적 교육으로인한 기획-계획-분석-디자인 등 기본적인 건축 역량의 부족, 보고서 작성, 다양한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견문이 넓지 않은 부분, 신생 분야 지식, 창의성

각 학생수행평가기준에 세부평가기준이 필요한가?



기타의견: 필요하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이 간략해져야 한다, 신규인증의 경우 필요,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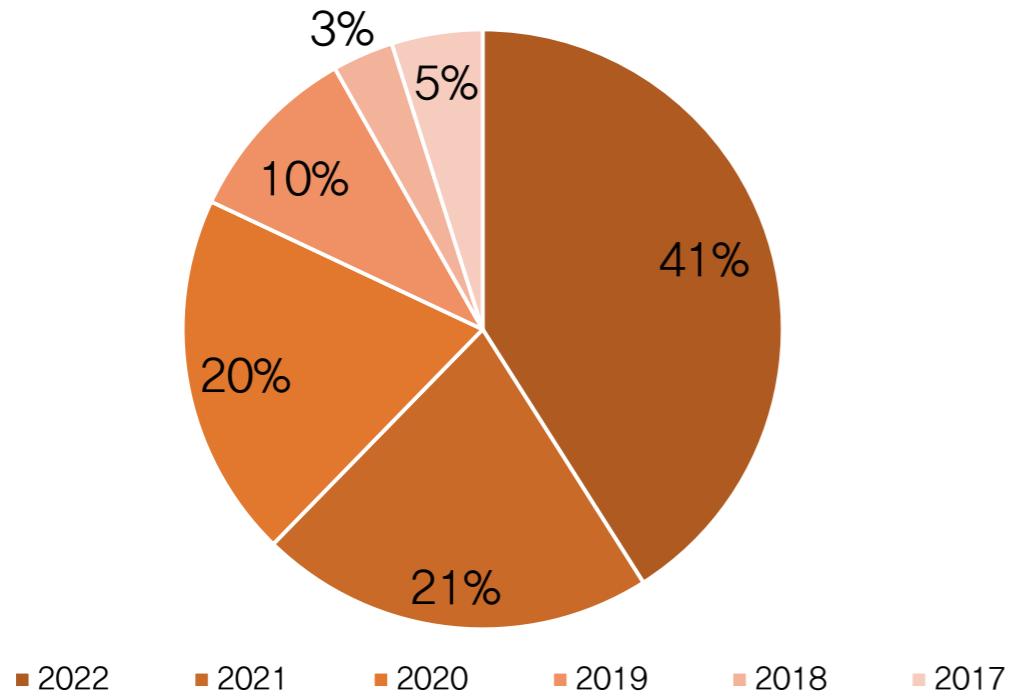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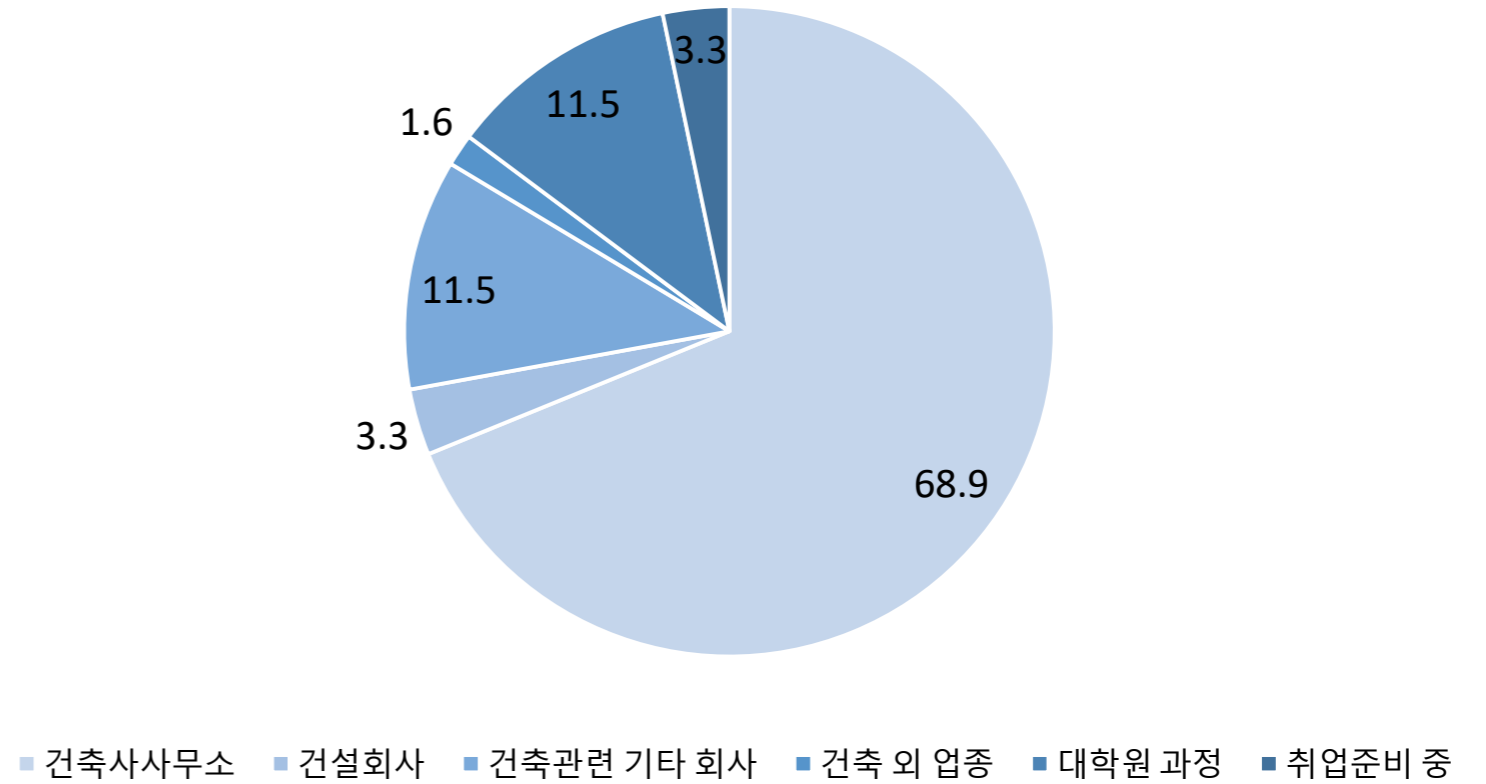
인적사항

-실무수련자 또는 건축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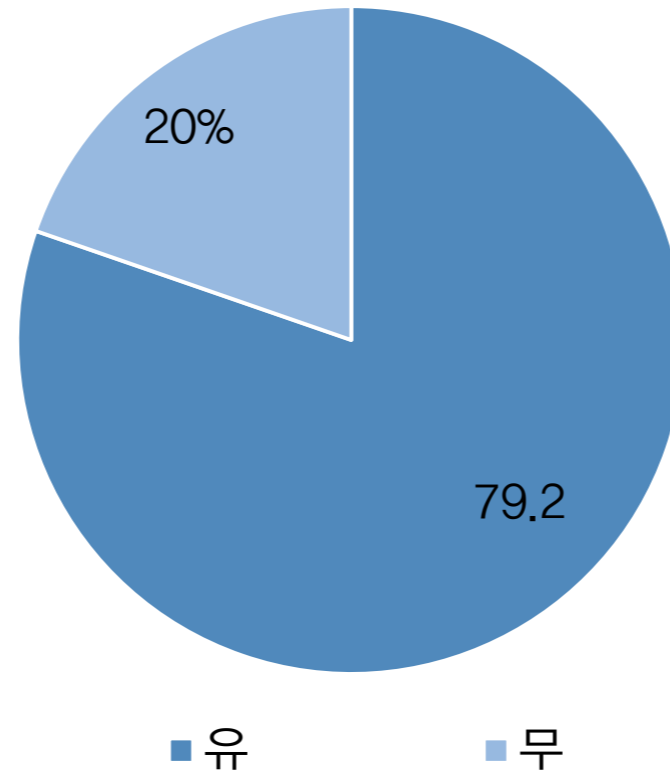
졸업시기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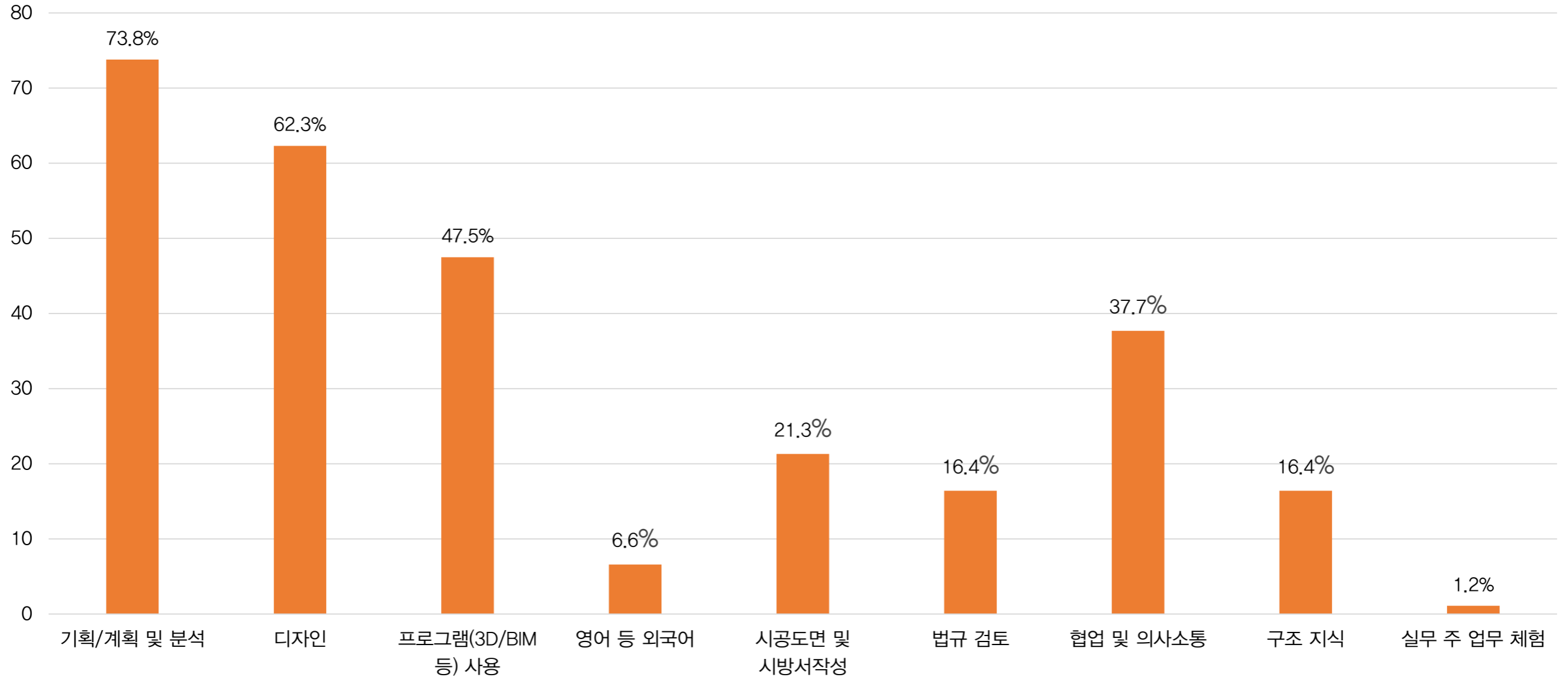
귀하의 현재 직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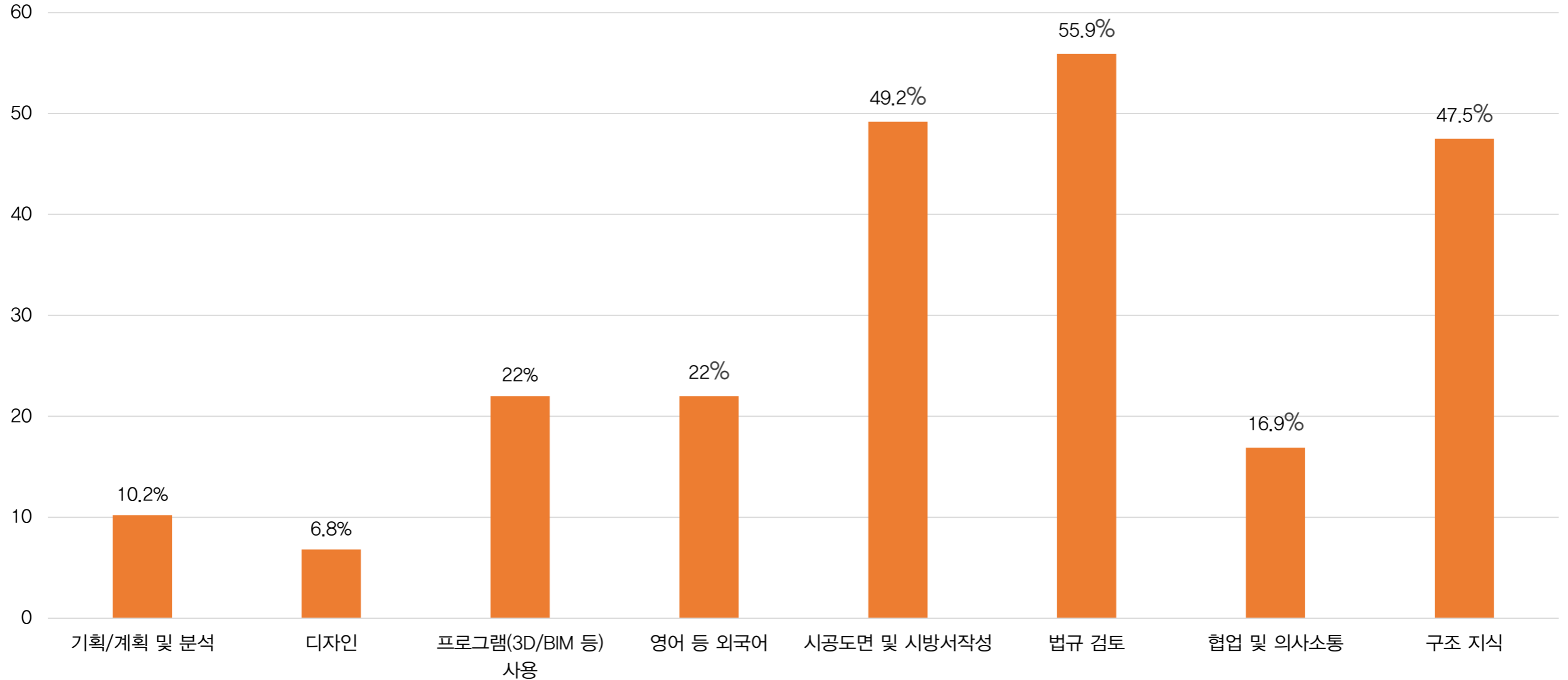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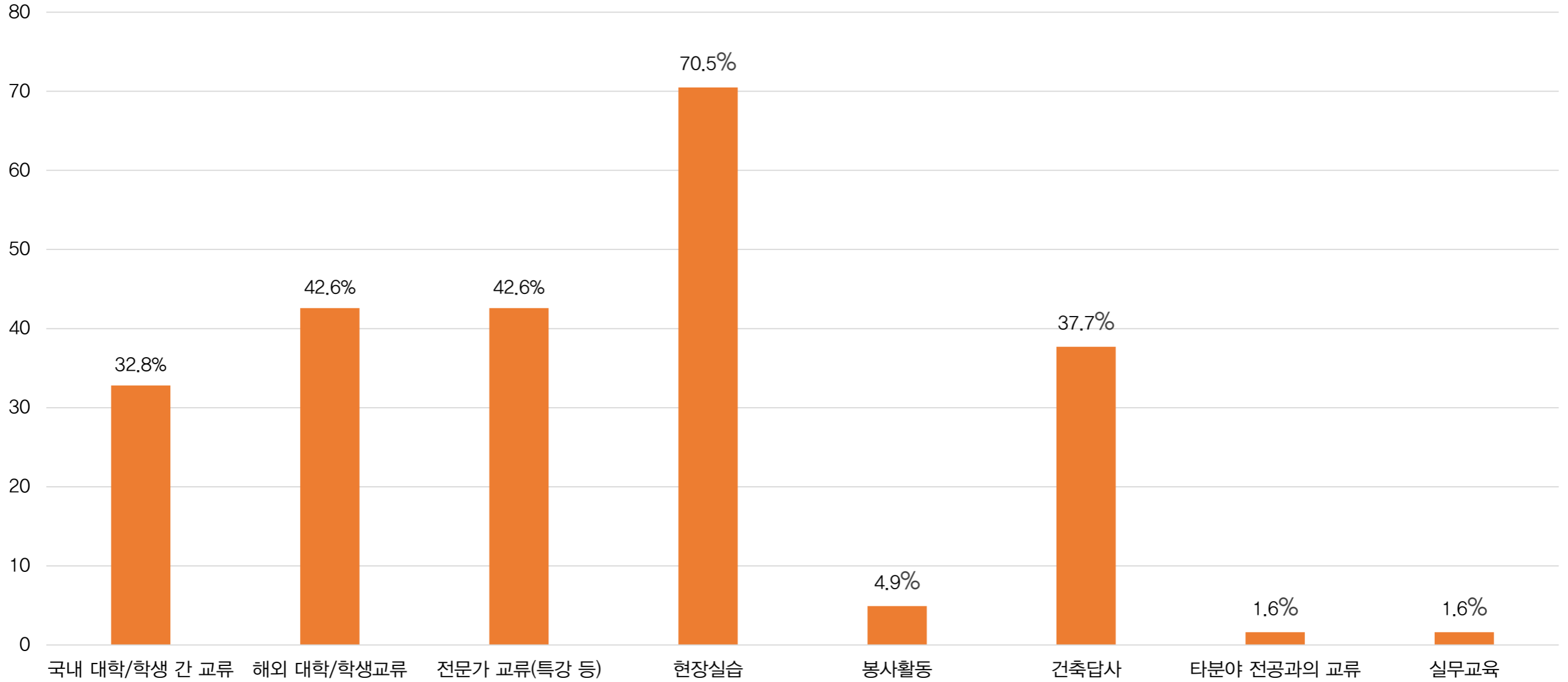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불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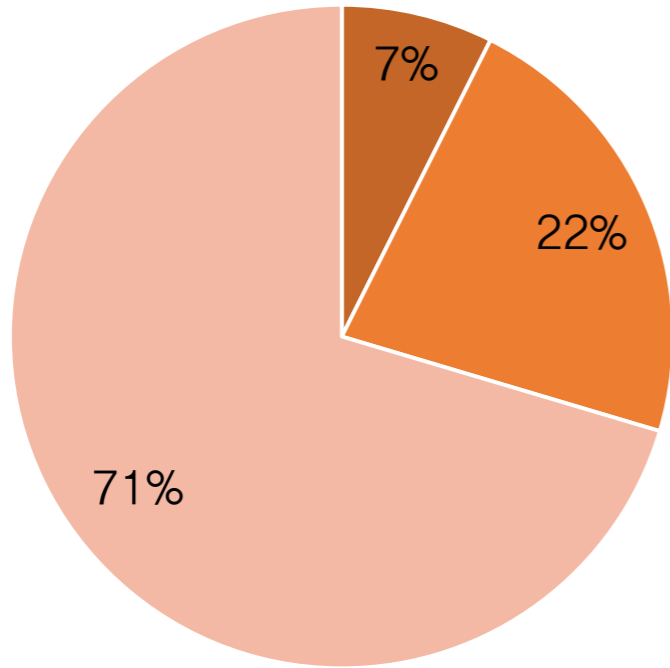
재학기간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보완(강화)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선택)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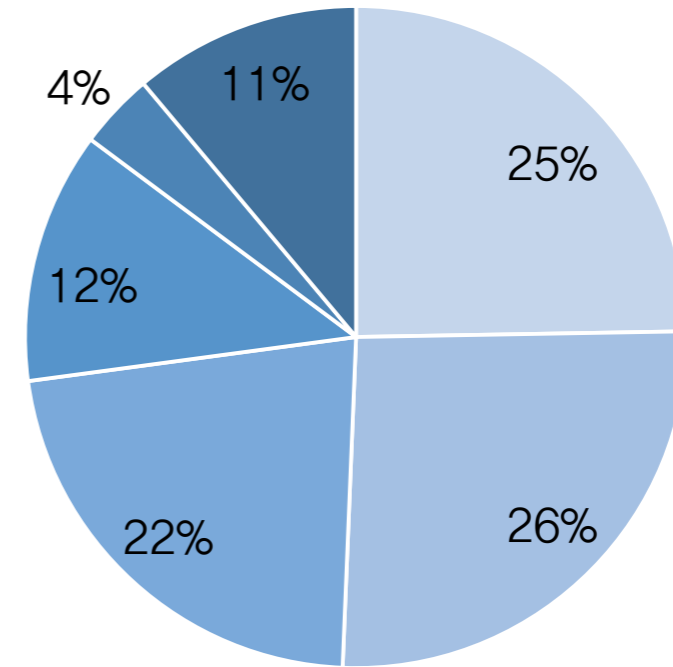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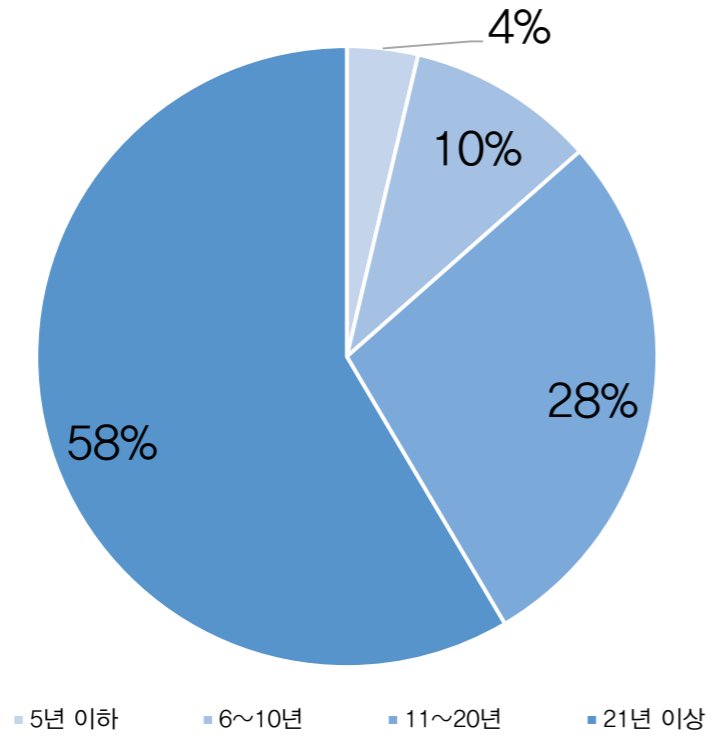
■ 대형 설계사무소 (51명 이상) ■ 중형 설계사무소 (6~50명) ■ 소형 설계사무소 (5명 이하)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
(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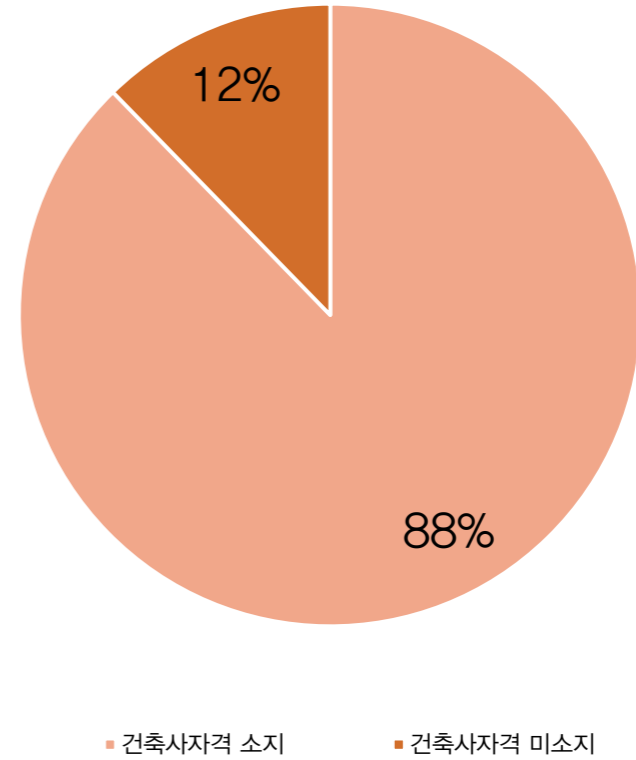


■ 0회 이상 ■ 1회 이상 ■ 2회 이상 ■ 3회 이상 ■ 4회 이상 ■ 5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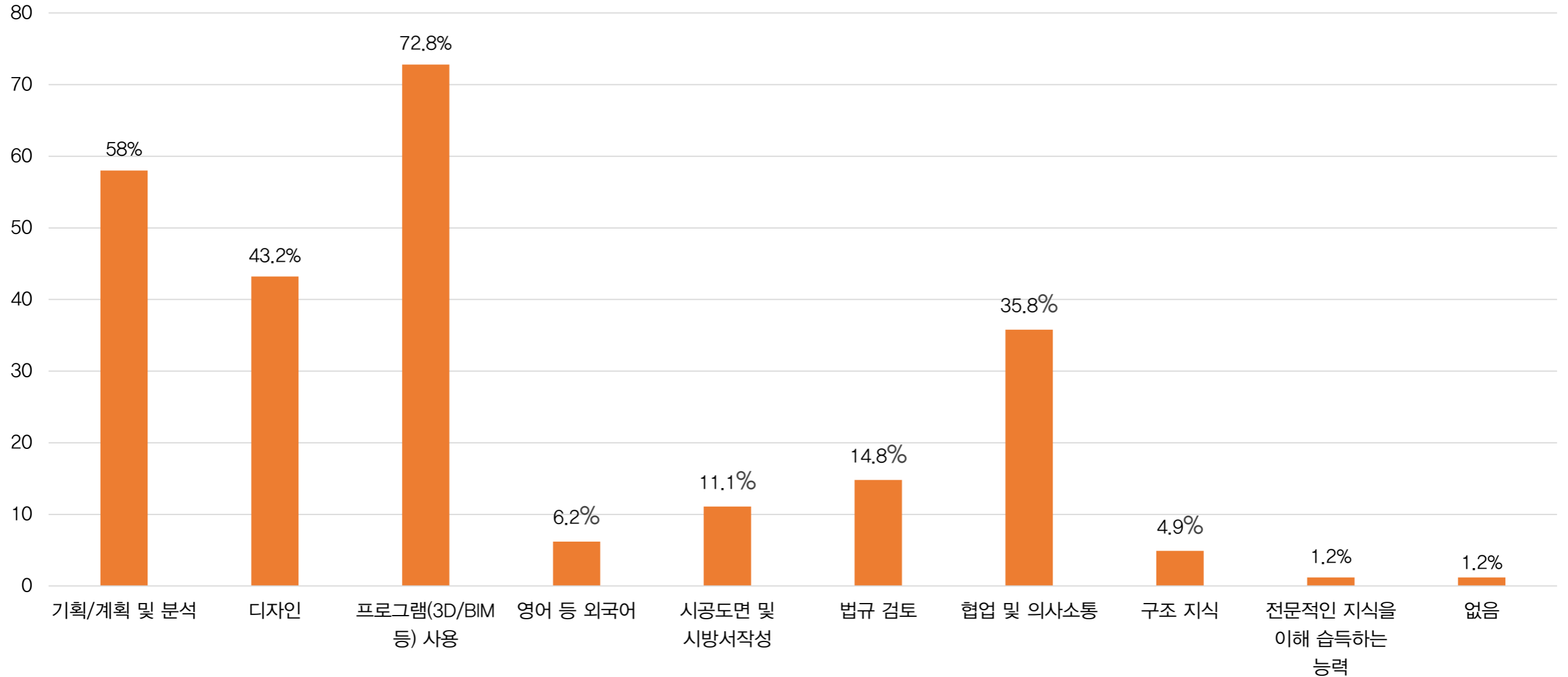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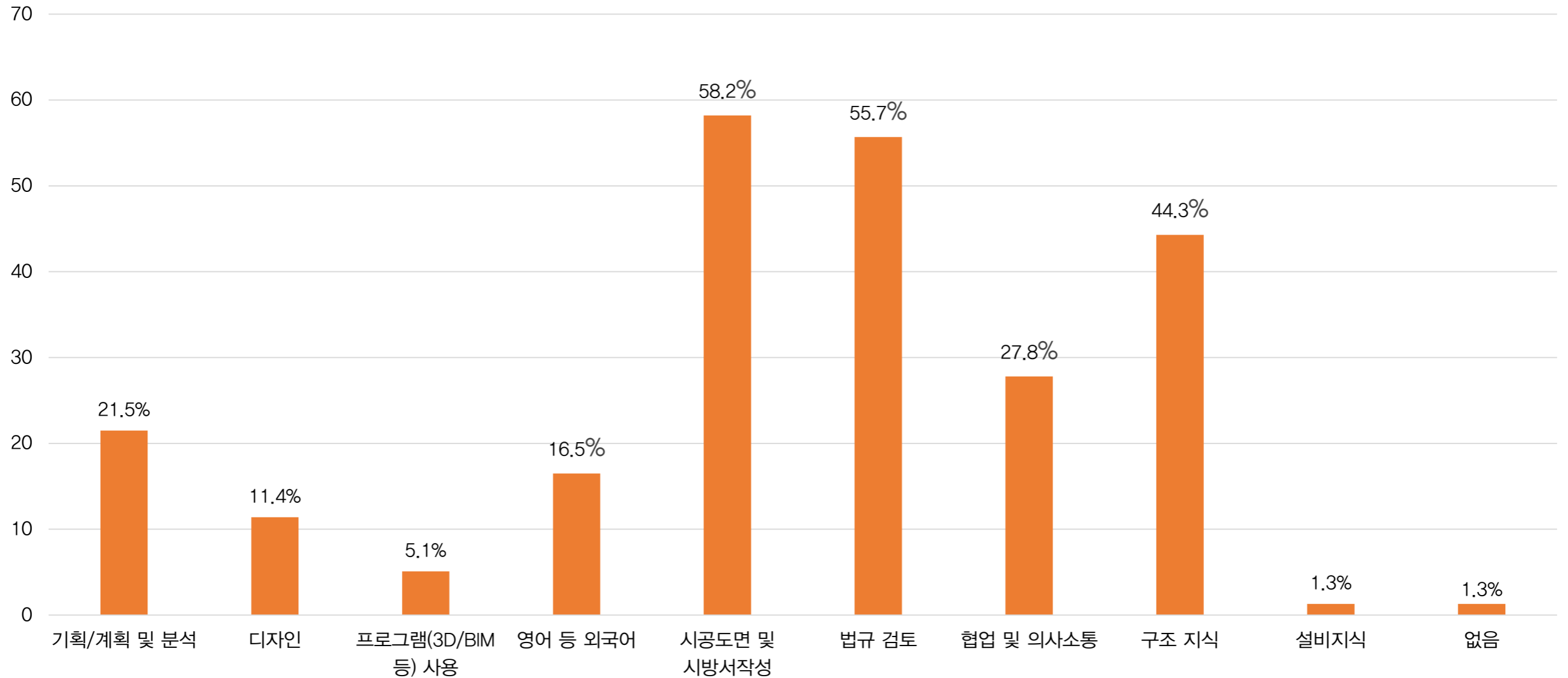
한국건축사 자격 소지 여부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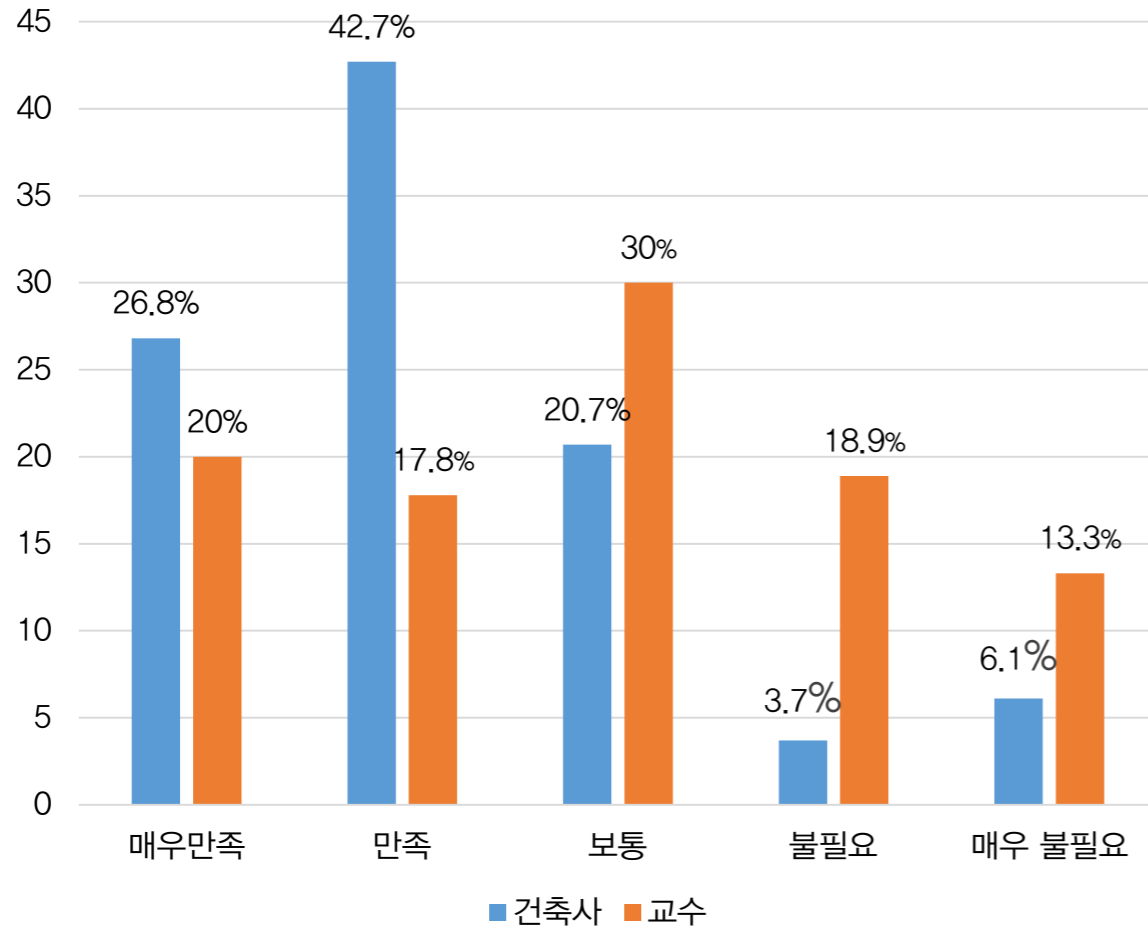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건축사 & 교수-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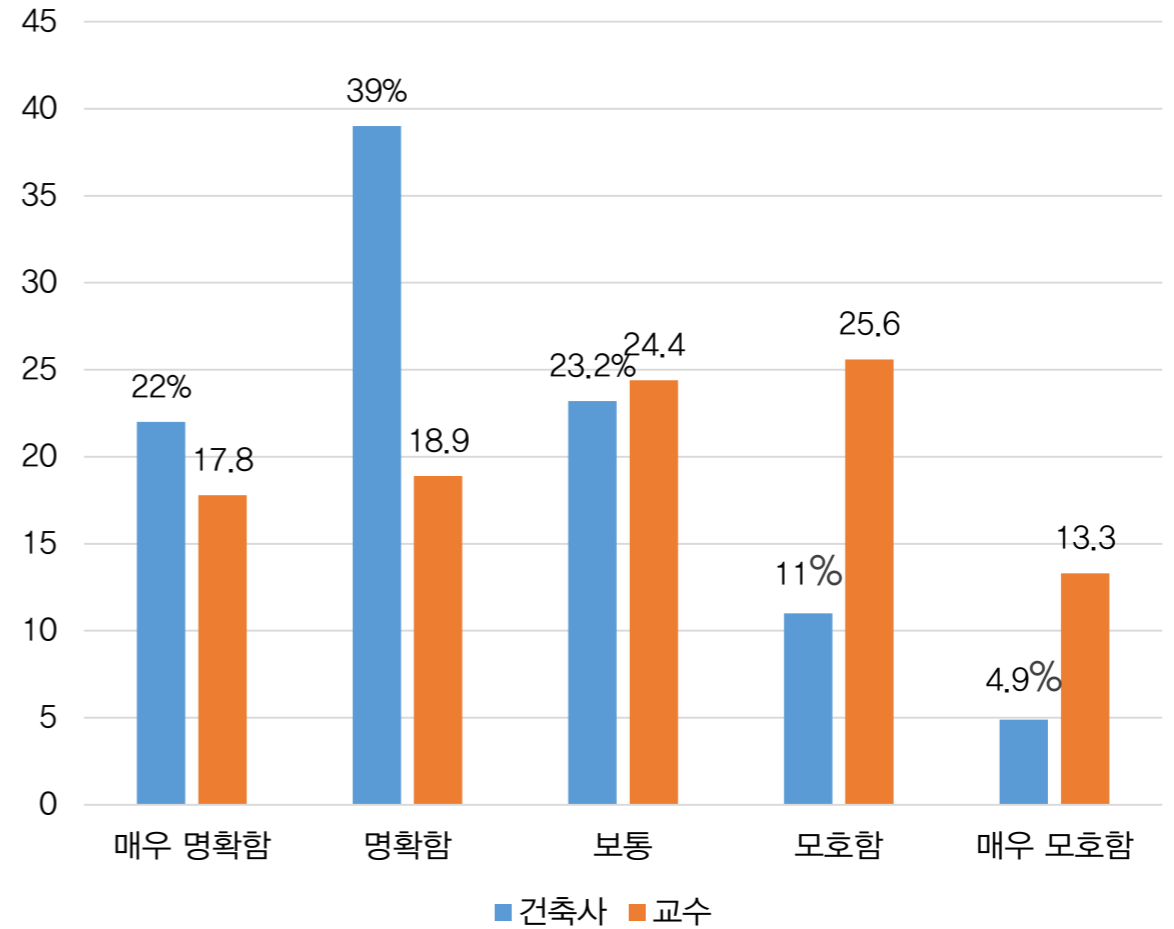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0 (1.07) / 교수용 : 3.13 (1.31)
 P= 0.000 / t-value= -3.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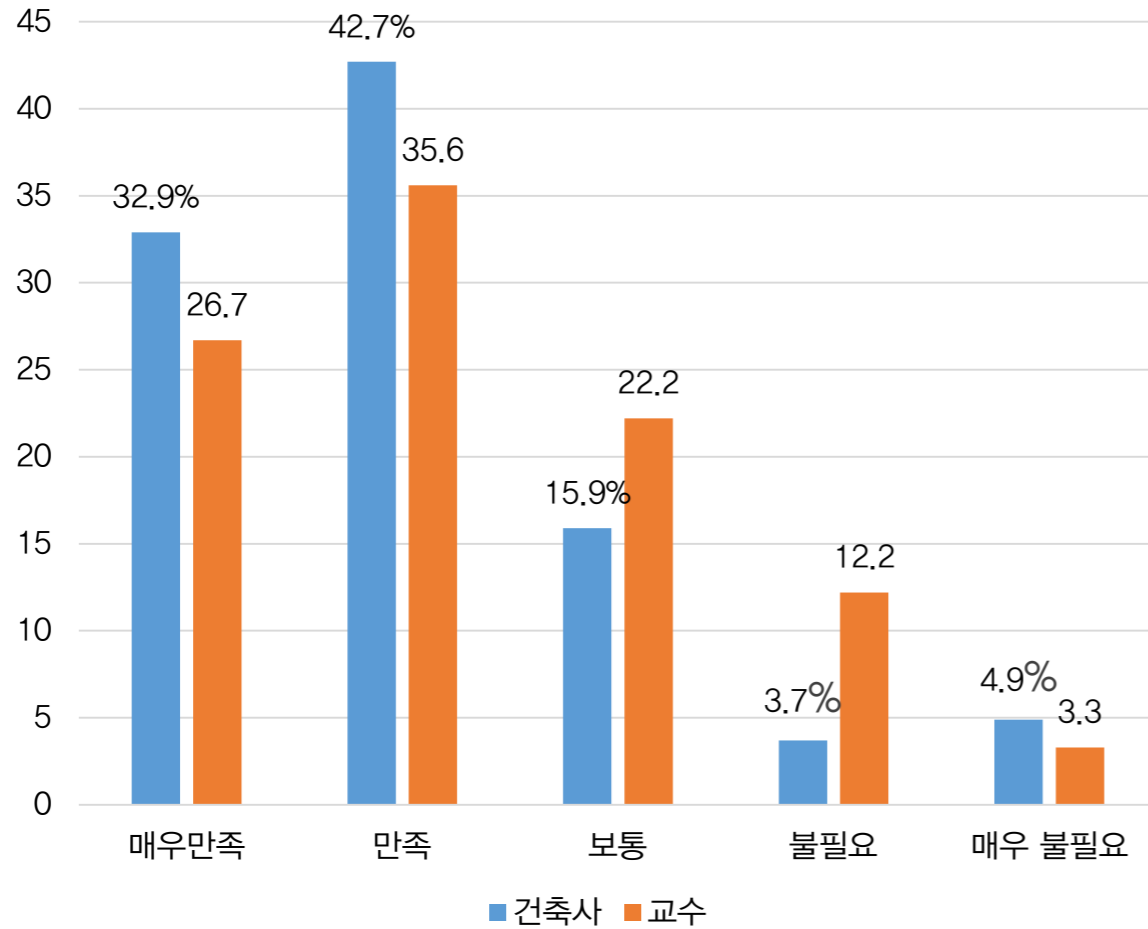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2 (1.10) / 교수용 : 3.03 (1.31)
 P= 0.002 / t-value= -3.17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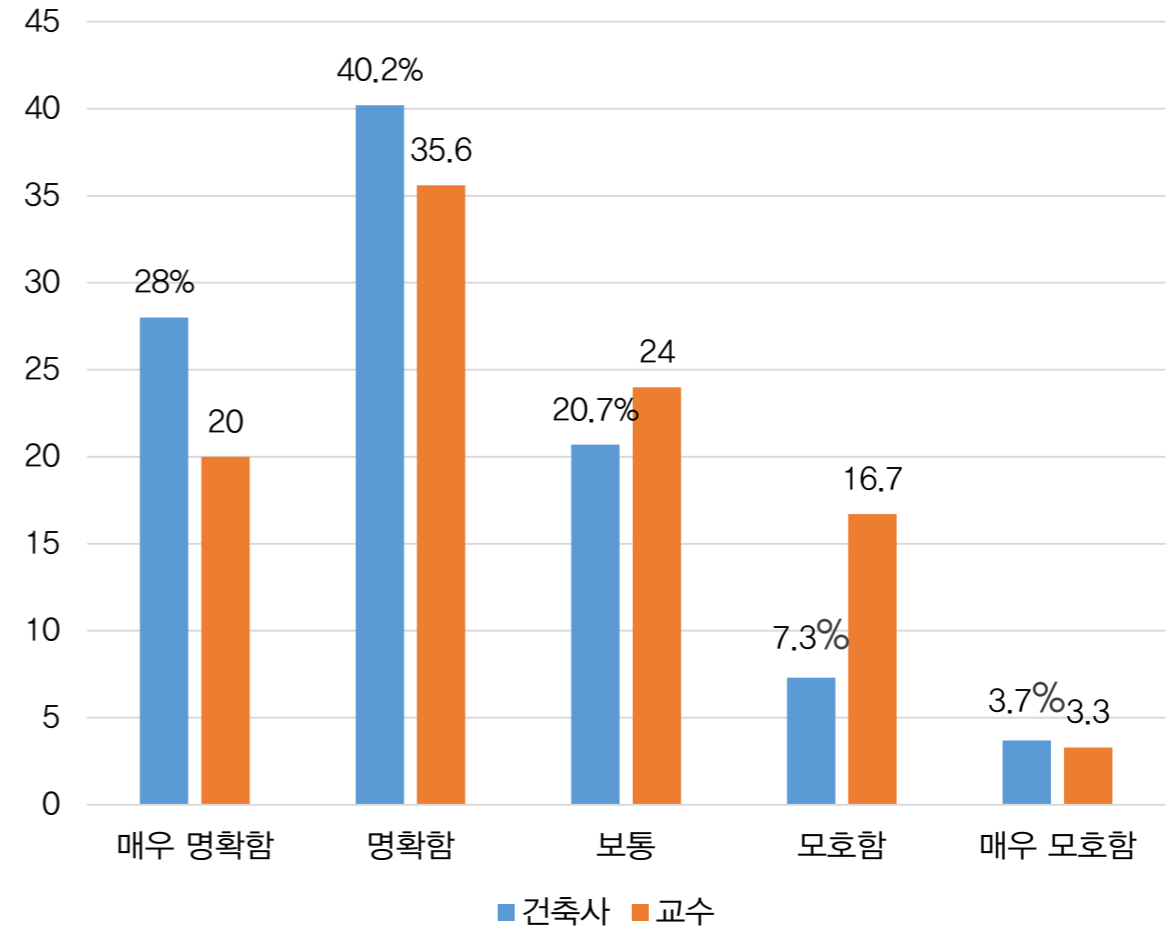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5 (1.04) / 교수용 : 3.72 (1.09)

P= 0.156 / t-value= -1.423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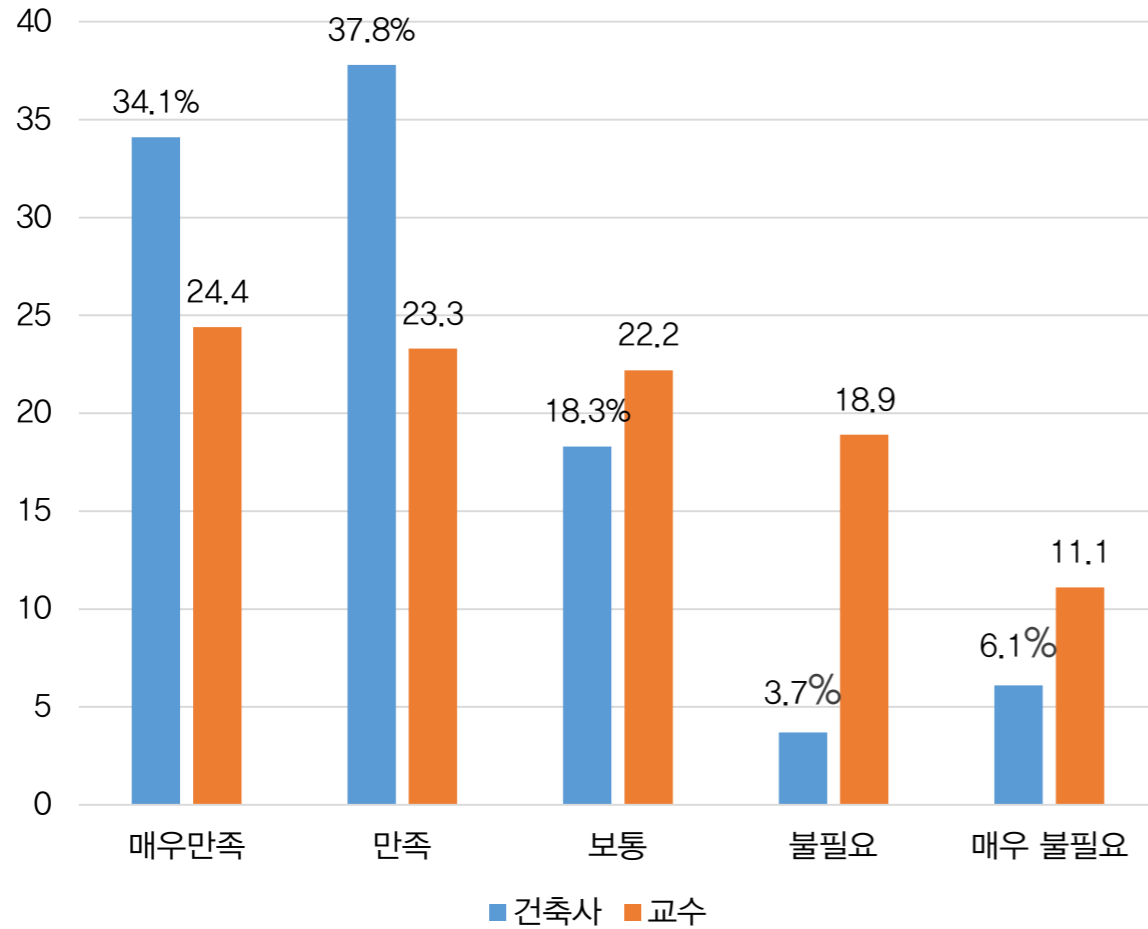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2 (1.04) / 교수용 : 3.54 (1.09)

P= 0.091 / t-value= -1.70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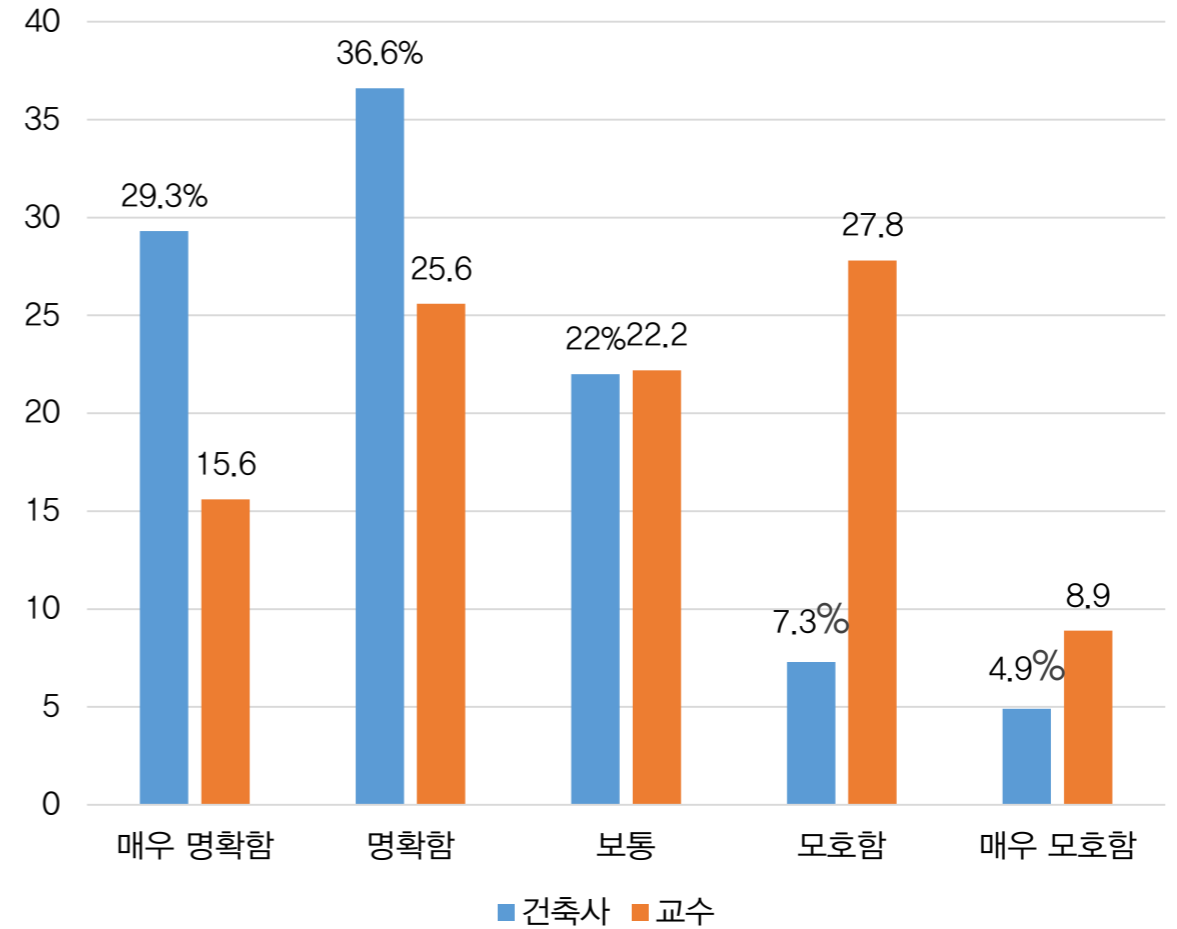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0 (1.11) / 교수용 : 3.33 (1.33)

P= 0.002 / t-value= -3.091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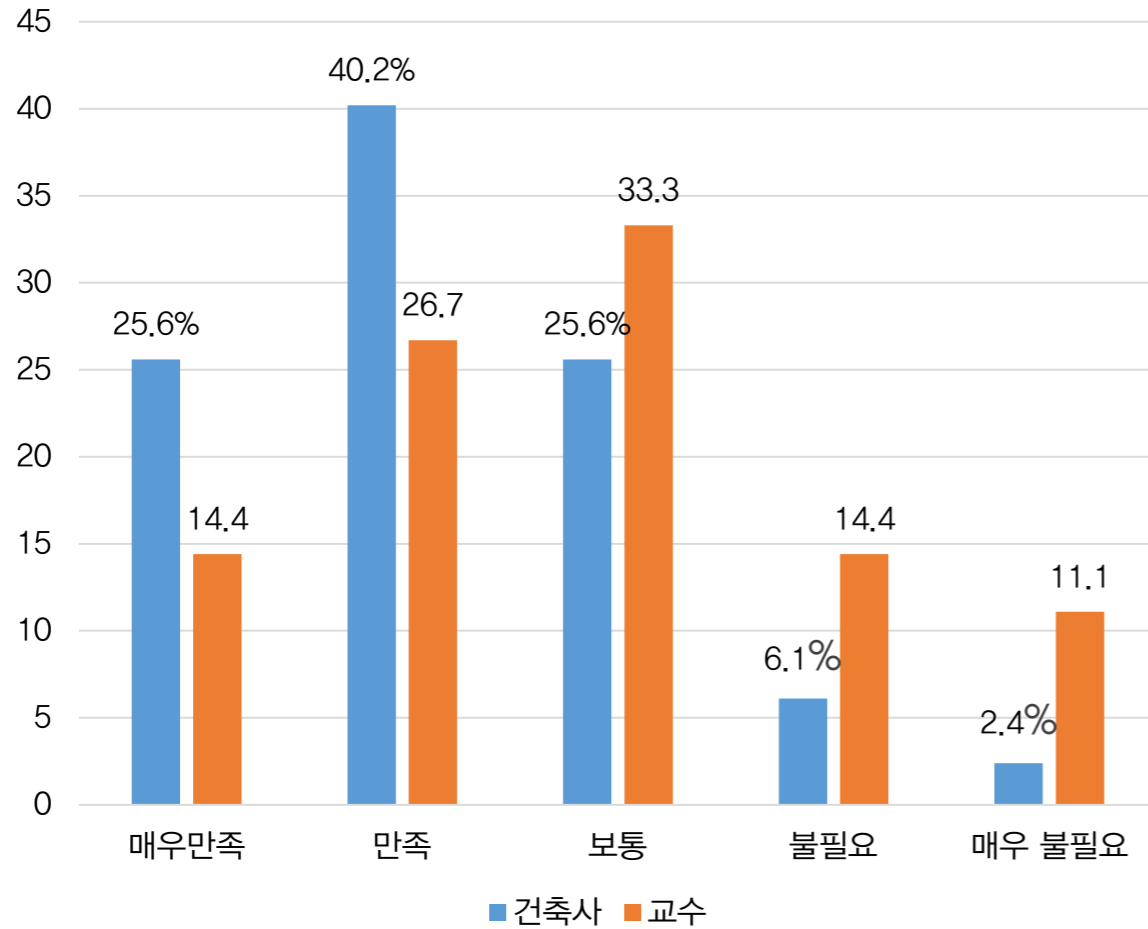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8 (1.10) / 교수용 : 3.12 (1.23)

P= 0.000 / t-value= -3.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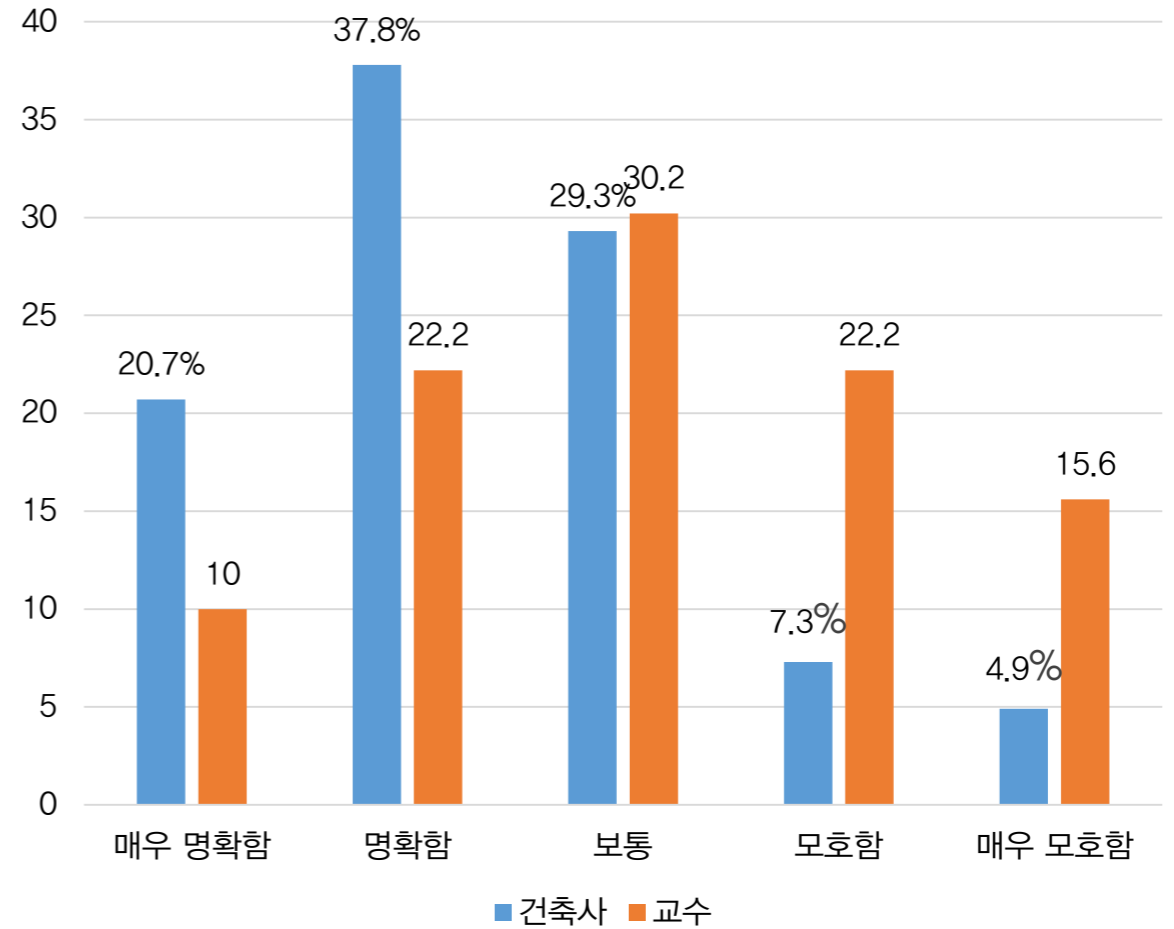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0 (0.97) / 교수용 : 3.20 (1.19)
 P= 0.000 / t-value= -3.608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2 (1.05) / 교수용 : 2.90 (1.22)
 P= 0.000 / t-value= -4.146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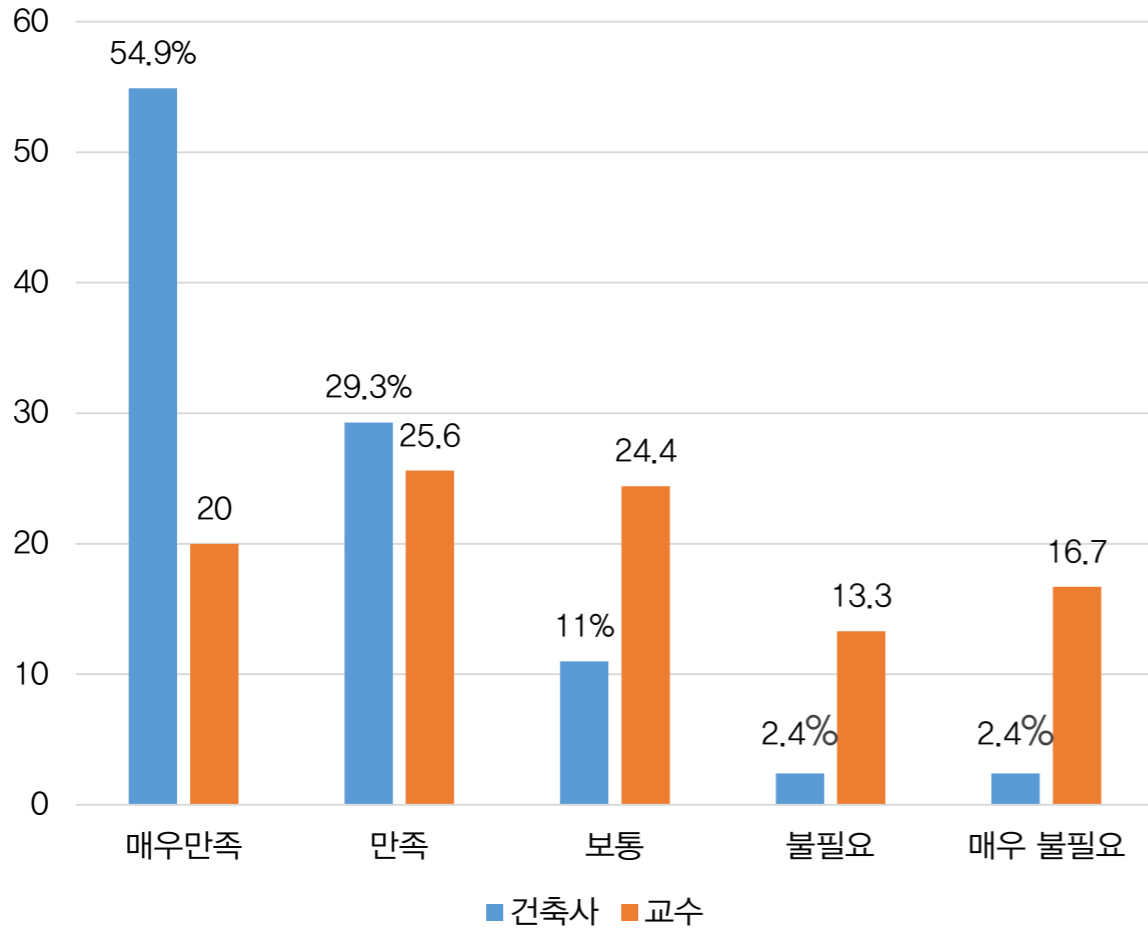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_건축사	필요도 평균		p값	t값	명확도 평균		p값	t값
	건축사	교수			건축사	교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3.80	3.13	0.000	-3.678	3.62	3.03	0.002	-3.17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3.95	3.72	0.156	-1.423	3.82	3.54	0.091	-1.70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3.90	3.33	0.002	-3.091	3.78	3.12	0.000	-3.66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3.80	3.20	0.000	-3.608	3.62	2.90	0.000	-4.146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 체계 및 교육환경

-건축사 &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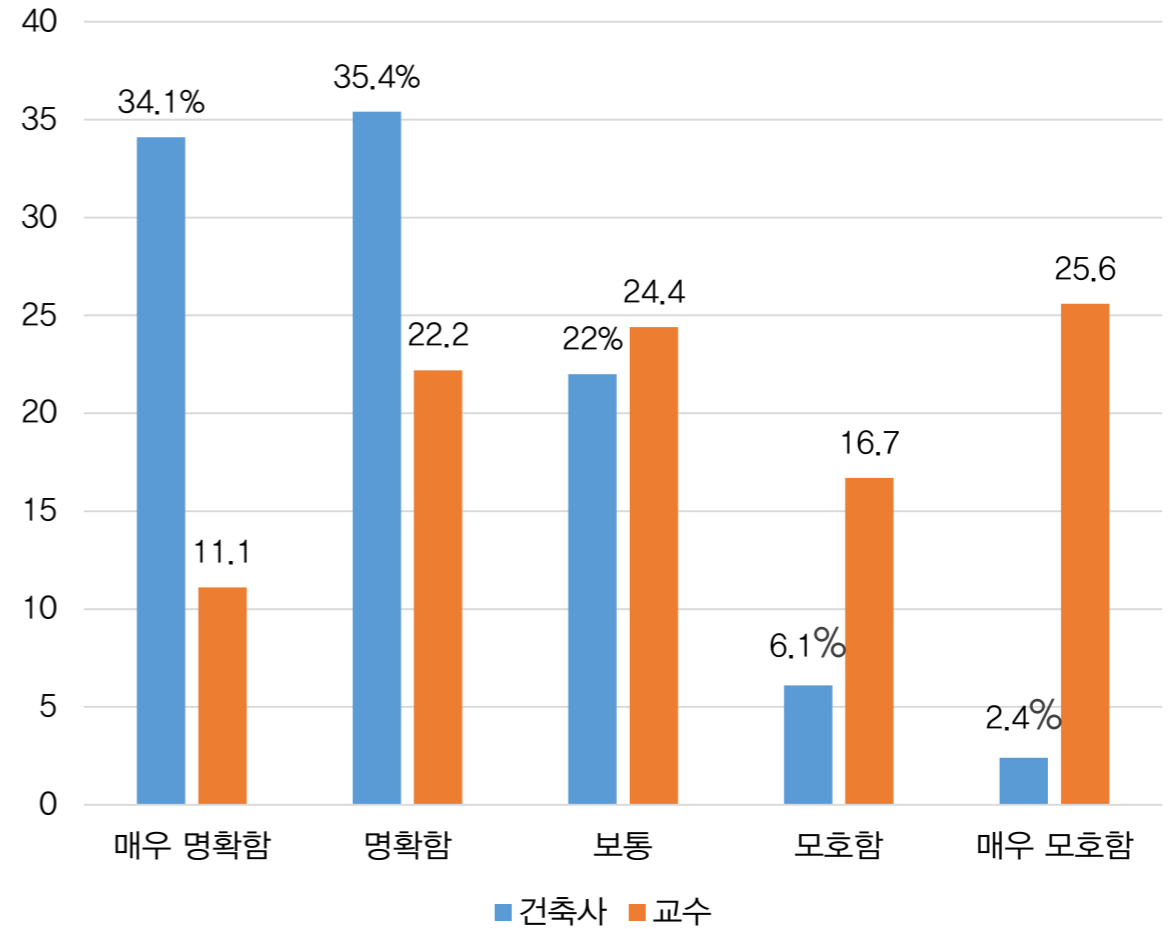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32 (0.94) / 교수용 : 3.21 (1.34)
 P= 0.000 / t-value= -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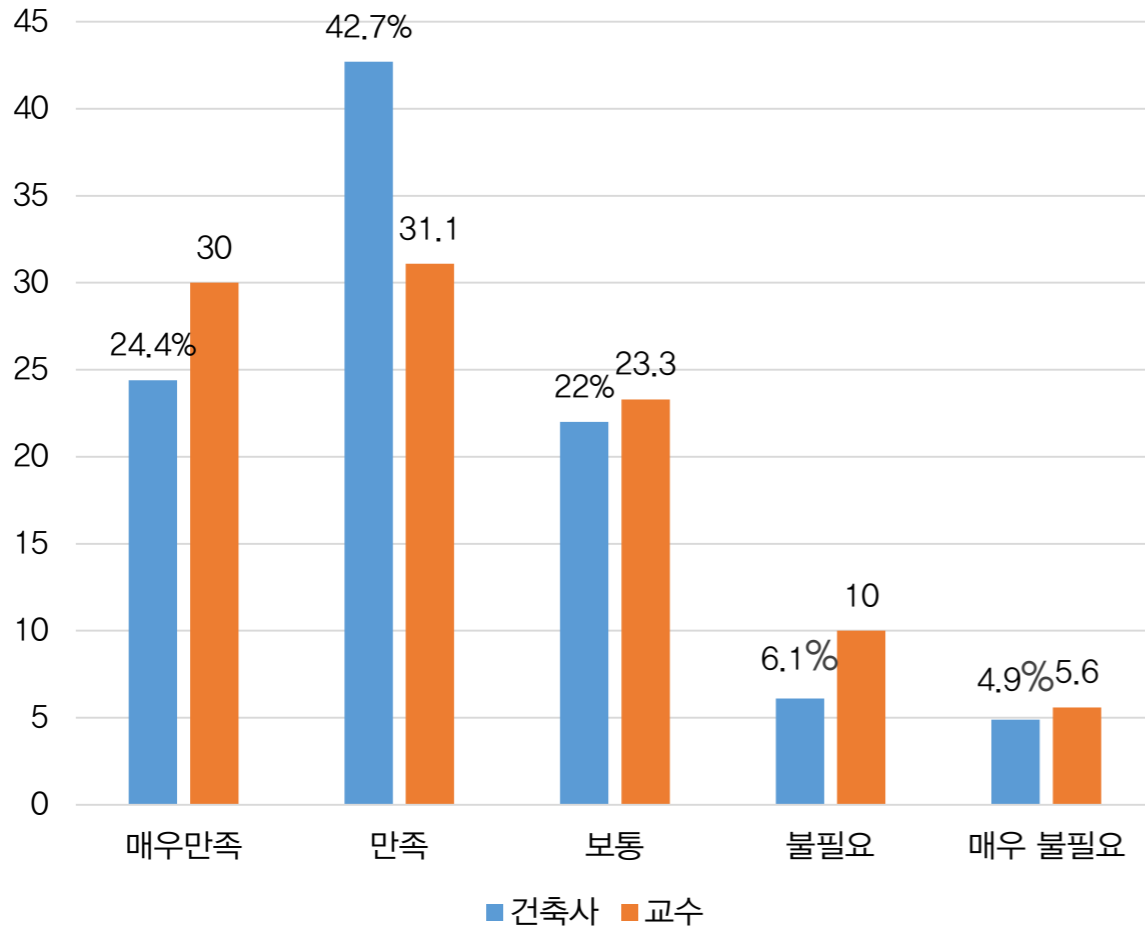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3 (1.02) / 교수용 : 2.79 (1.34)
 P= 0.000 / t-value= -6.289

학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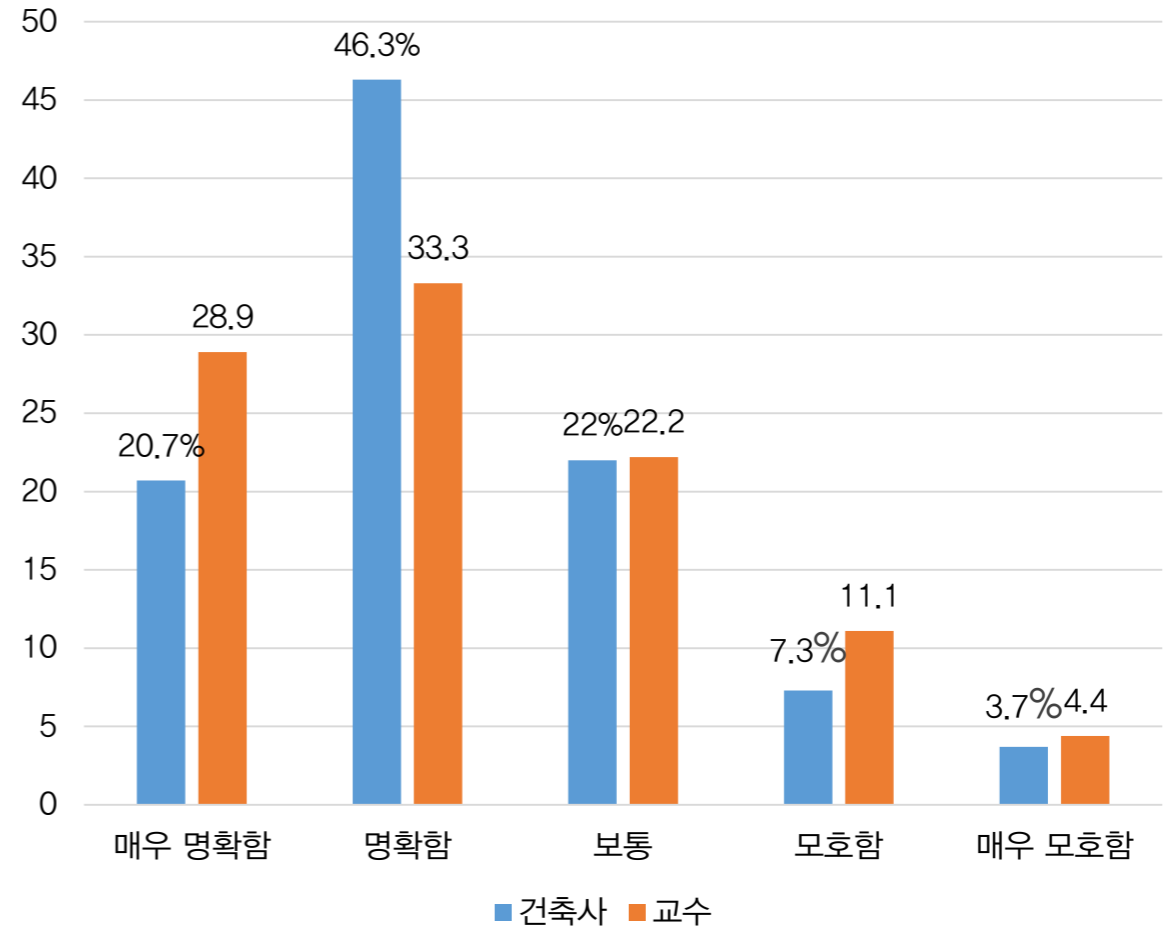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6 (1.05) / 교수용 : 3.71 (1.17)

P= 0.778 / t-value= -0.283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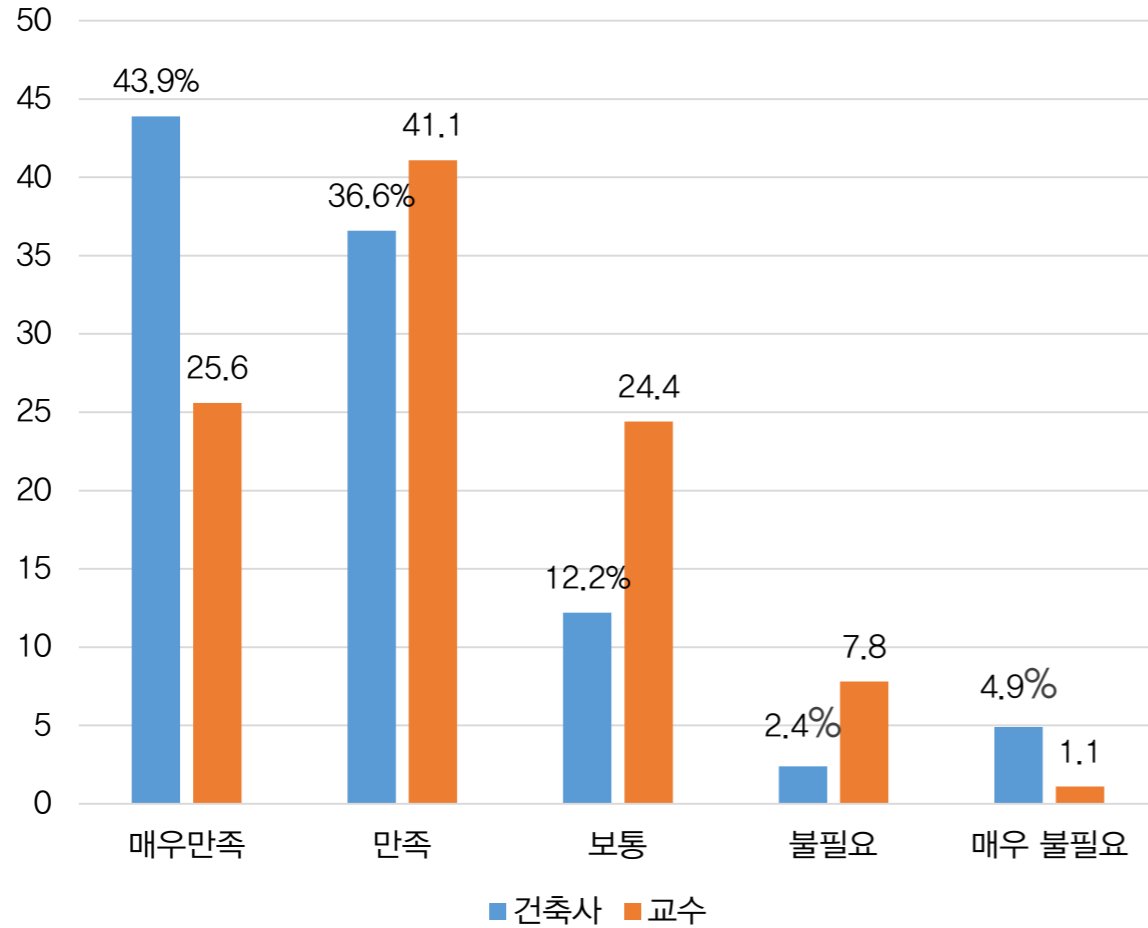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3 (0.99) / 교수용 : 3.72 (1.14)

P= 0.939 / t-value= -0.077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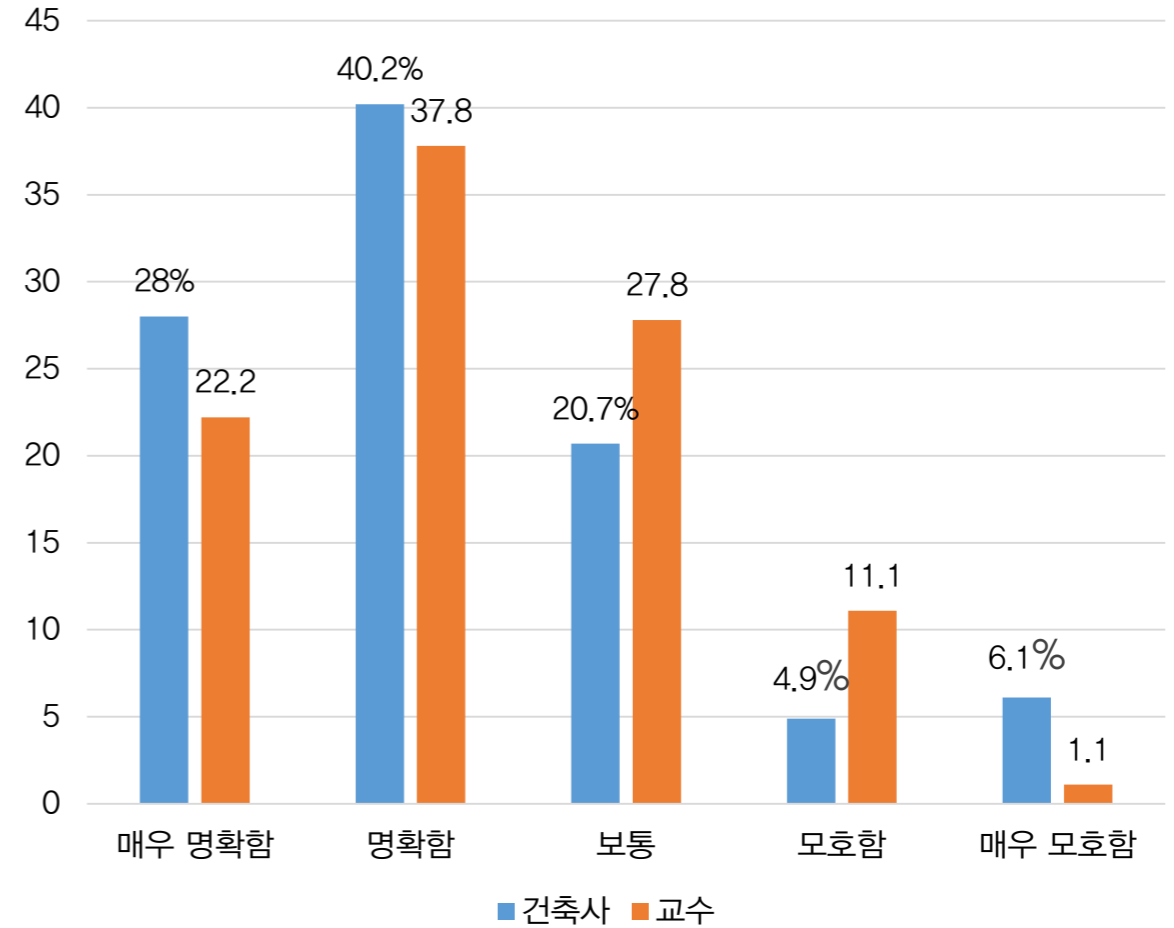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12 (1.05) / 교수용 : 3.82 (0.95)

P= 0.050 / t-value= -1.978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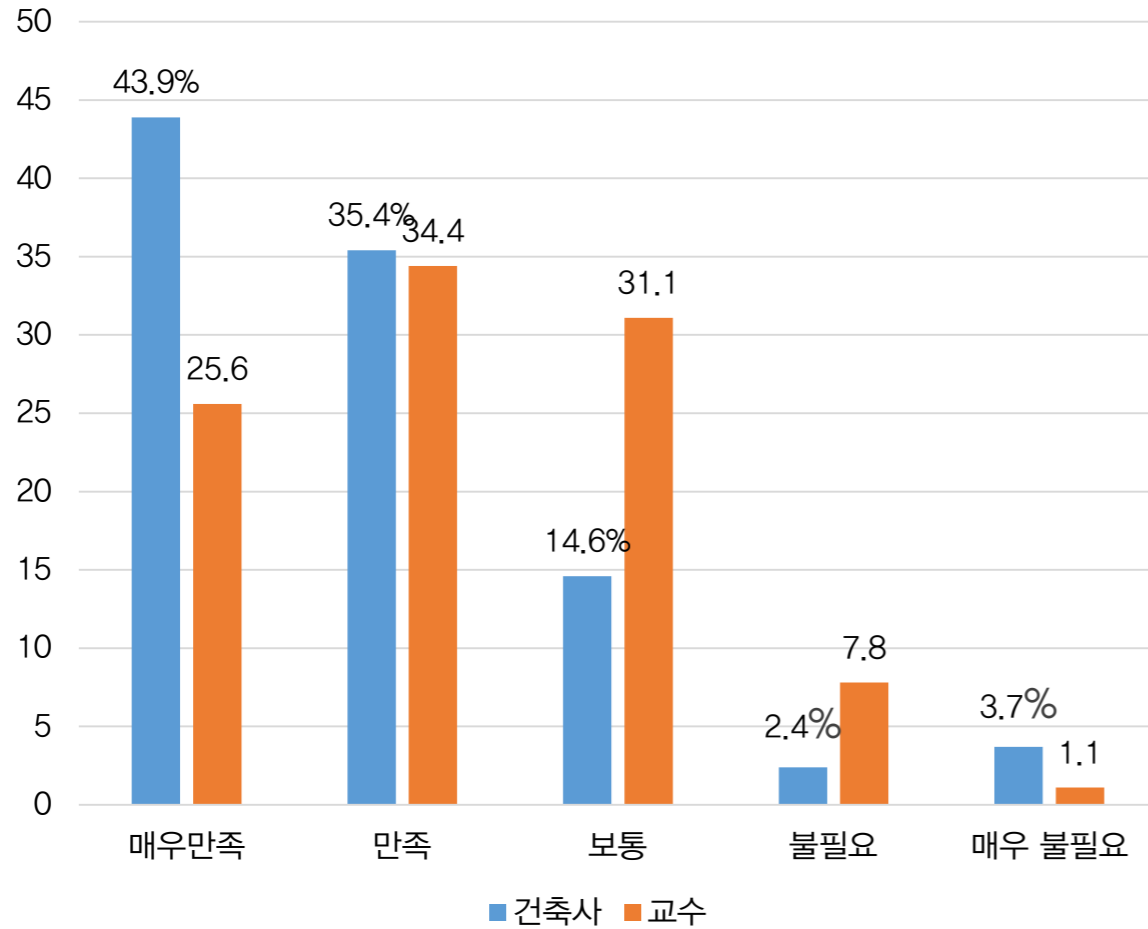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9 (1.10) / 교수용 : 3.69 (0.98)

P= 0.501 / t-value= -0.674

물리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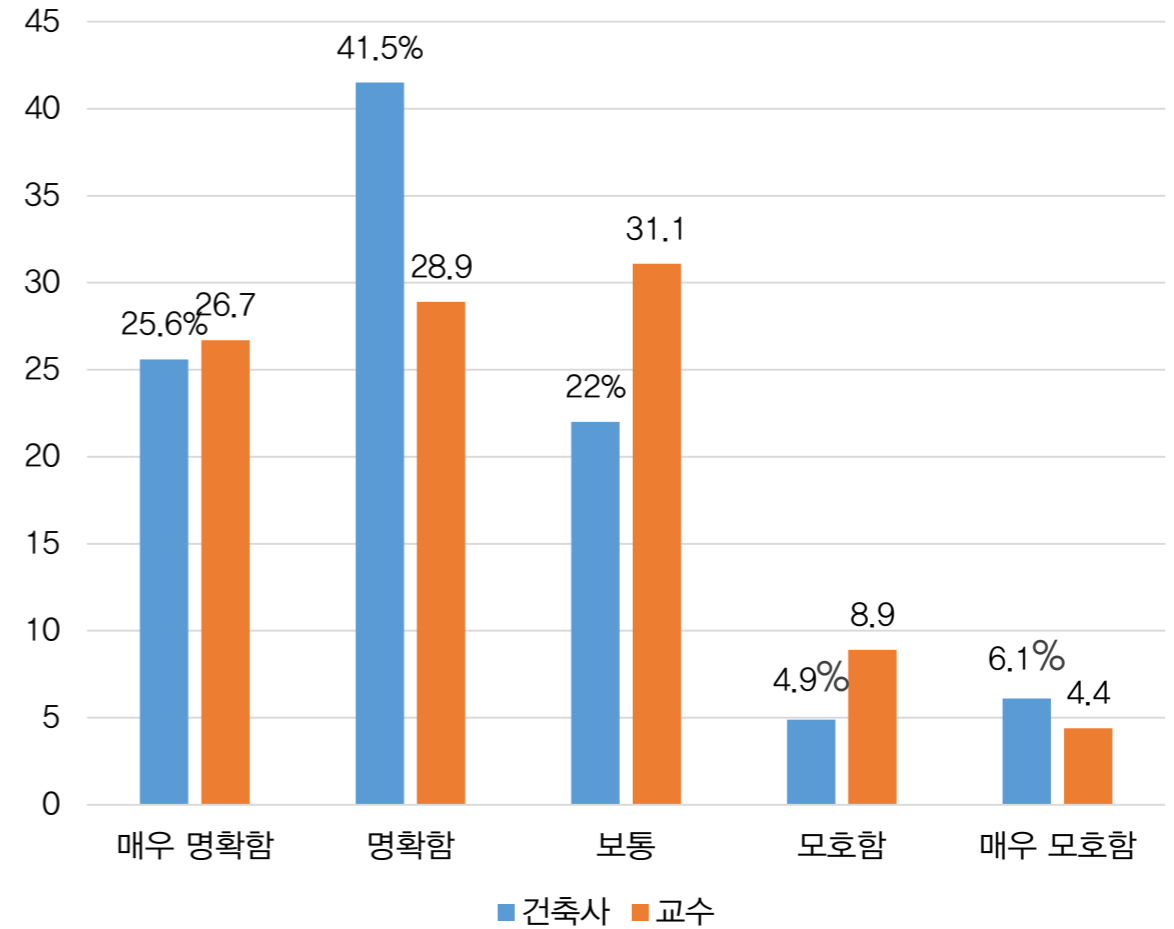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13 (1.00) / 교수용 : 3.76 (0.97)

P= 0.015 / t-value= -2.458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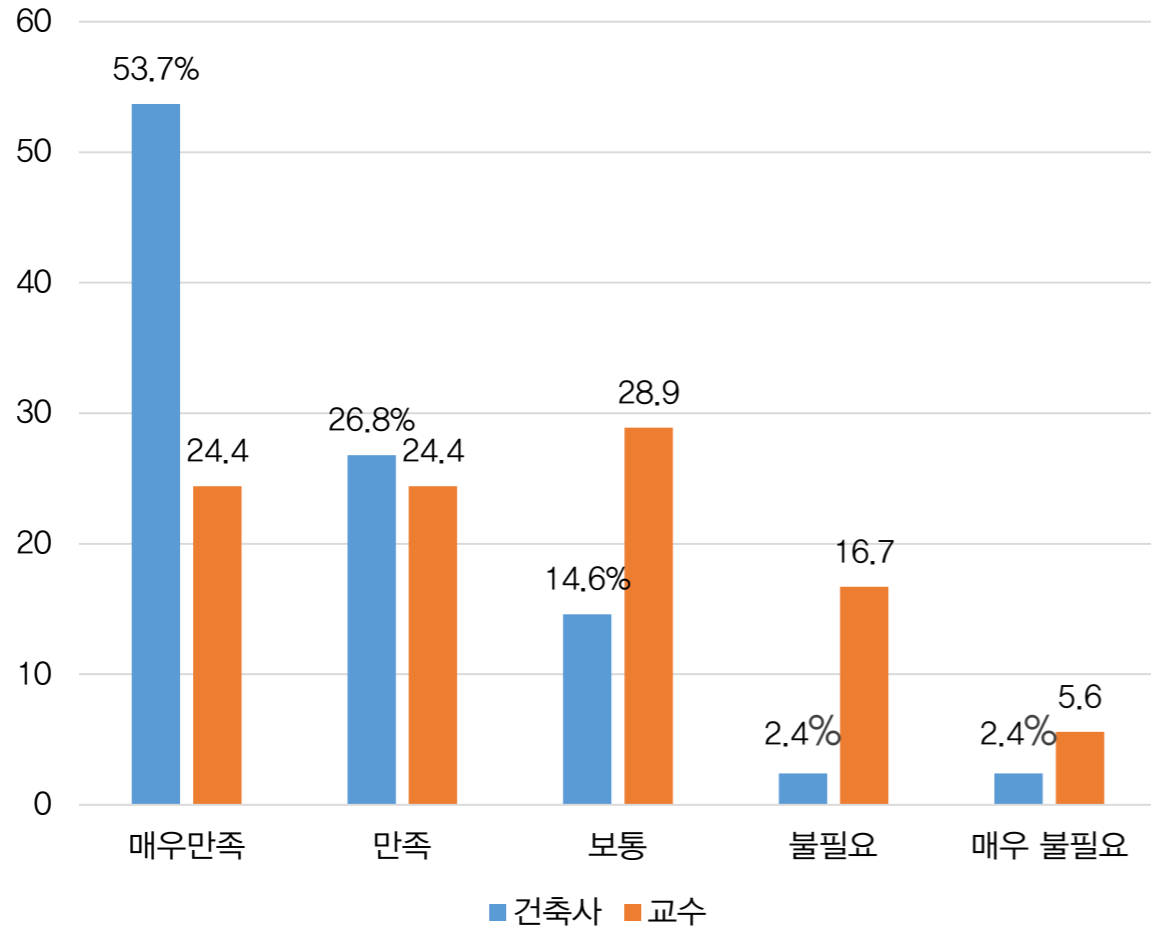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6 (1.08) / 교수용 : 3.64 (1.11)

P= 0.492 / t-value= -0.688

재정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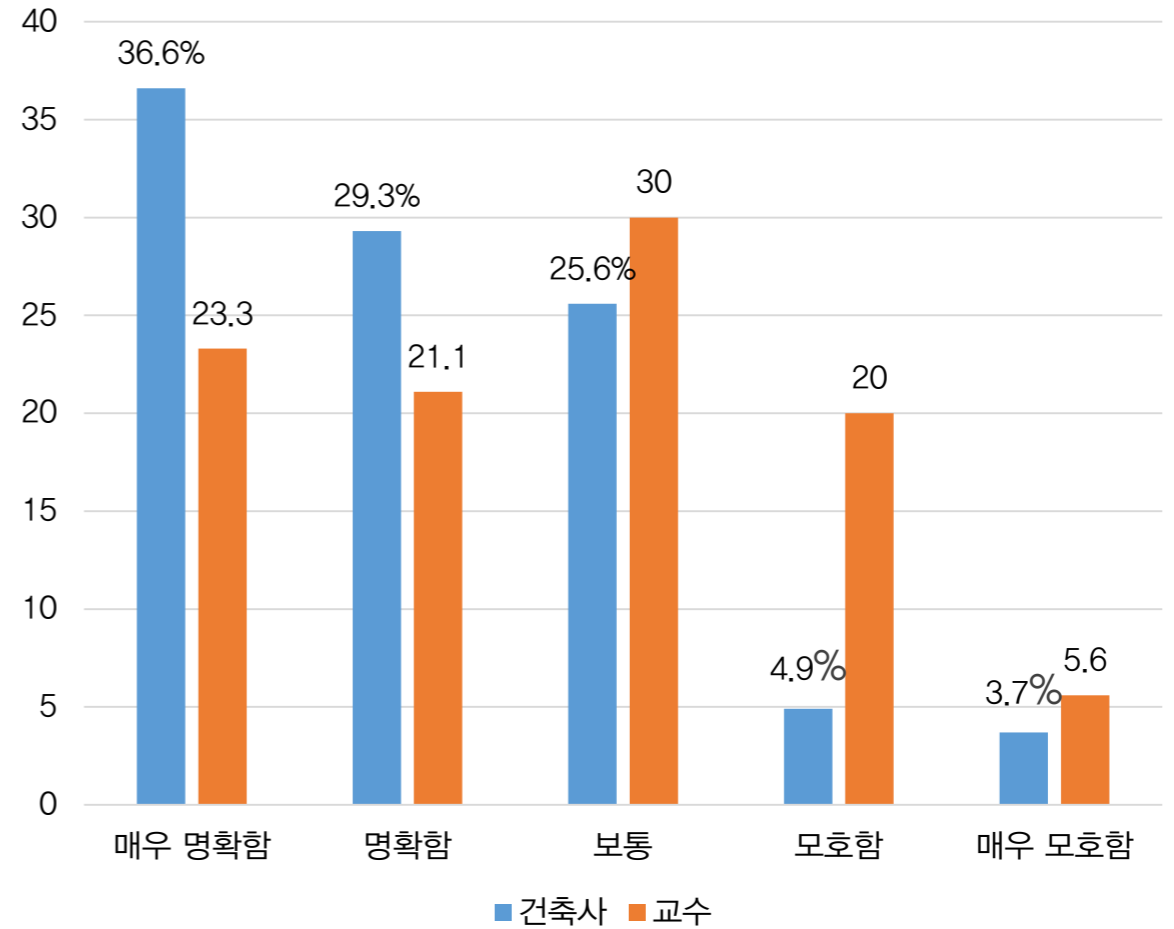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27 (0.97) / 교수용 : 3.45 (1.20)

P= 0.000 / t-value= -4.934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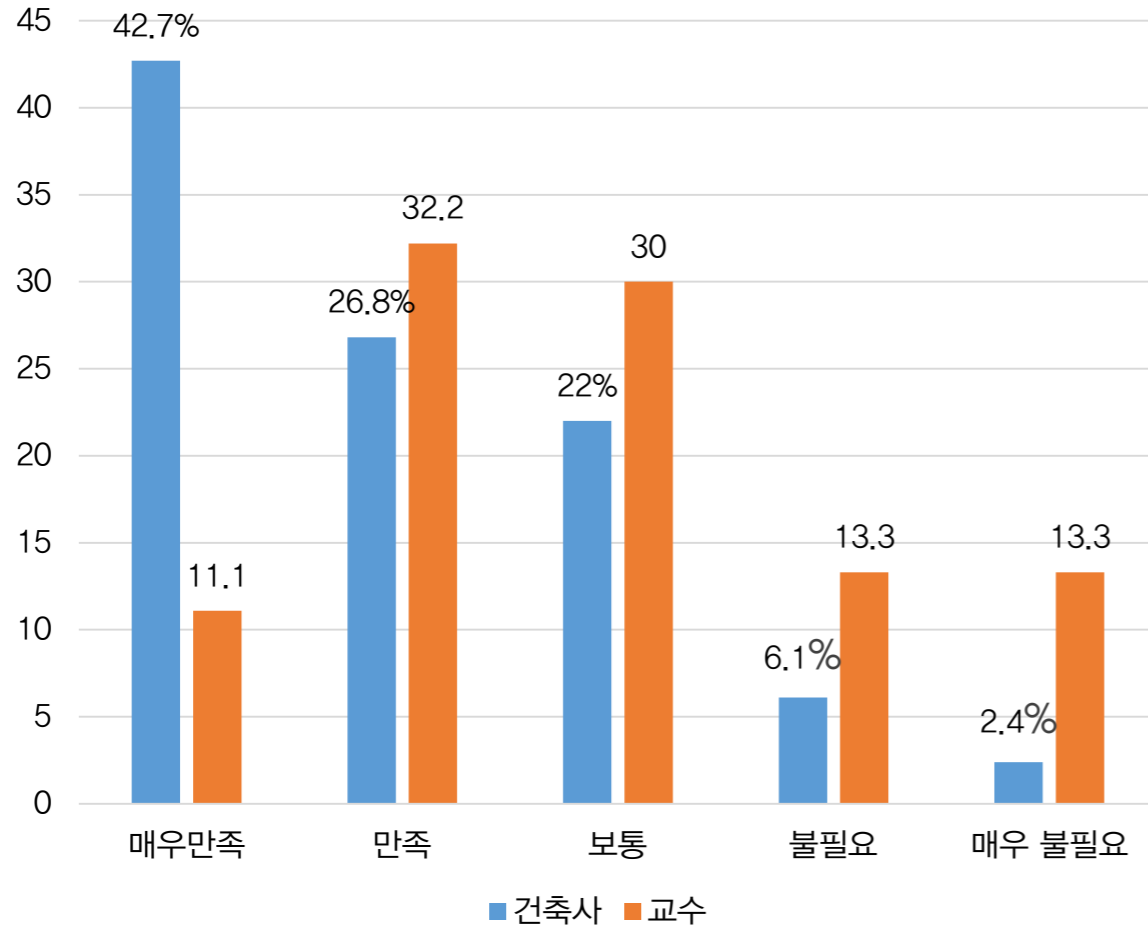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0 (1.07) / 교수용 : 3.37 (1.21)

P= 0.003 / t-value= -3.031

연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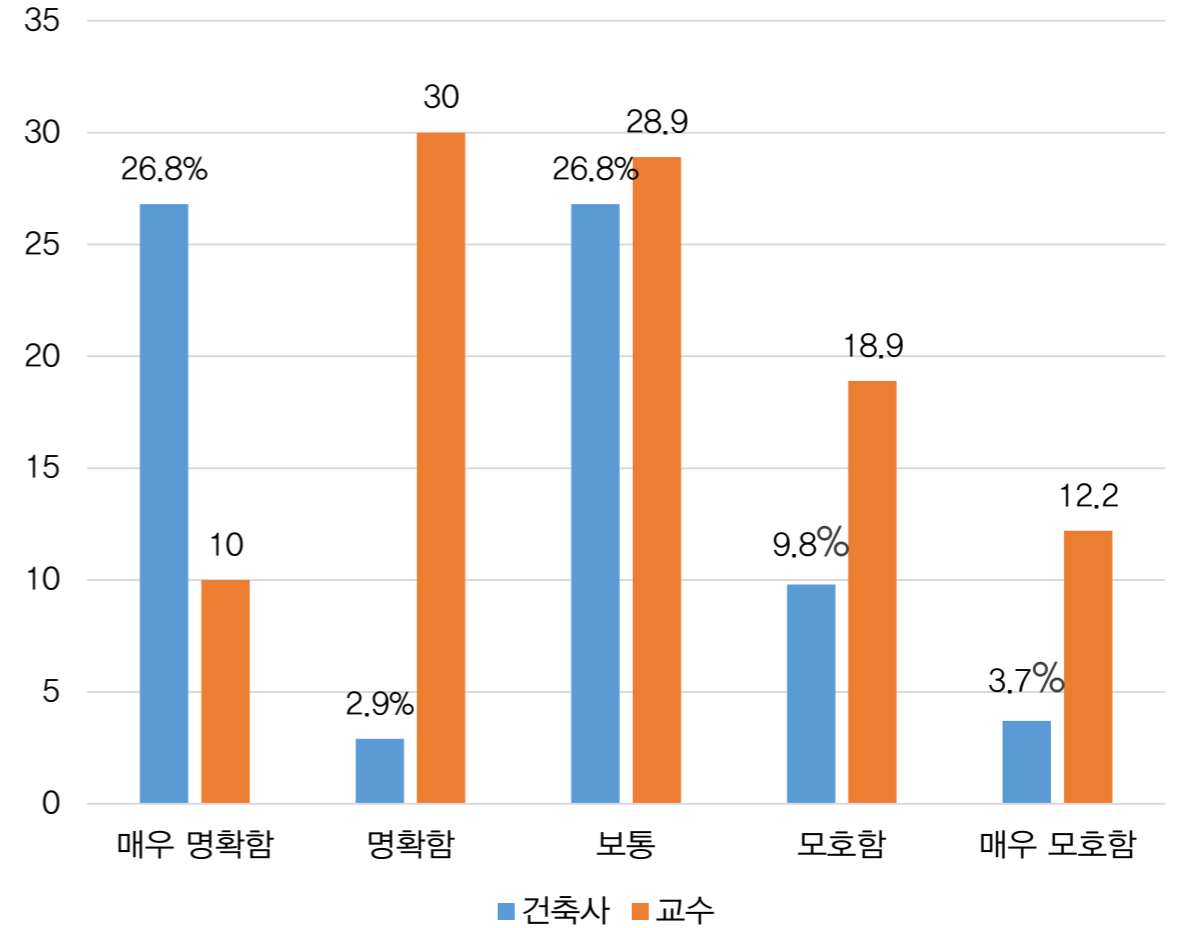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01 (1.06) / 교수용 : 3.16 (1.20)

P= 0.000 / t-value= -4.931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0 (1.09) / 교수용 : 3.08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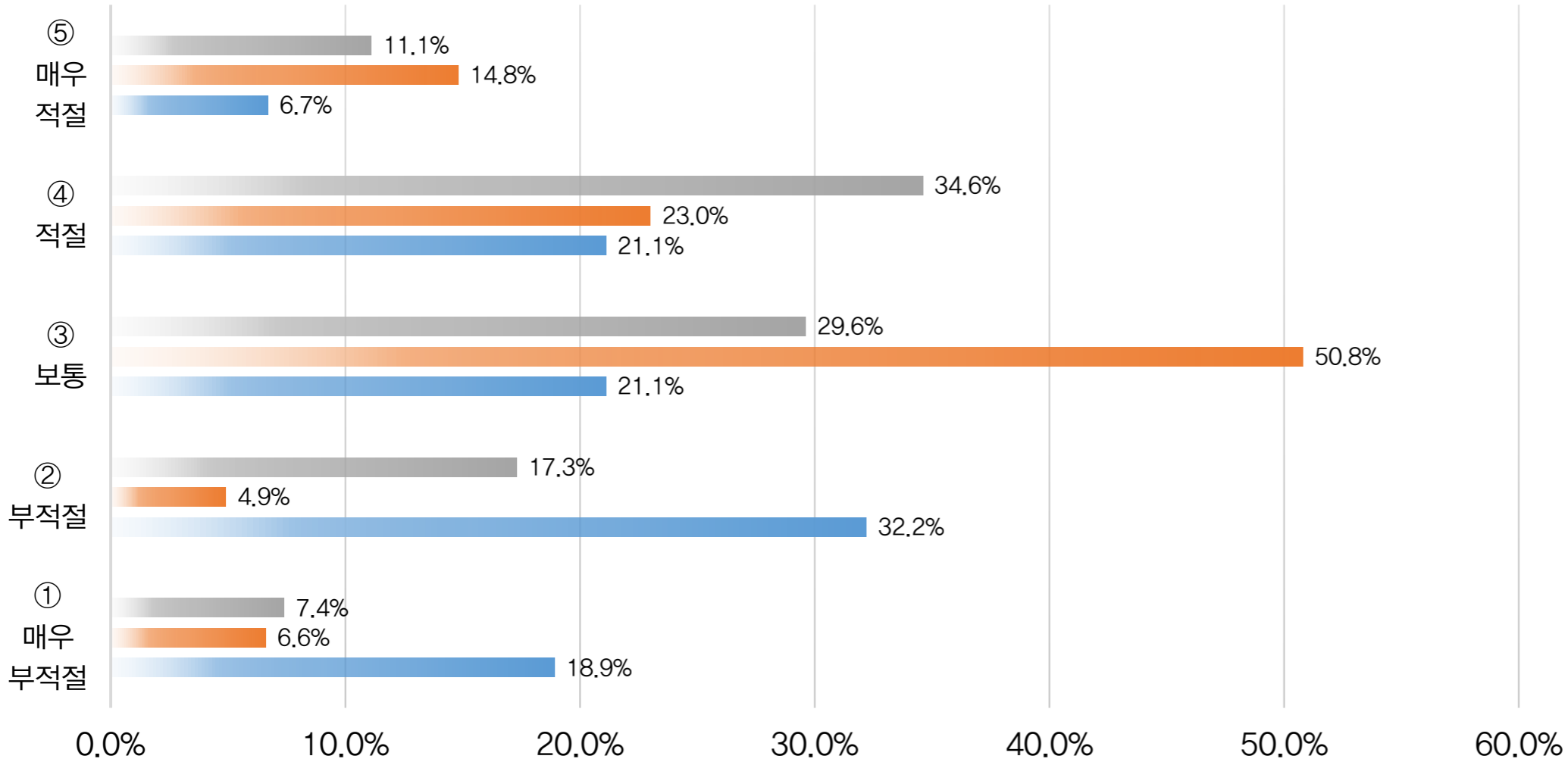
P= 0.001 / t-value= -3.547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필요도 평균		p값	t값	명확도 평균		p값	t값
	건축사	교수			건축사	교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4.32	3.21	0.000	-6.258	3.93	2.79	0.000	-6.289
학생정보	3.76	3.71	0.778	-0.283	3.73	3.72	0.939	-0.077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4.12	3.82	0.050	-1.978	3.79	3.69	0.501	-0.674
물리적 자원	4.13	3.76	0.015	-2.458	3.76	3.64	0.492	-0.688
재정자원	4.27	3.45	0.000	-4.934	3.90	3.37	0.003	-3.031
연구활동	4.01	3.16	0.000	-4.931	3.70	3.08	0.001	-3.547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의 26개의 개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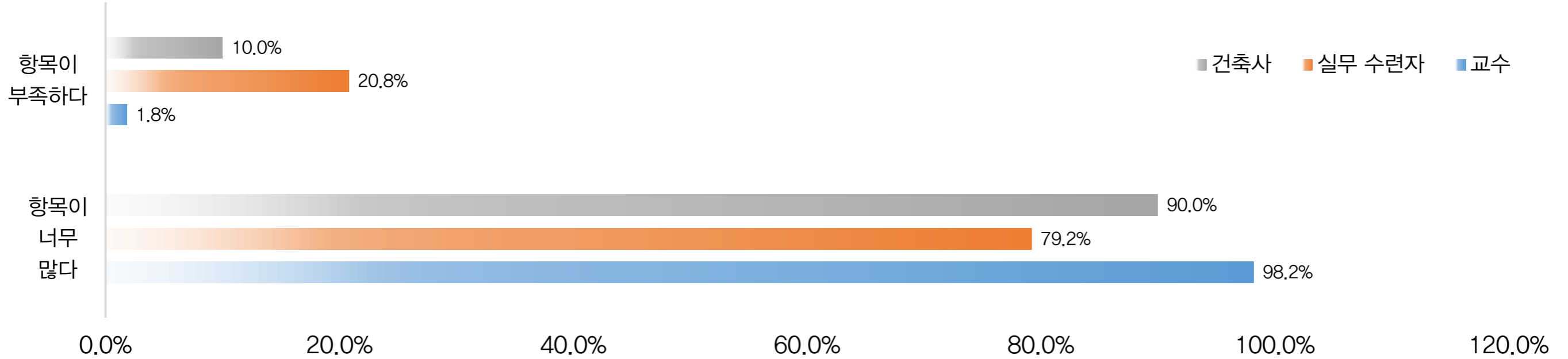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247(1.10)
- 실무수련자: 3.350(1.02)
- 교수용: 2.652(1.21)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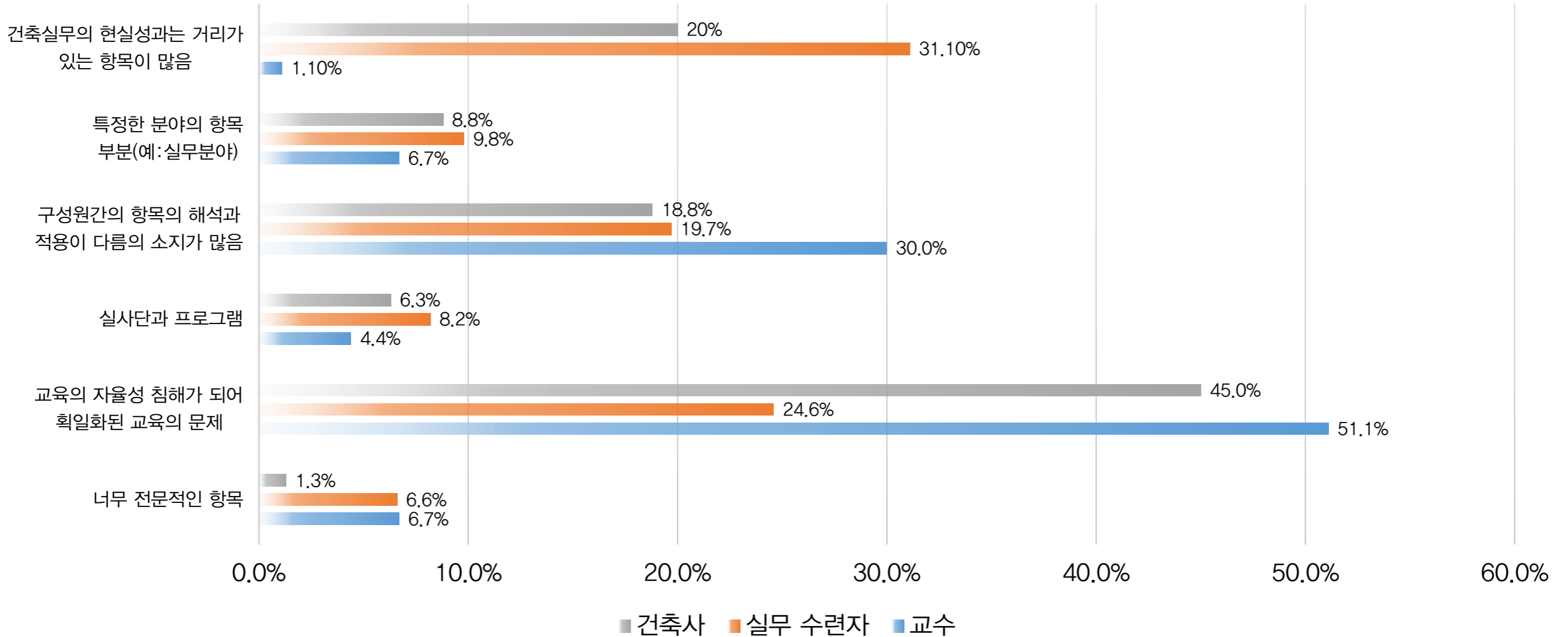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

SPC 26개 항목의 개수가 부적절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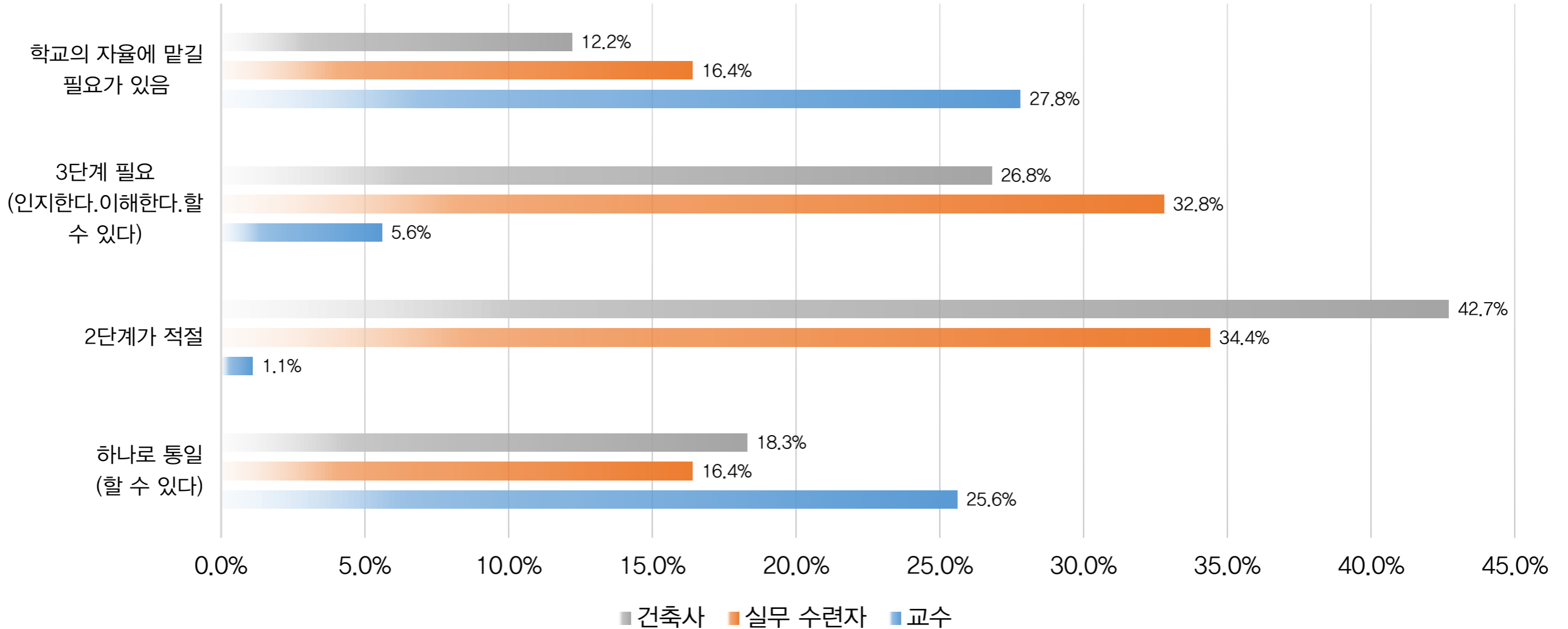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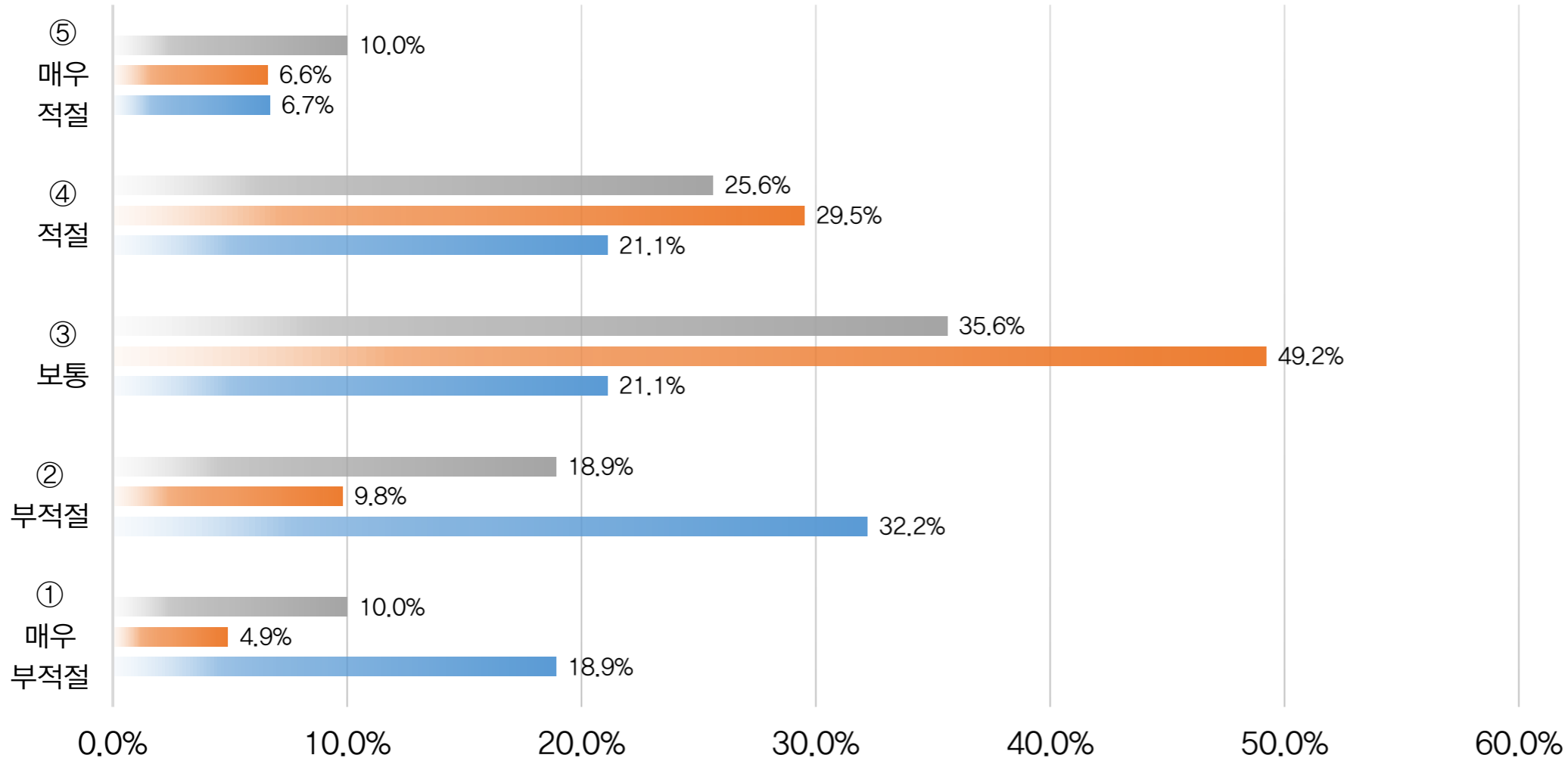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이해한다' 와 '할 수 있다' 2개의 성취도가 있습니다. 이의 적절성은?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현재 학생수행평가기준의 분류체계는 적절한가? (종합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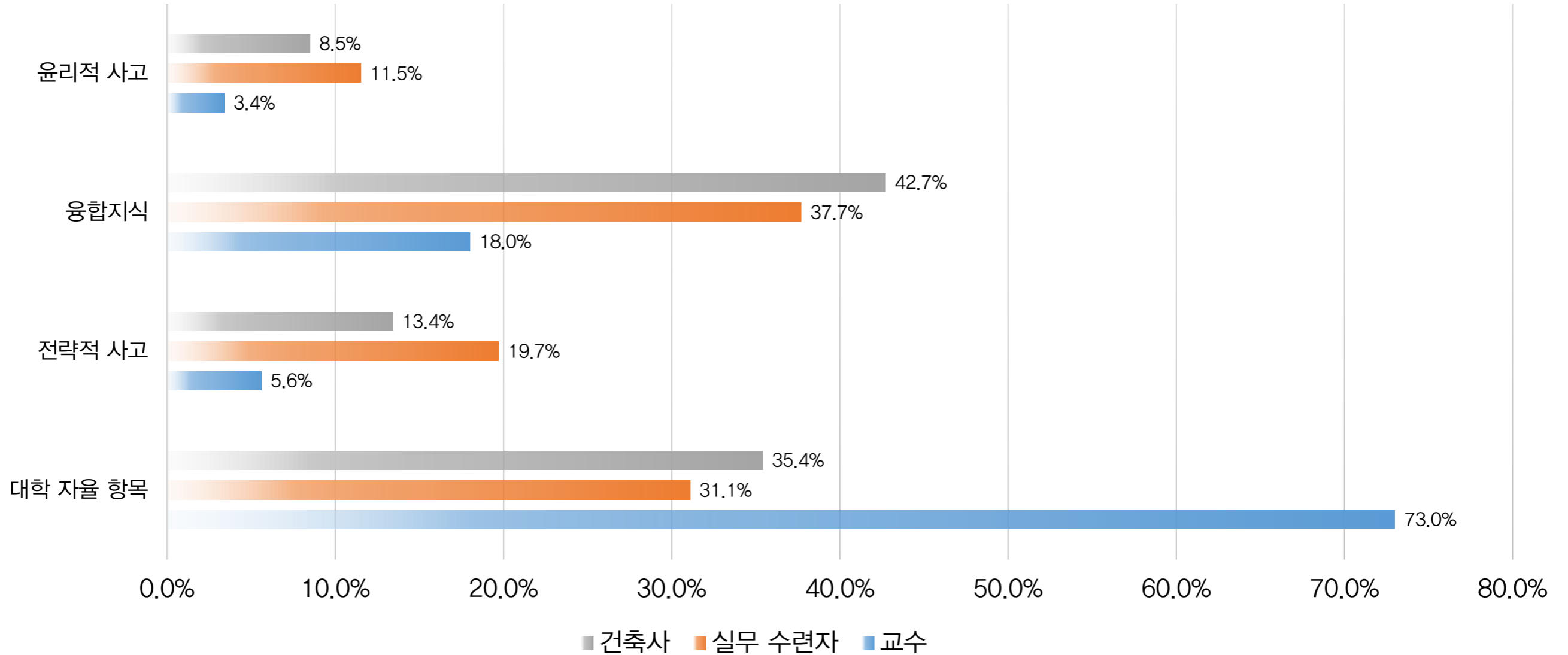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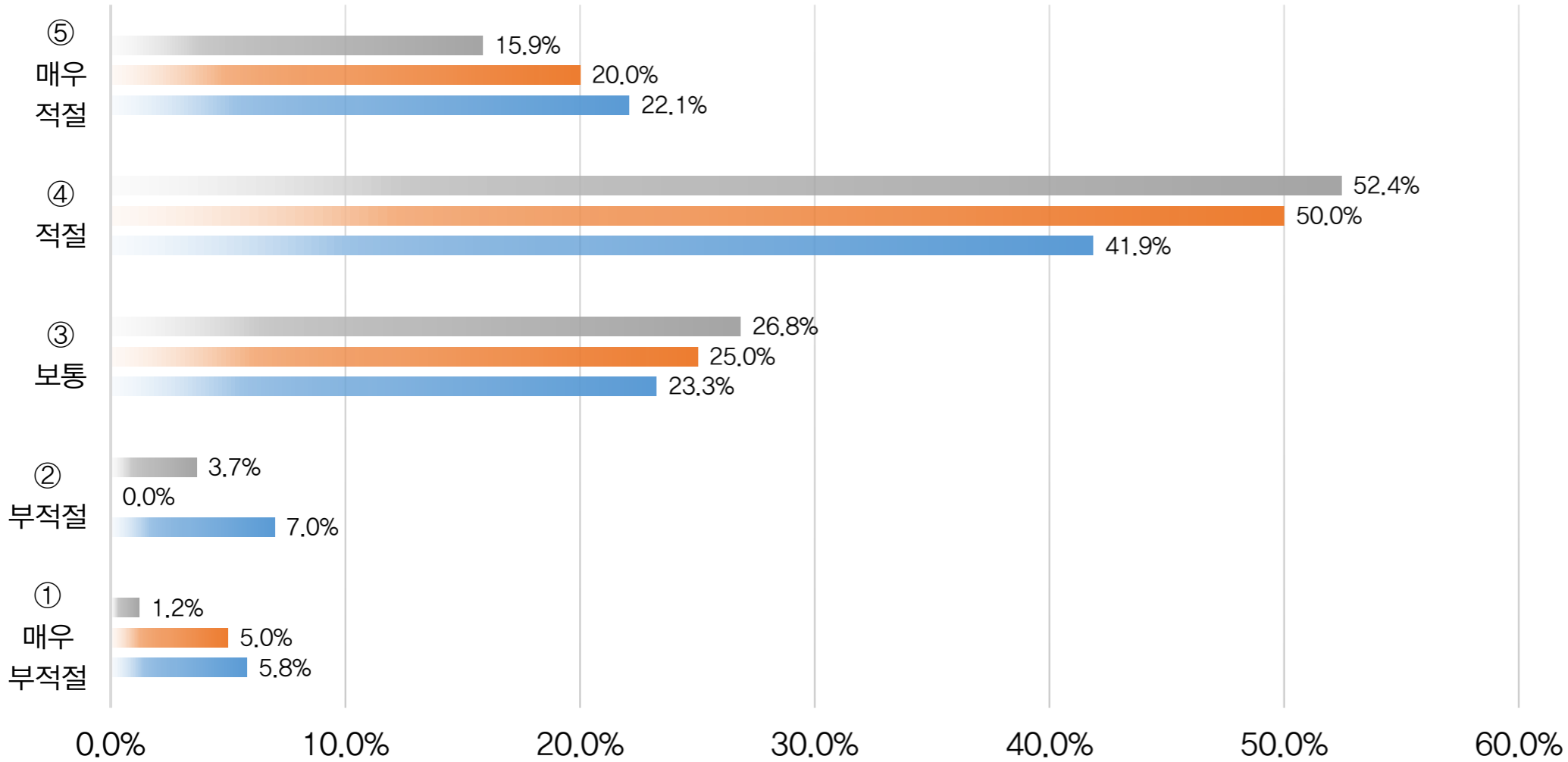
- 건축사: 3.48(0.89)
- 실무수련자: 3.23(0.90)
- 교수용: 3.06(1.212)

P=0.025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01.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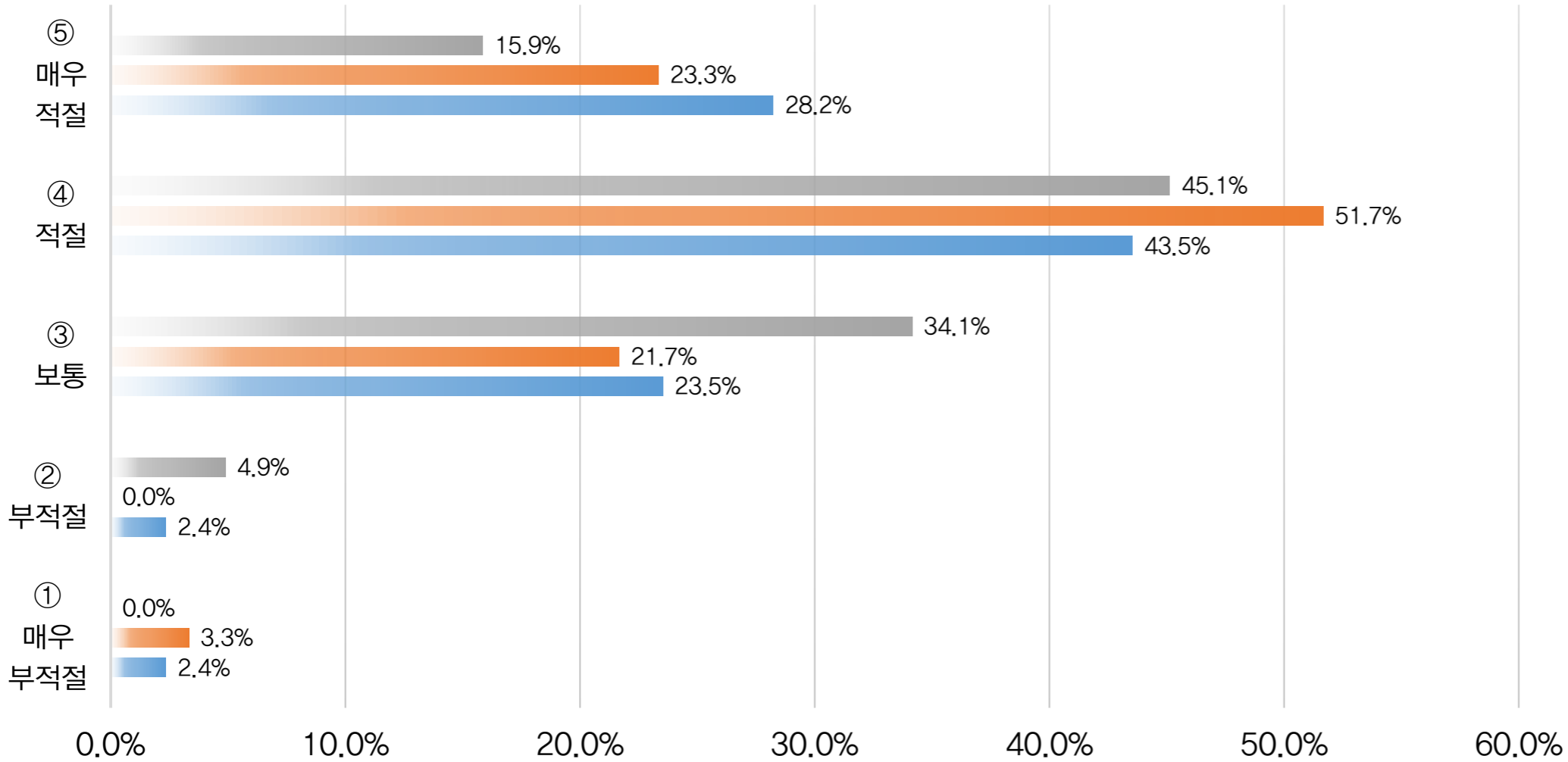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8(0.8)
- 실무수련자: 3.80(0.93)
- 교수용: 3.67(1.07)

P=0.673

0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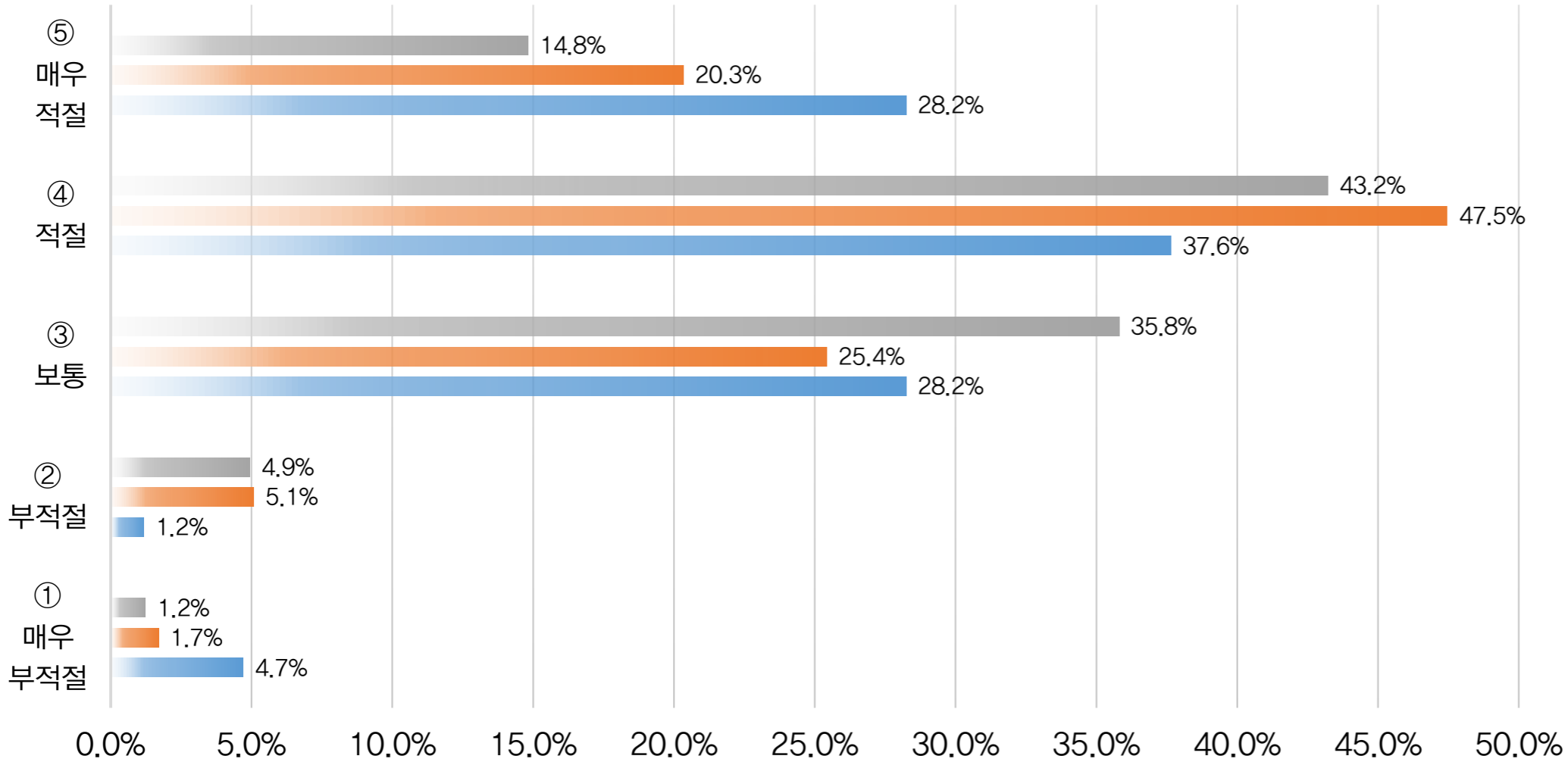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1(0.78)
- 실무수련자: 3.91(0.86)
- 교수용: 3.92(0.91)

P=0.226

03. 한국 건축과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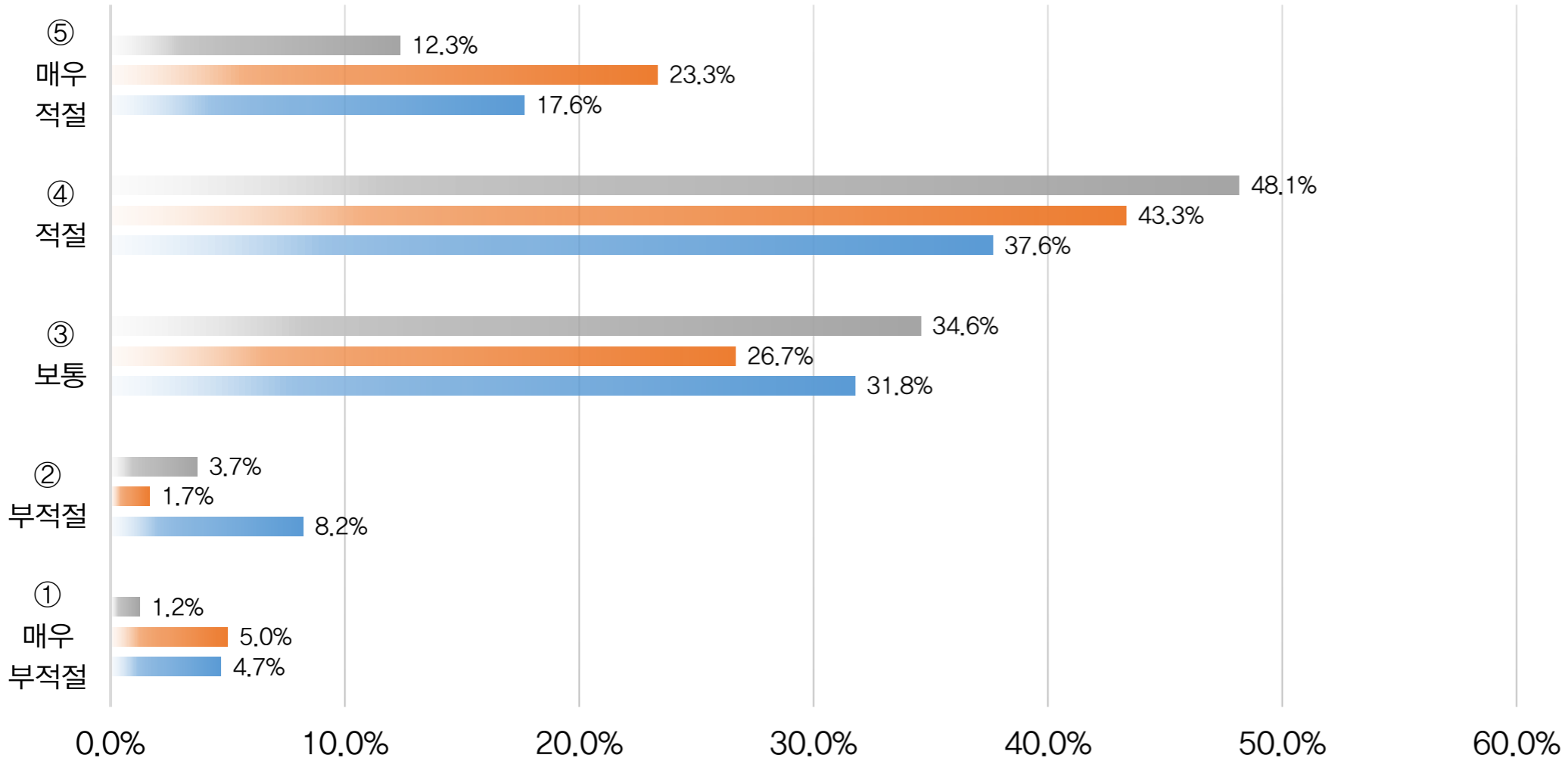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5(0.83)
- 실무수련자: 3.79(0.83)
- 교수용: 3.83(1.01)

P=0.422

04. 건축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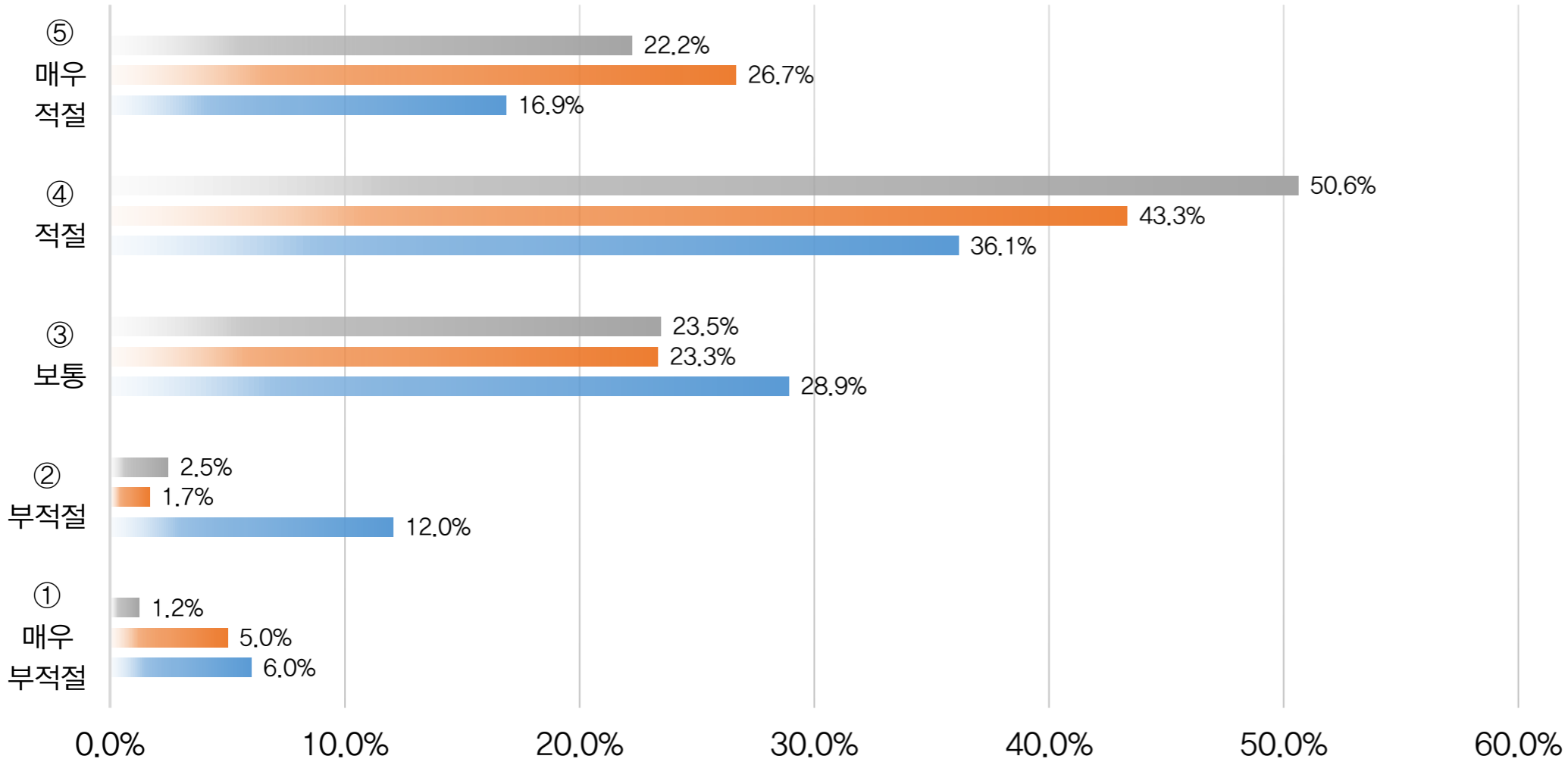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6(0.79)
- 실무수련자: 3.78(0.99)
- 교수용: 3.55(1.02)

P=0.346

05. 인간행태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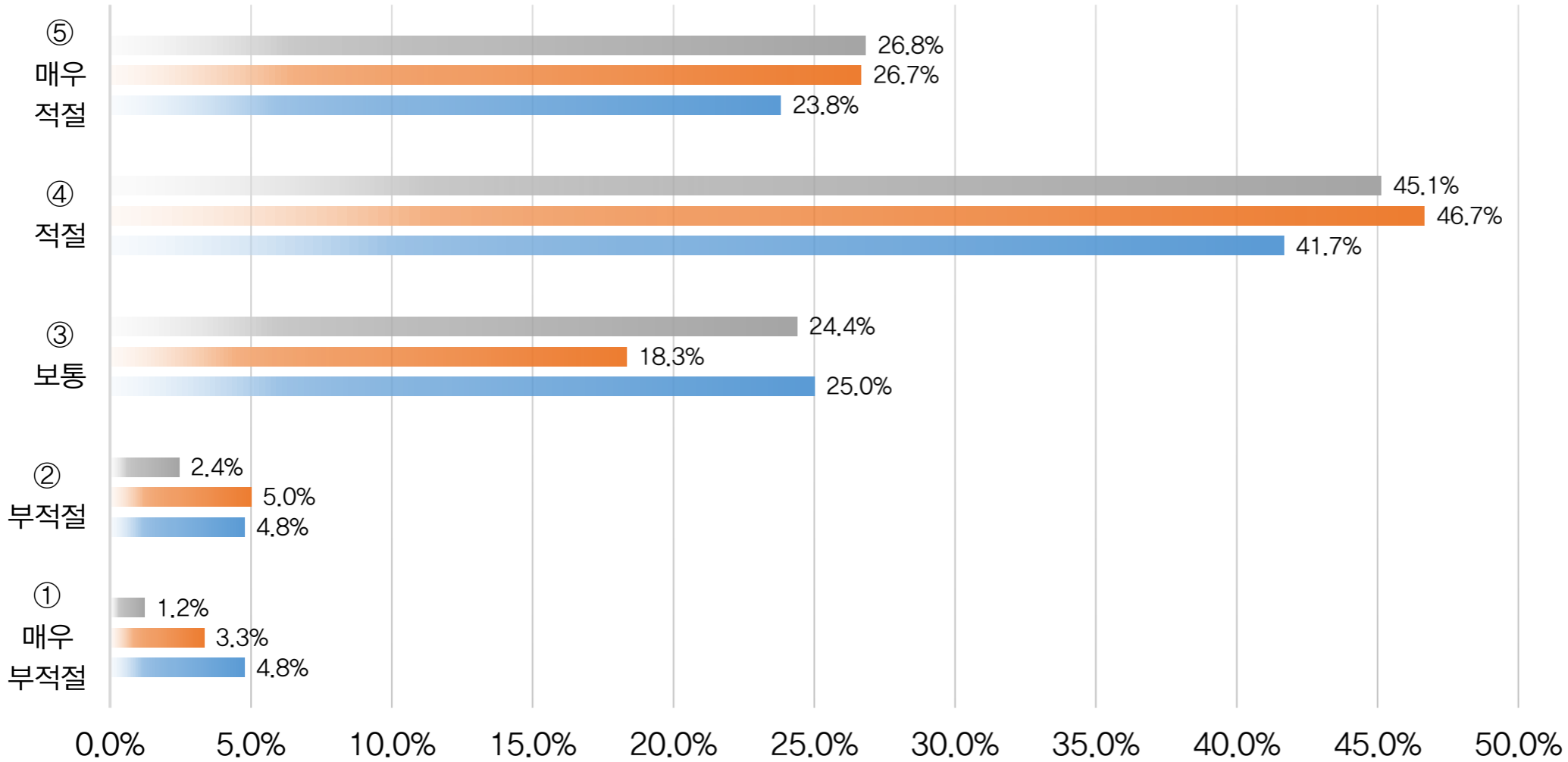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0(0.81)
- 실무수련자: 3.85(1.01)
- 교수용: 3.45(1.09)

P=0.008

06.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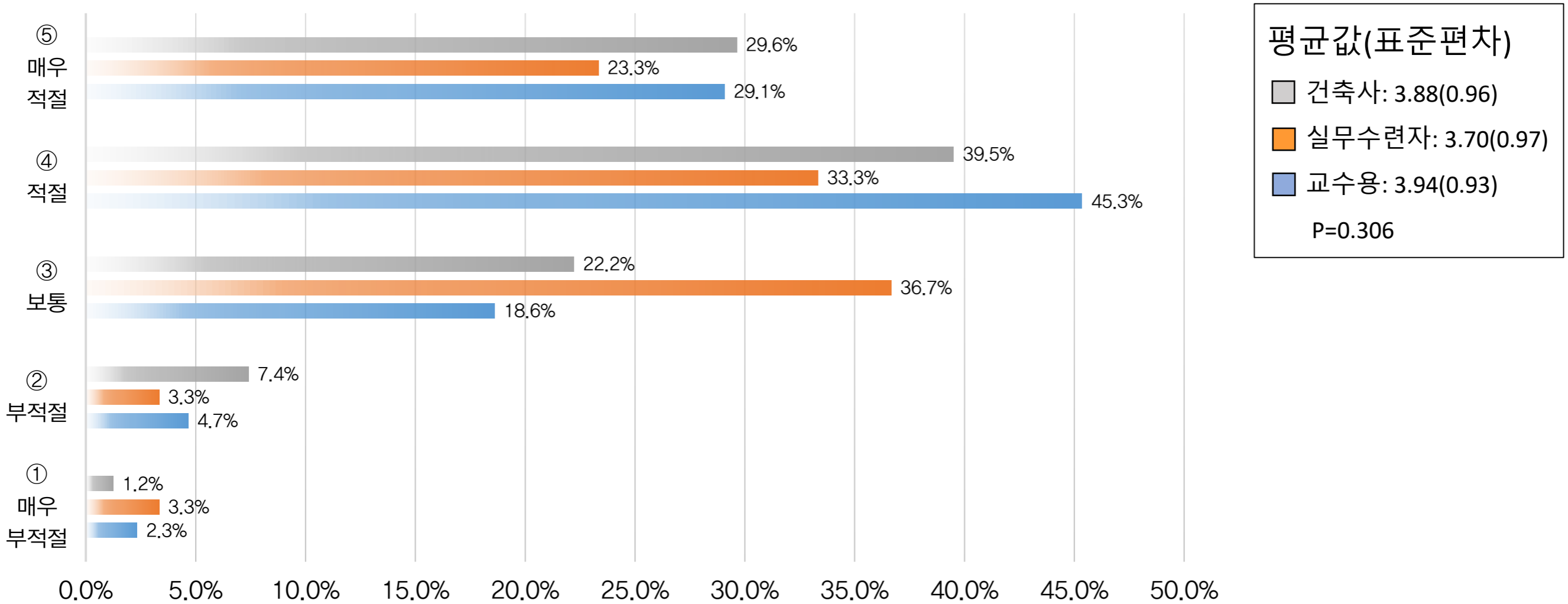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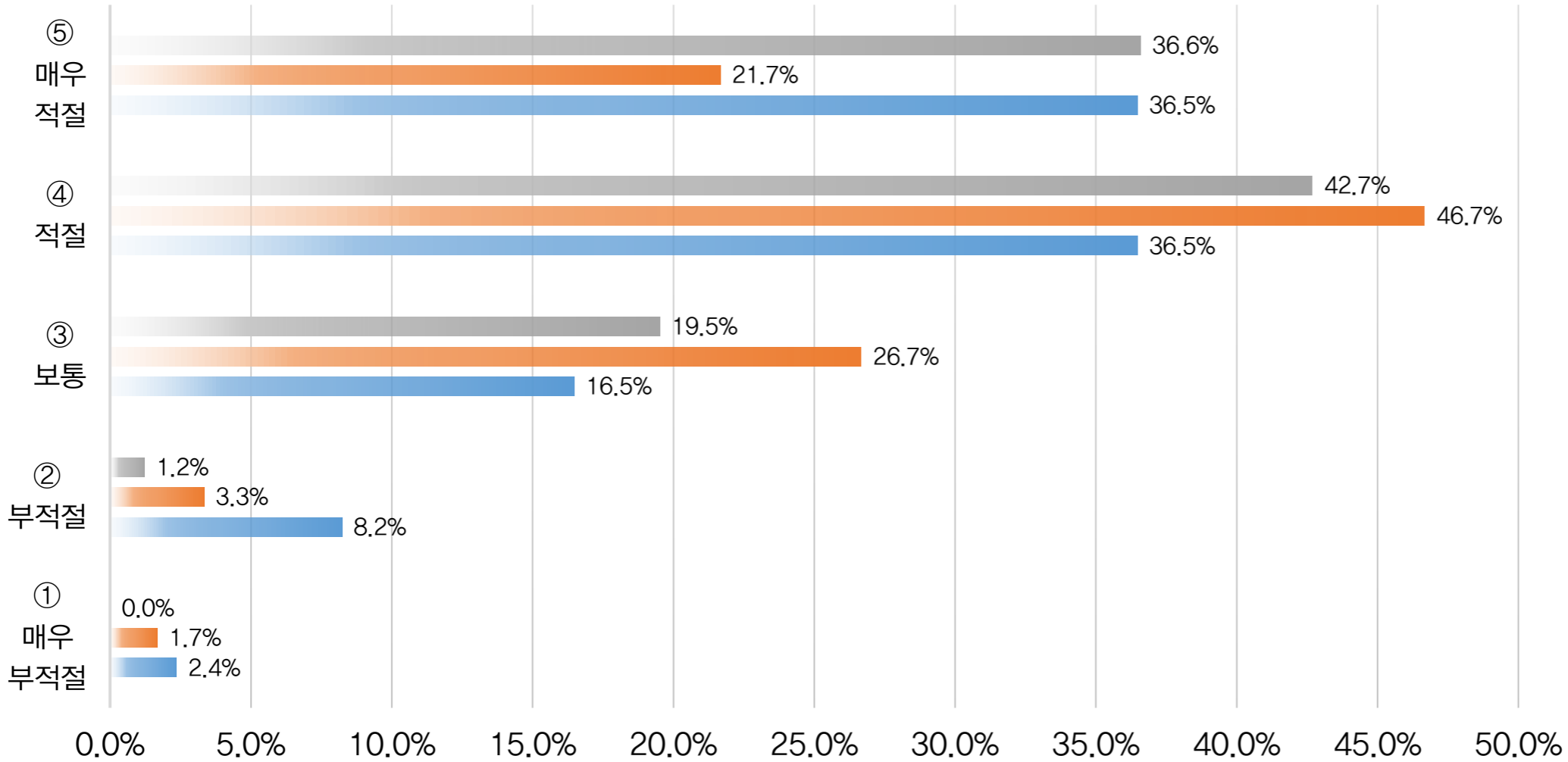
- 건축사: 3.93(0.85)
- 실무수련자: 3.88(0.97)
- 교수용: 3.75(1.02)

P=0.427

07. 건축 소통능력



08. 형태 및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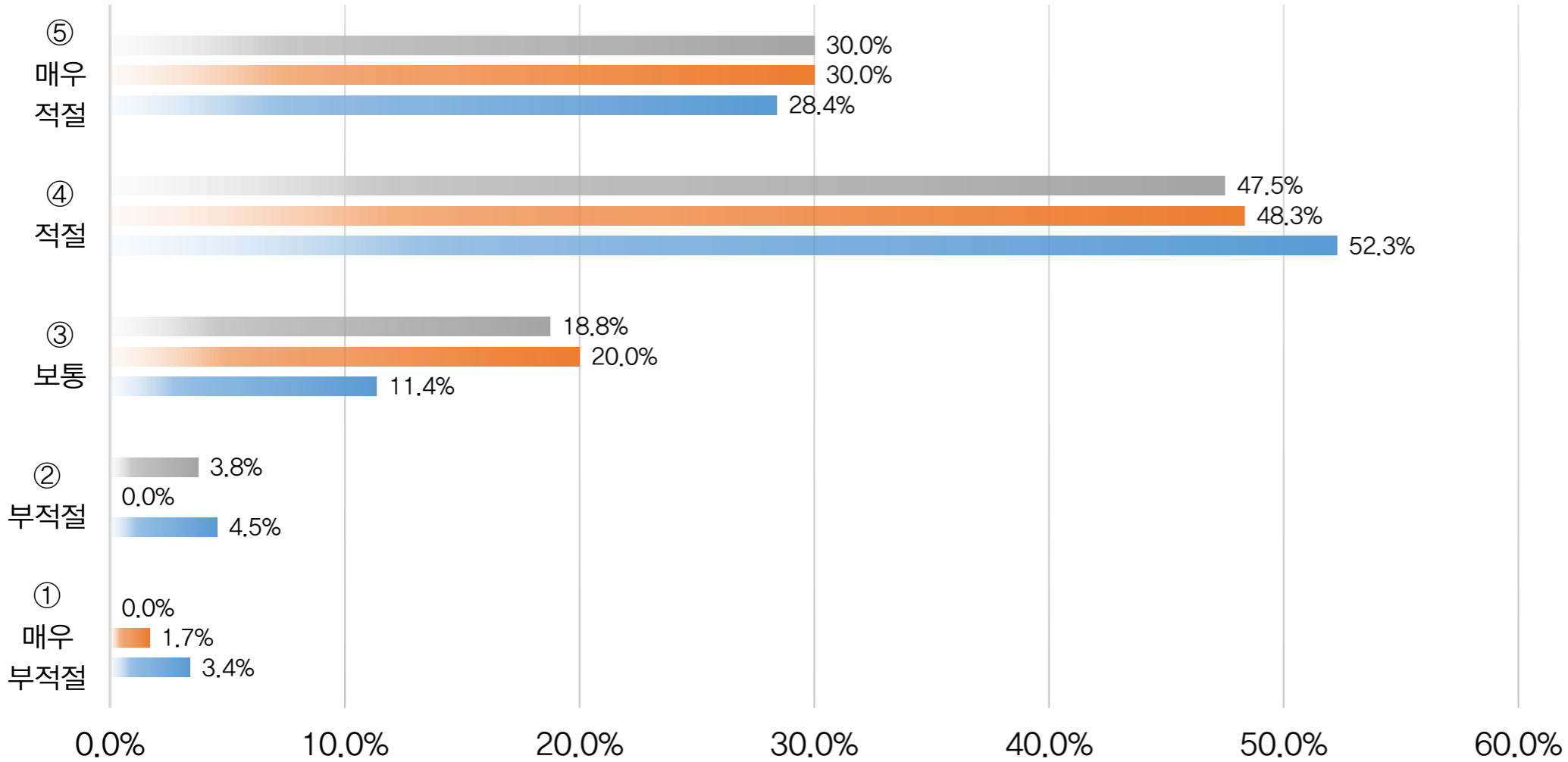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14(0.77)
- 실무수련자: 3.83(0.86)
- 교수용: 3.96(1.04)

P=0.119

09.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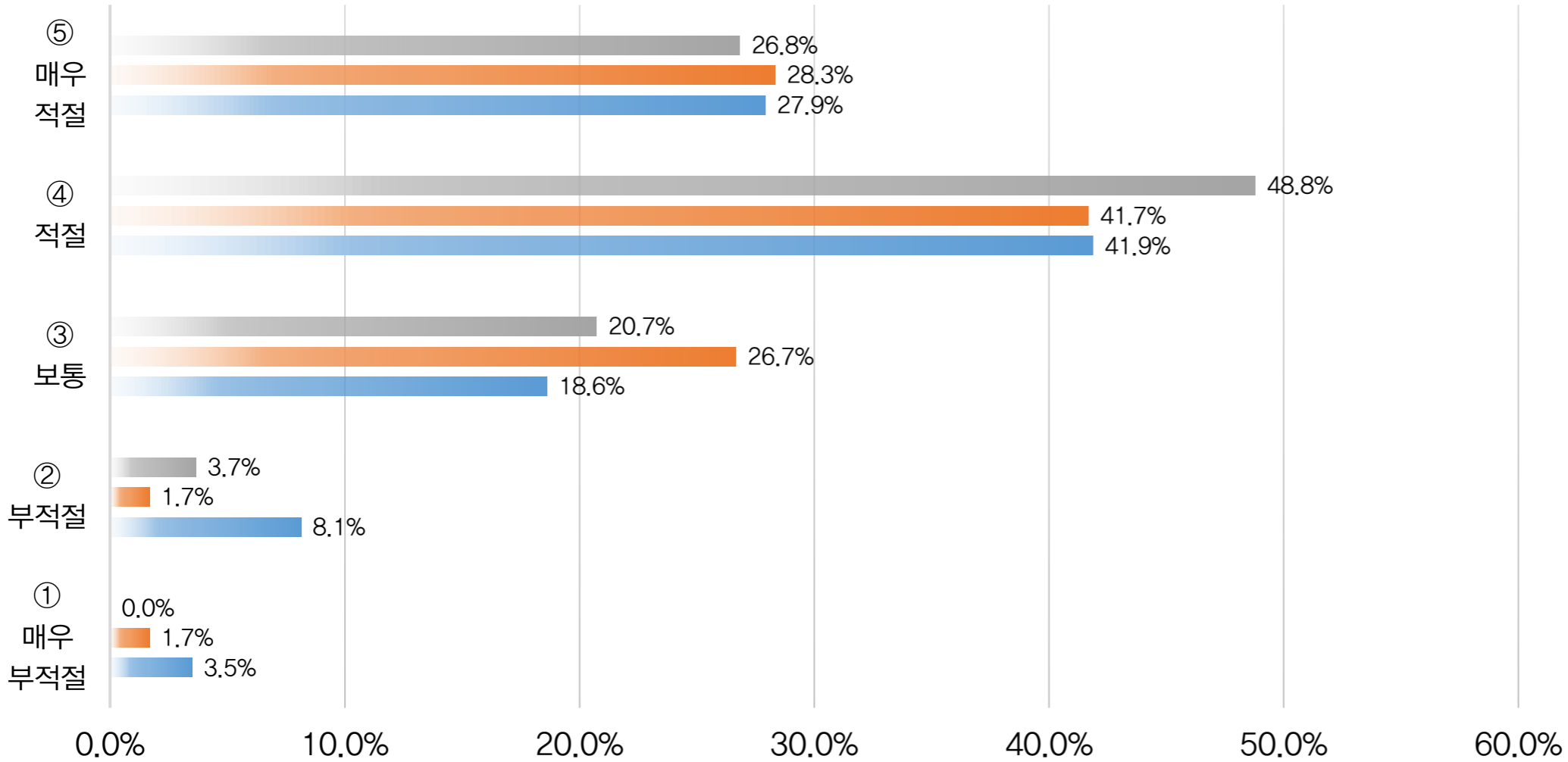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03(0.80)
- 실무수련자: 4.05(0.81)
- 교수용: 3.97(0.94)

P=0.853

10. 대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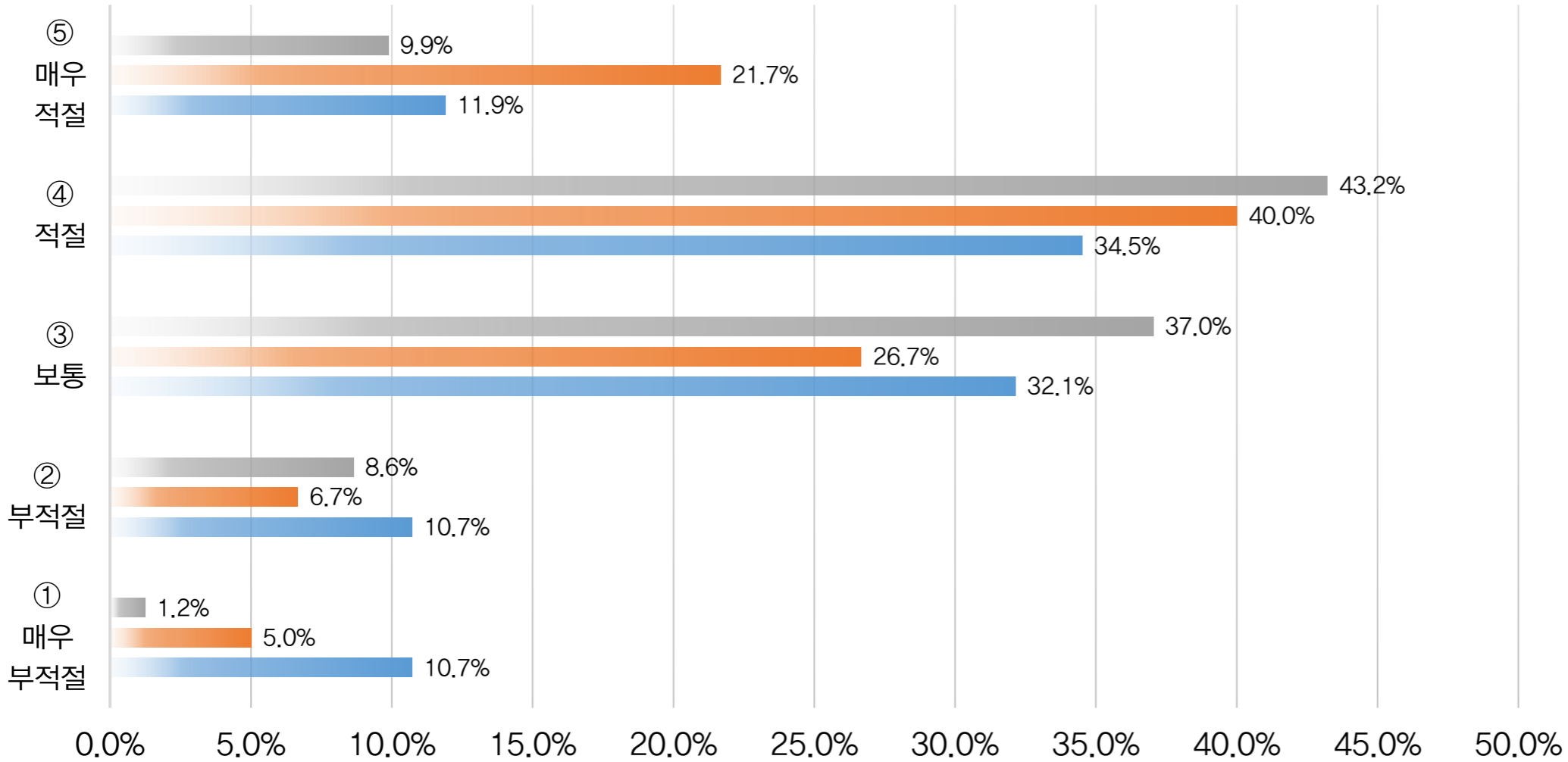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8(0.79)
- 실무수련자: 3.93(0.88)
- 교수용: 3.82(1.04)

P=0.508

11. 무장애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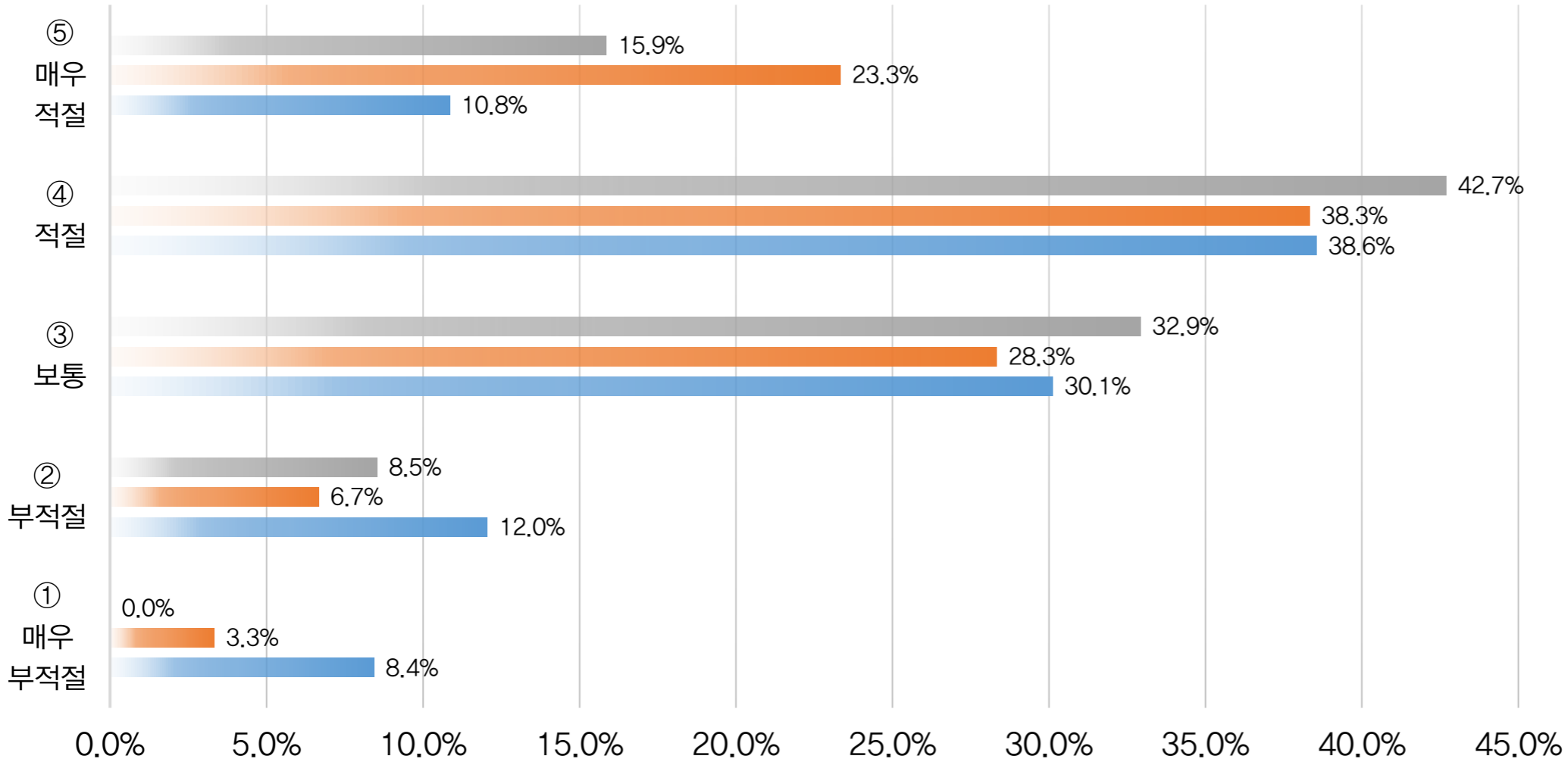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51(0.79)
- 실무수련자: 3.66(1.05)
- 교수용: 3.26(1.14)

P=0.054

12. 안전 및 피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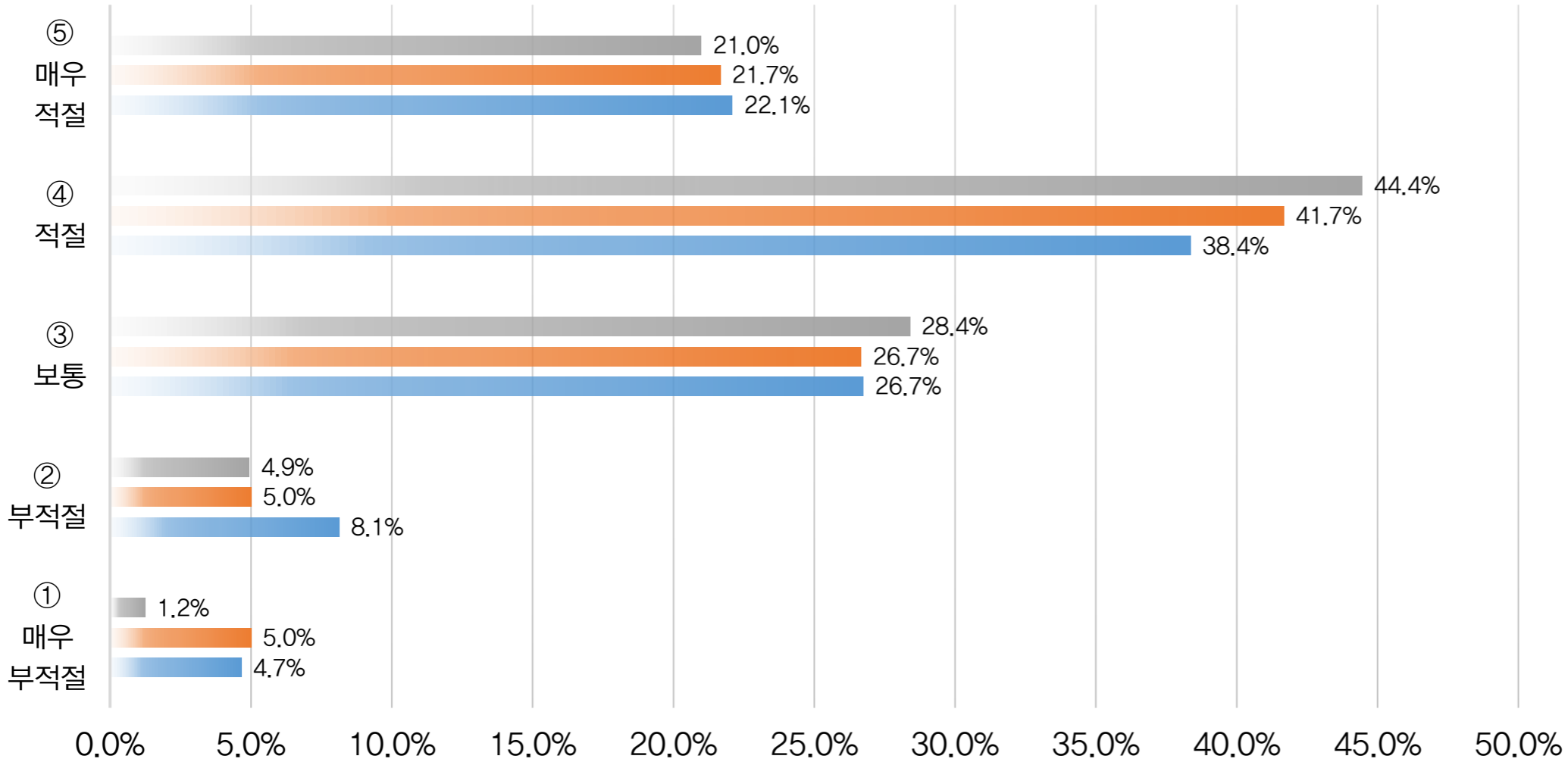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5(0.84)
- 실무수련자: 3.71(1.01)
- 교수용: 3.31(1.09)

P=0.025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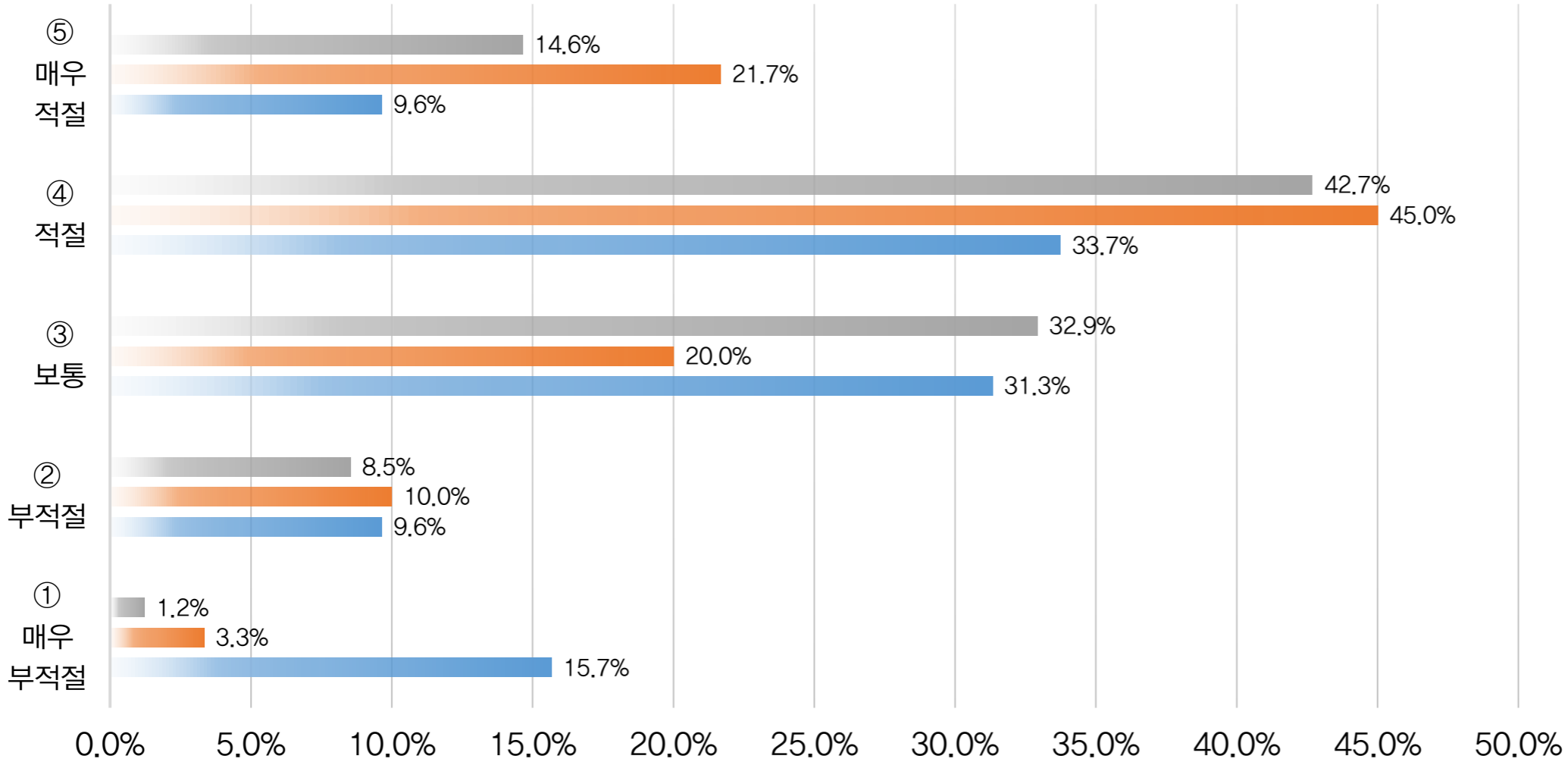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9(0.87)
- 실무수련자: 3.70(1.03)
- 교수용: 3.65(1.06)

P=0.658

14. 리모델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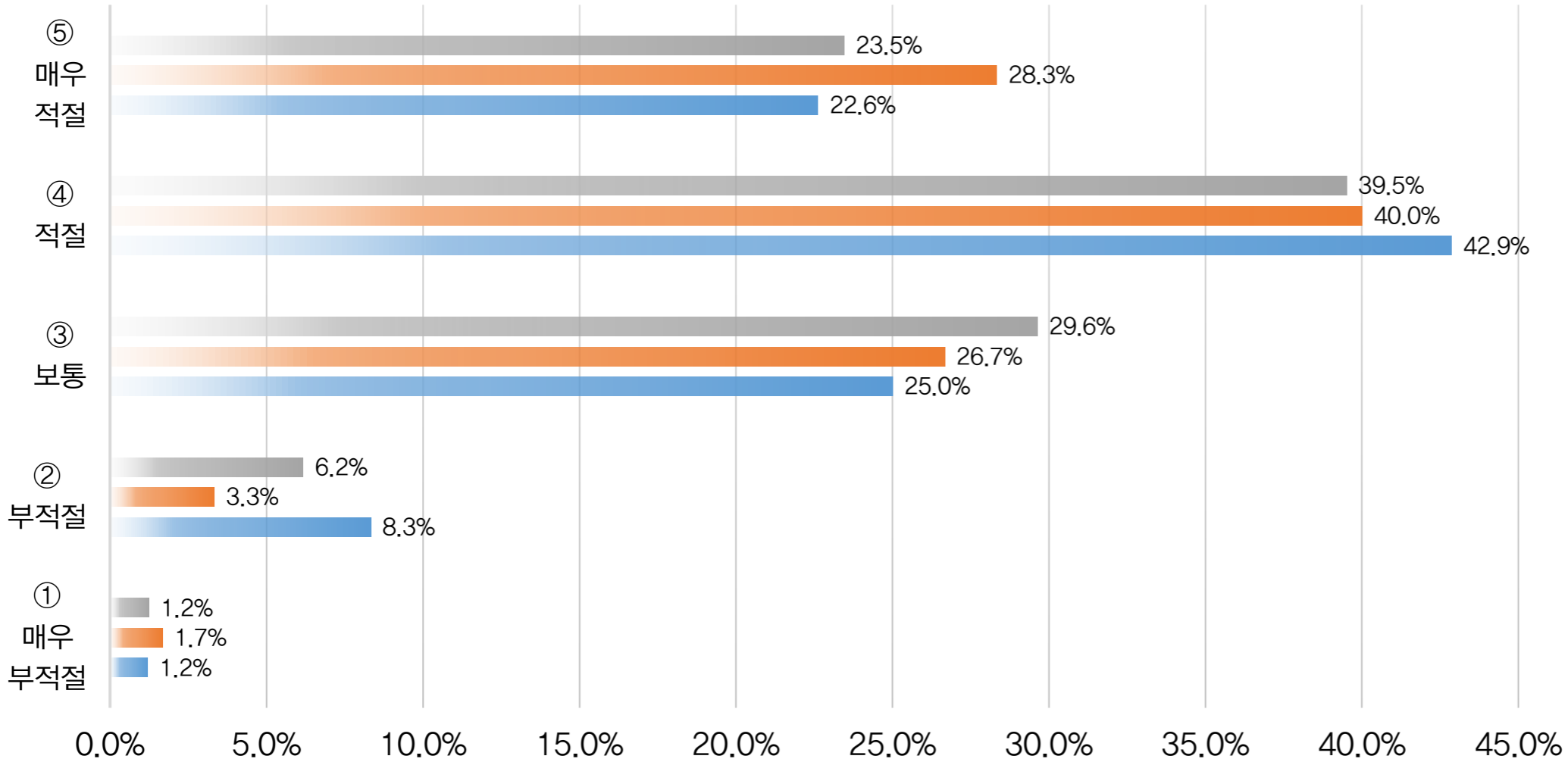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0(0.88)
- 실무수련자: 3.71(1.02)
- 교수용: 3.12(1.20)

P=0.001

15. 건축과 도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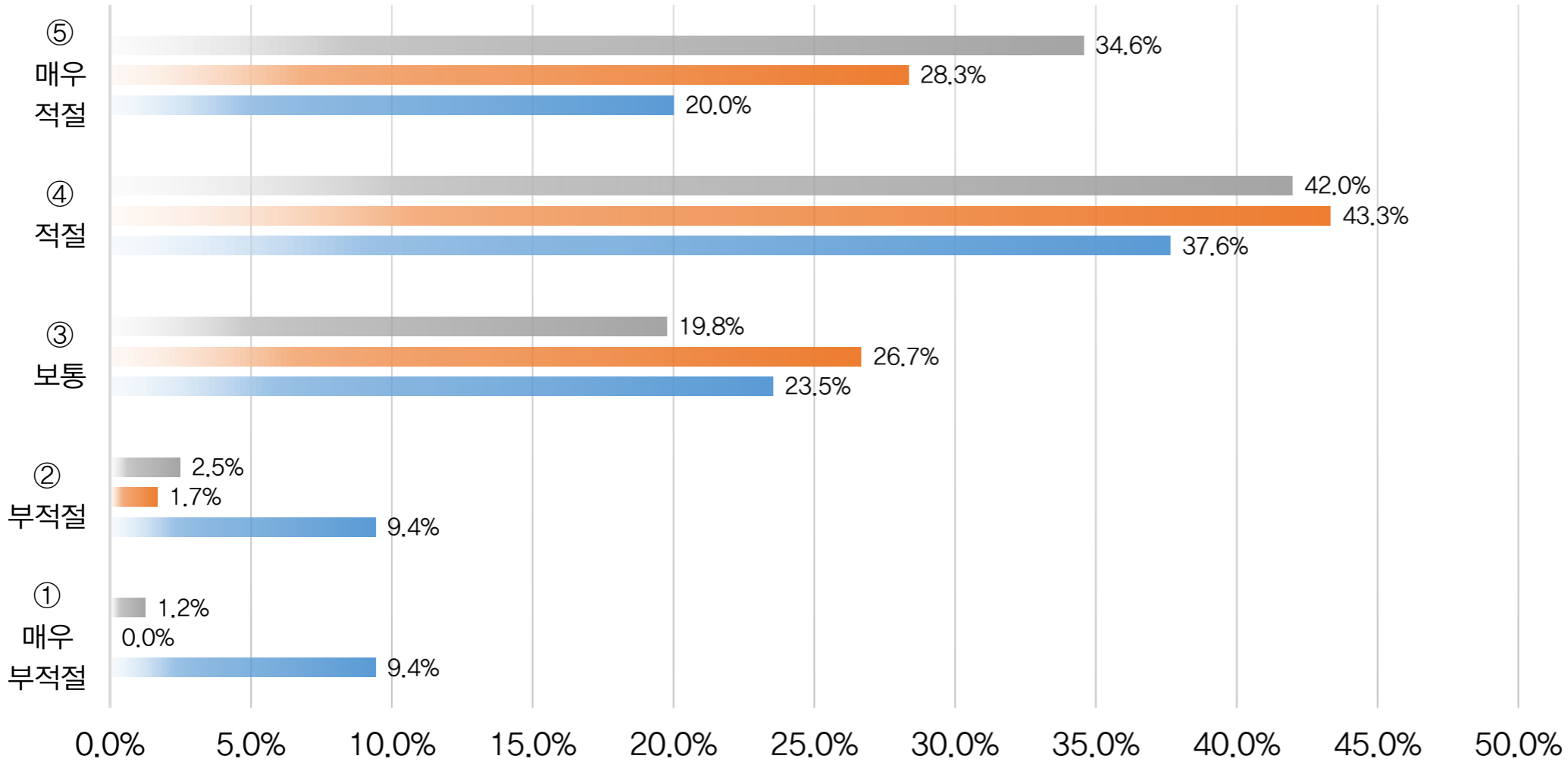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7(0.92)
- 실무수련자: 3.90(0.91)
- 교수용: 3.77(0.93)

P=0.673

16. 종합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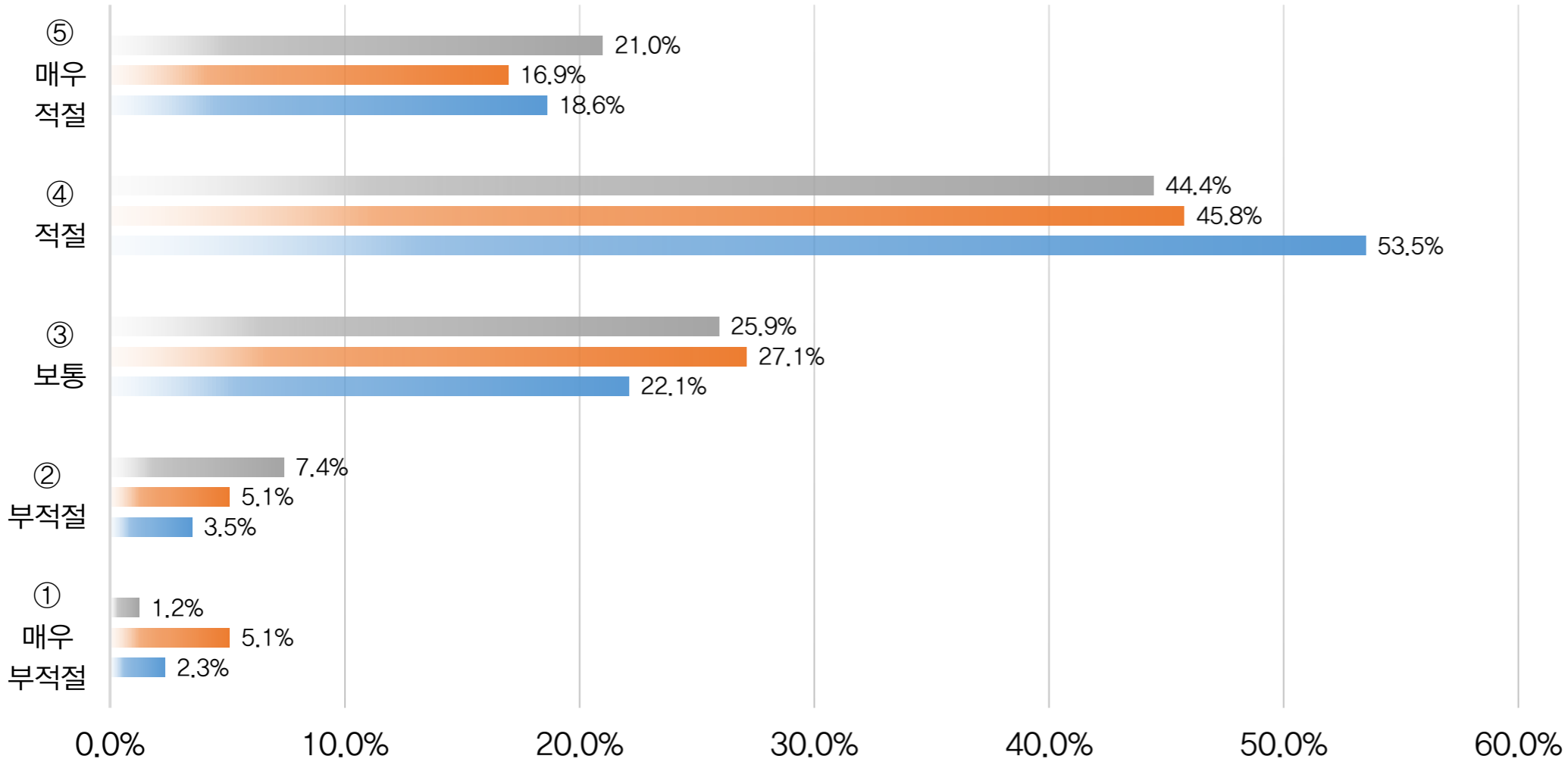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06(0.87)
- 실무수련자: 3.98(0.79)
- 교수용: 3.49(1.19)

P=0.000

17. 구조원리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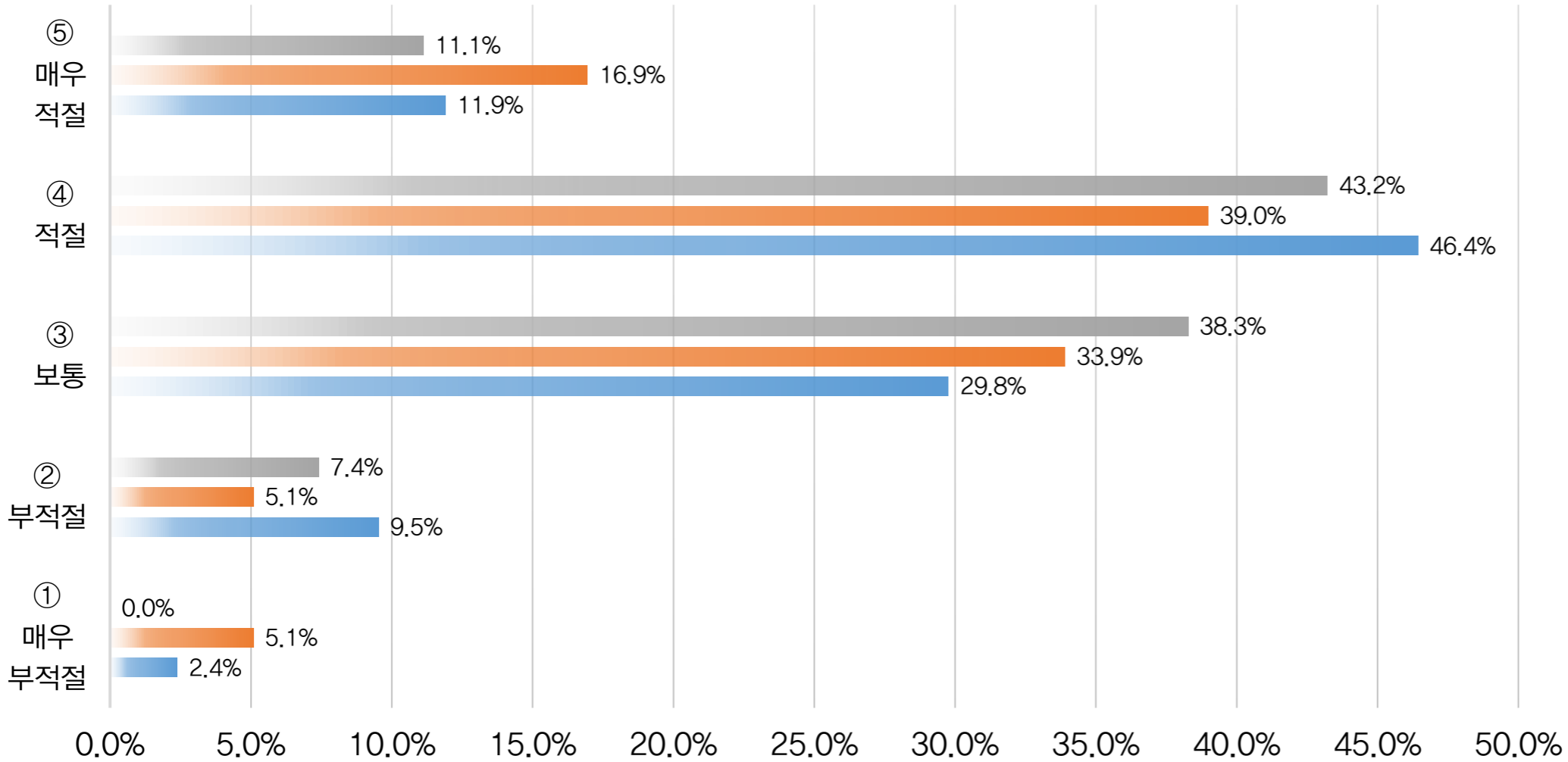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6(0.91)
- 실무수련자: 3.64(0.99)
- 교수용: 3.82(0.85)

P=0.500

18. 환경 조절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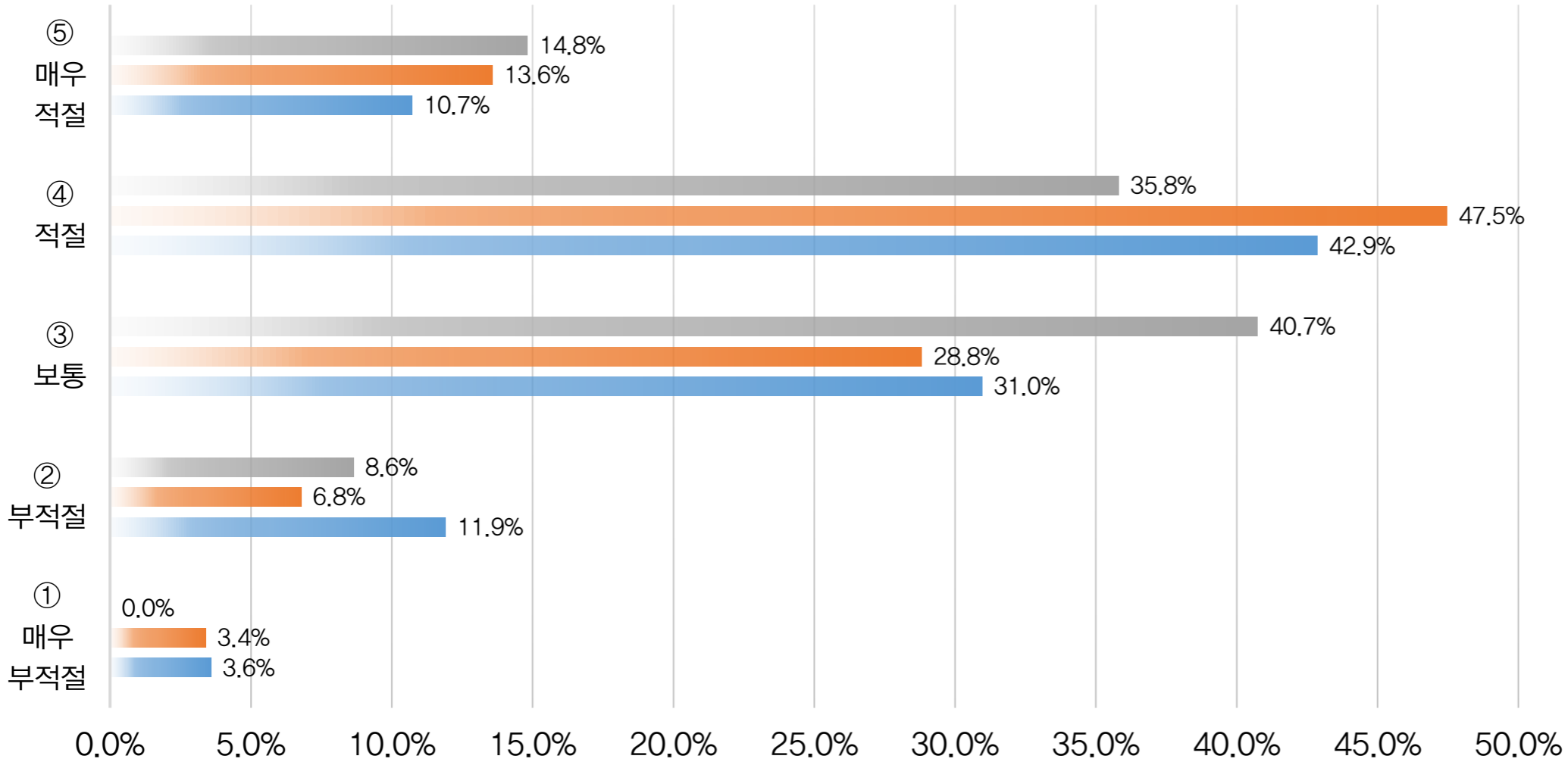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58(0.78)
- 실무수련자: 3.57(1.00)
- 교수용: 3.55(0.90)

P=0.988

19. 건축 설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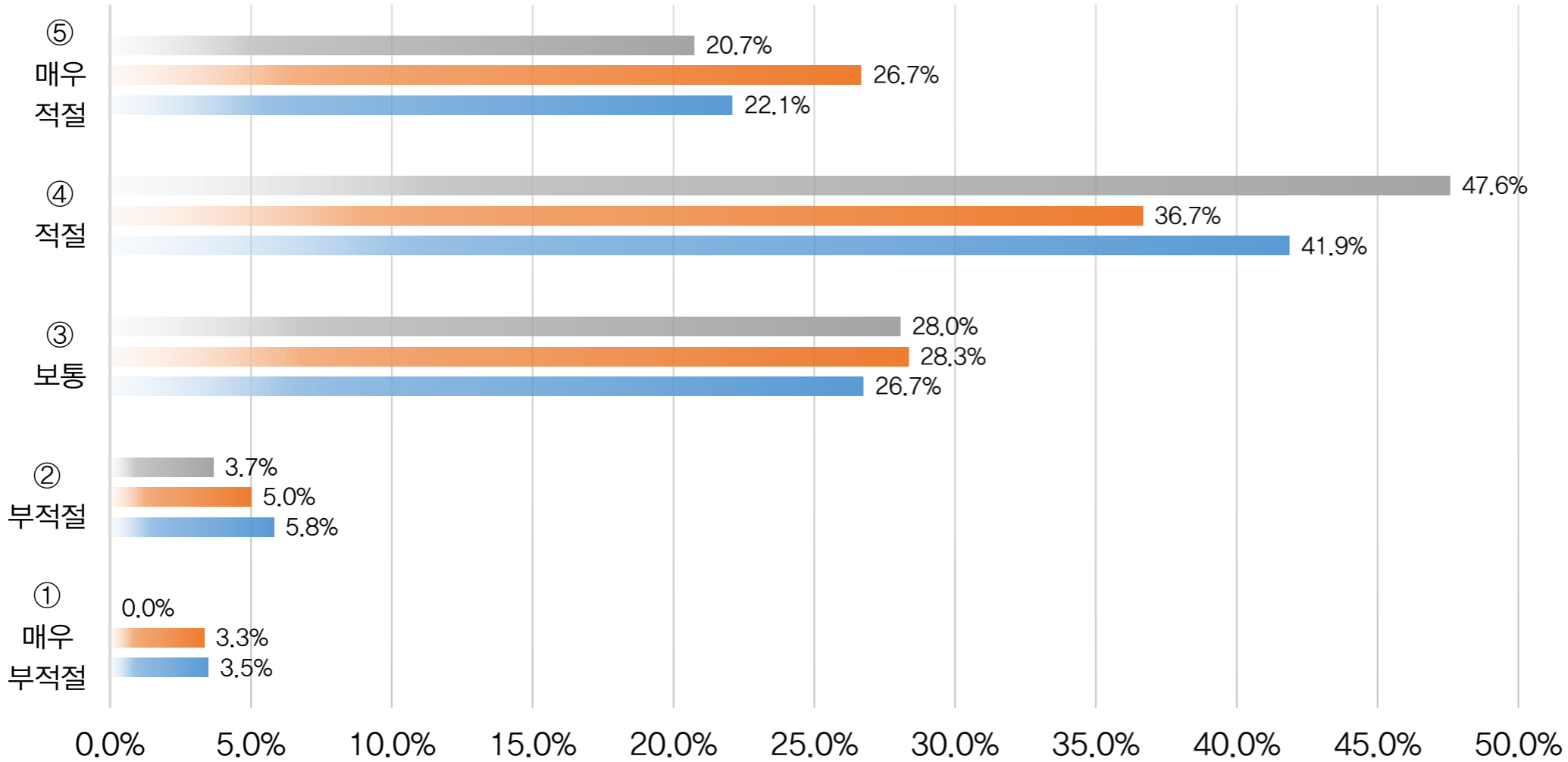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56(0.85)
- 실무수련자: 3.61(0.92)
- 교수용: 3.45(0.96)

P=0.553

20. 디지털 활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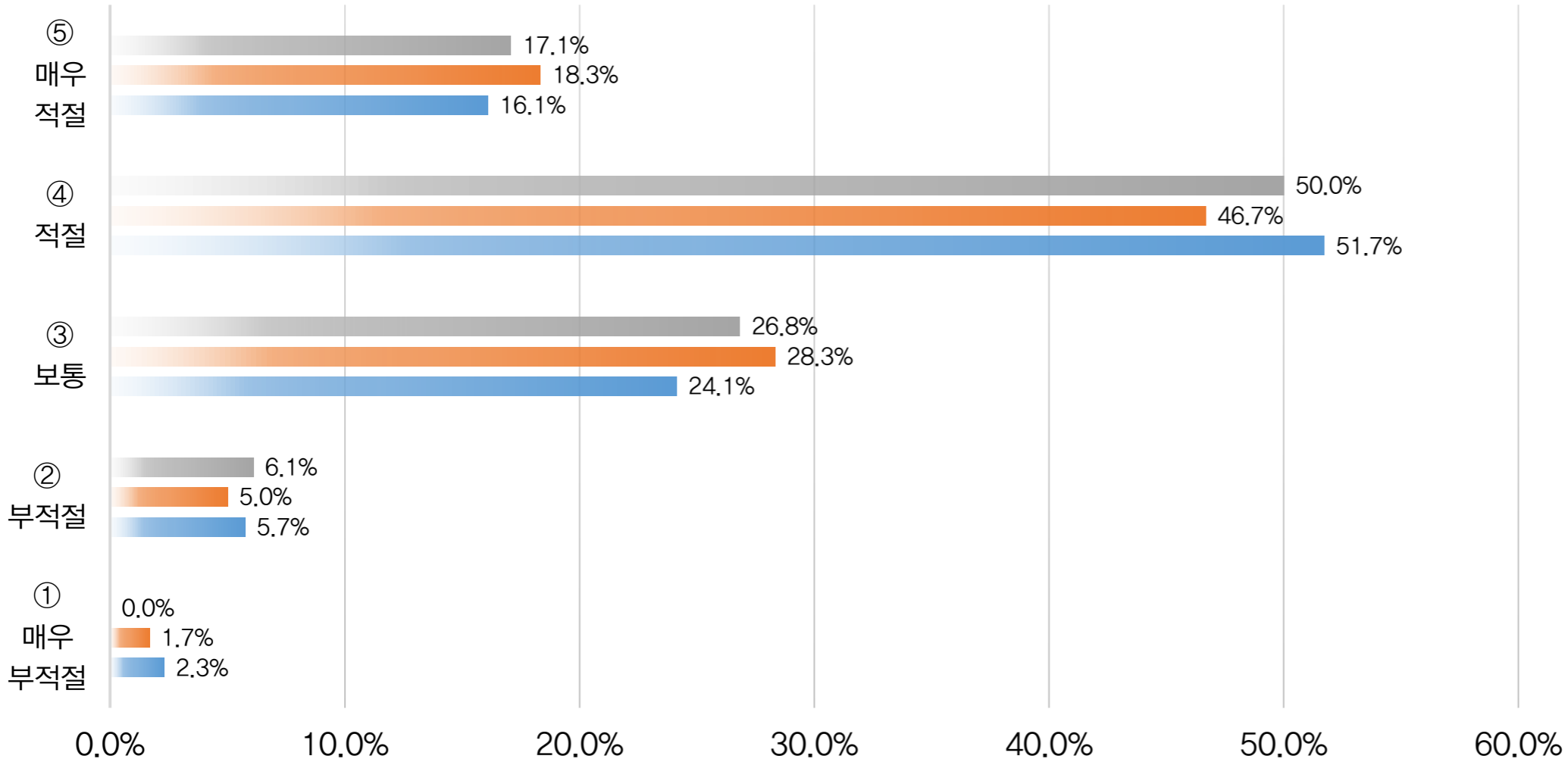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5(0.78)
- 실무수련자: 3.78(1.01)
- 교수용: 3.73(0.98)

P=0.698

21. 건축재료와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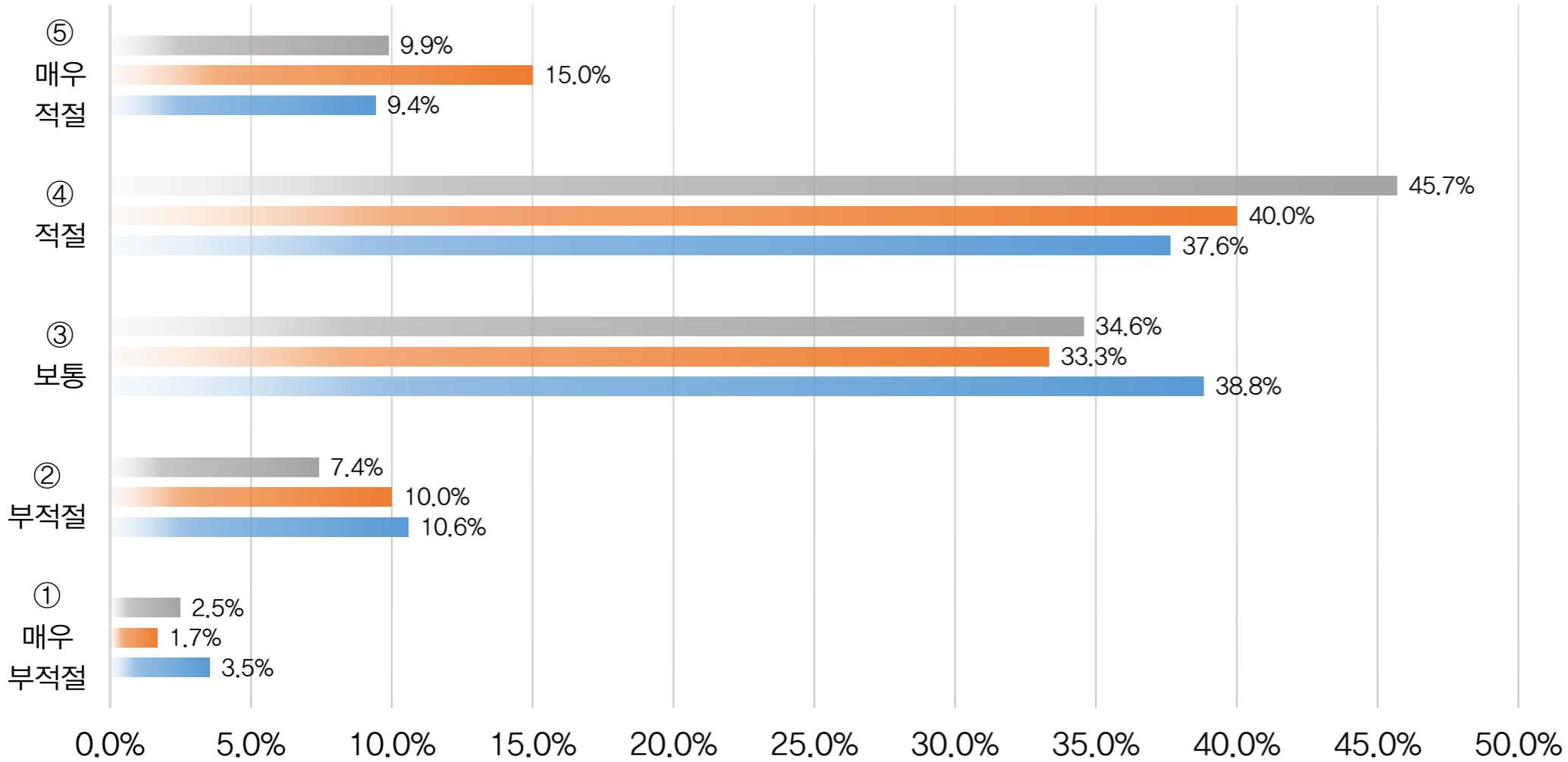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8(0.80)
- 실무수련자: 3.75(0.87)
- 교수용: 3.73(0.88)

P=0.942

22. 시공 및 건설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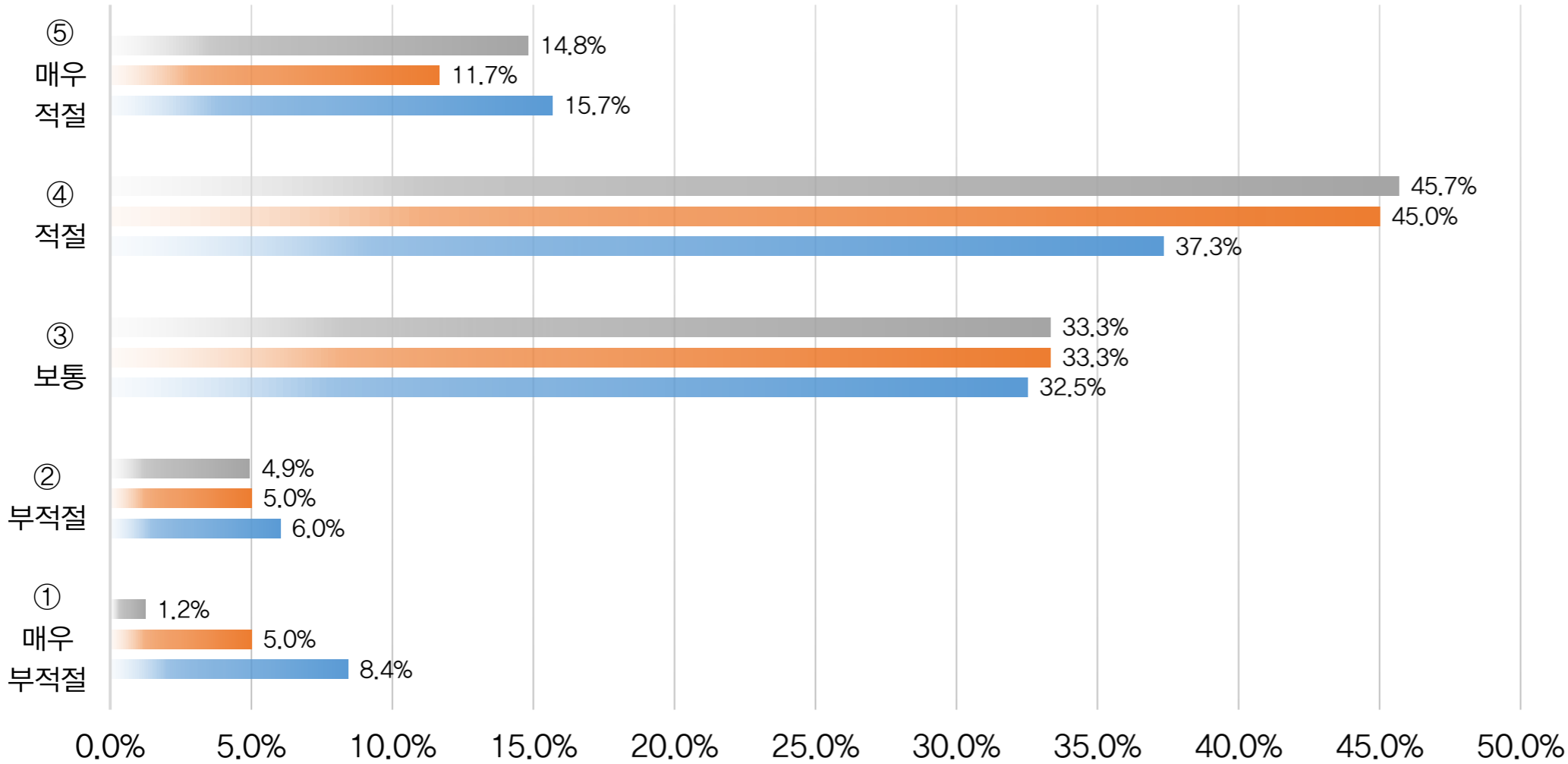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53(0.86)
- 실무수련자: 3.56(0.92)
- 교수용: 3.38(0.92)

P=0.437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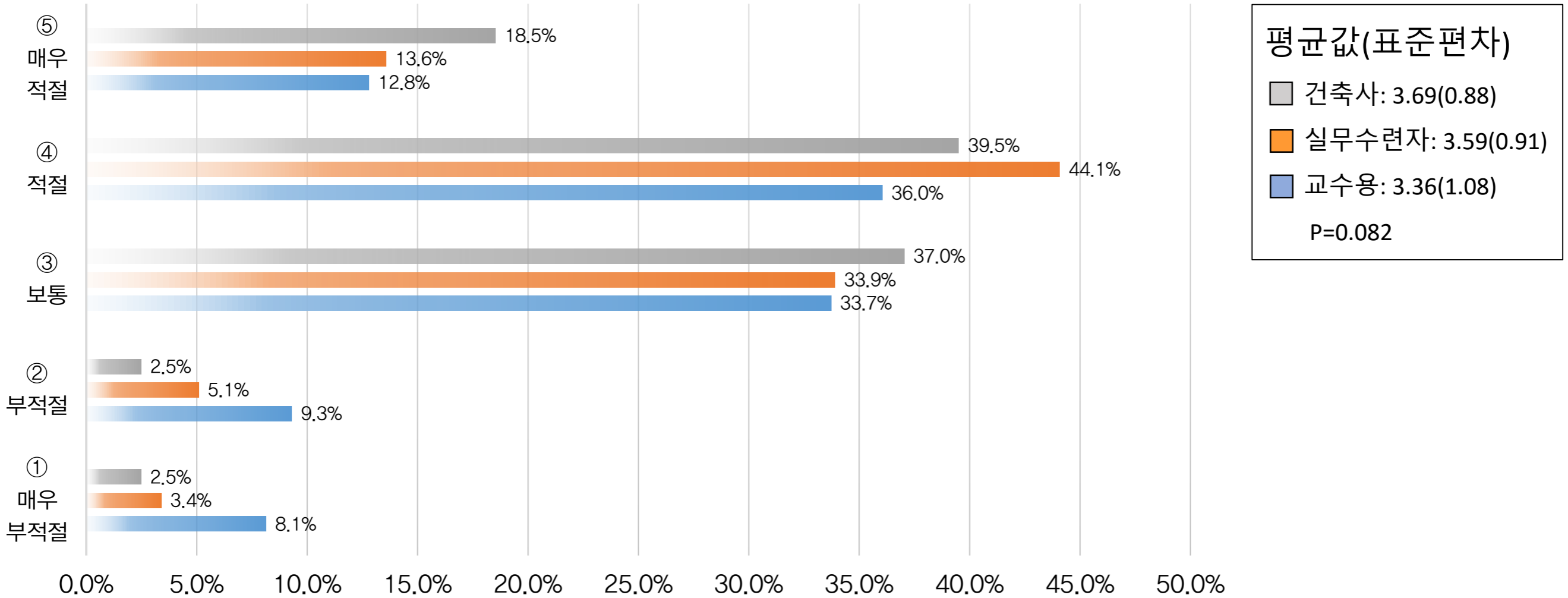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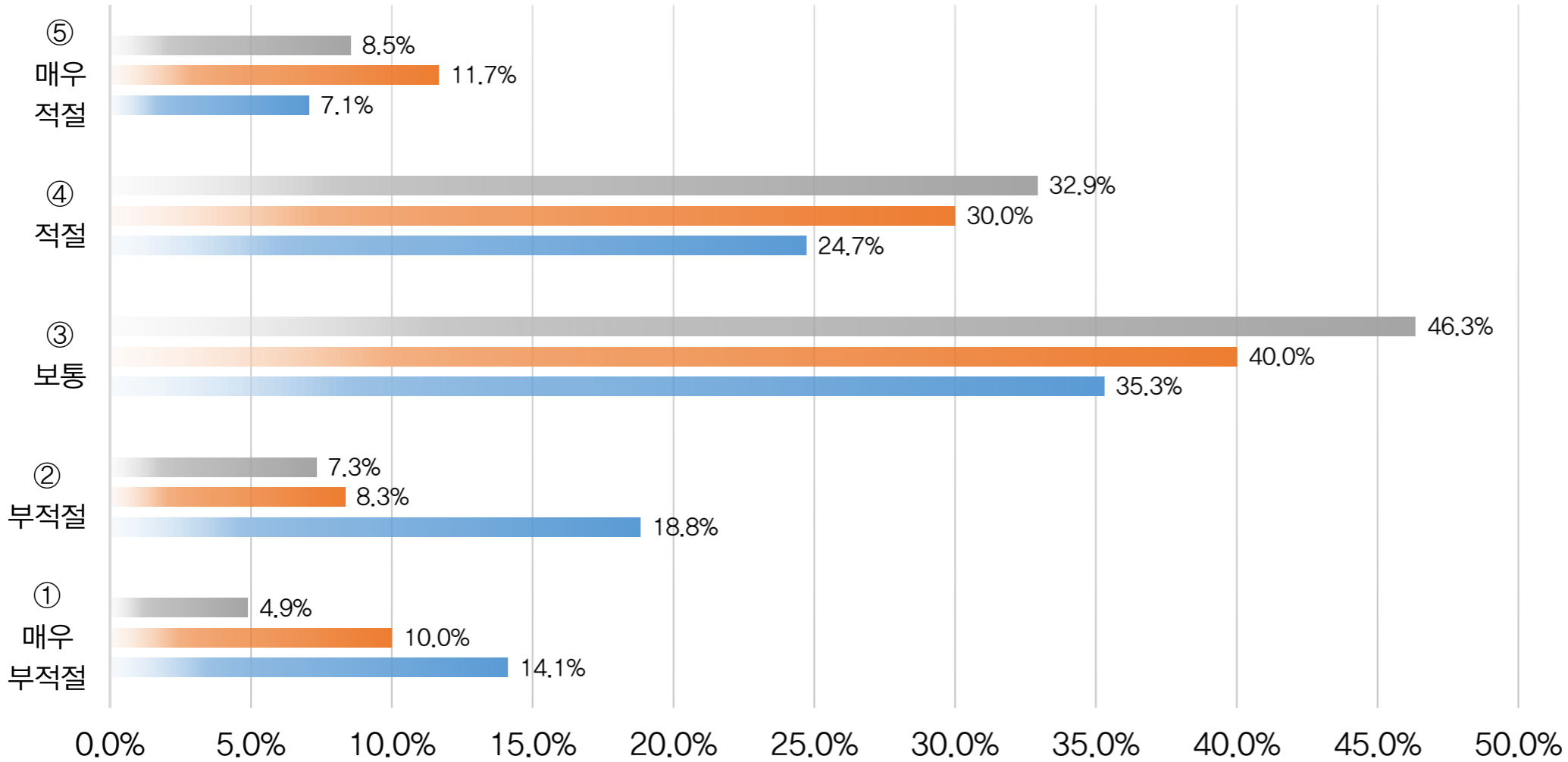
- 건축사: 3.67(0.83)
- 실무수련자: 3.53(0.94)
- 교수용: 3.45(1.09)

P=0.336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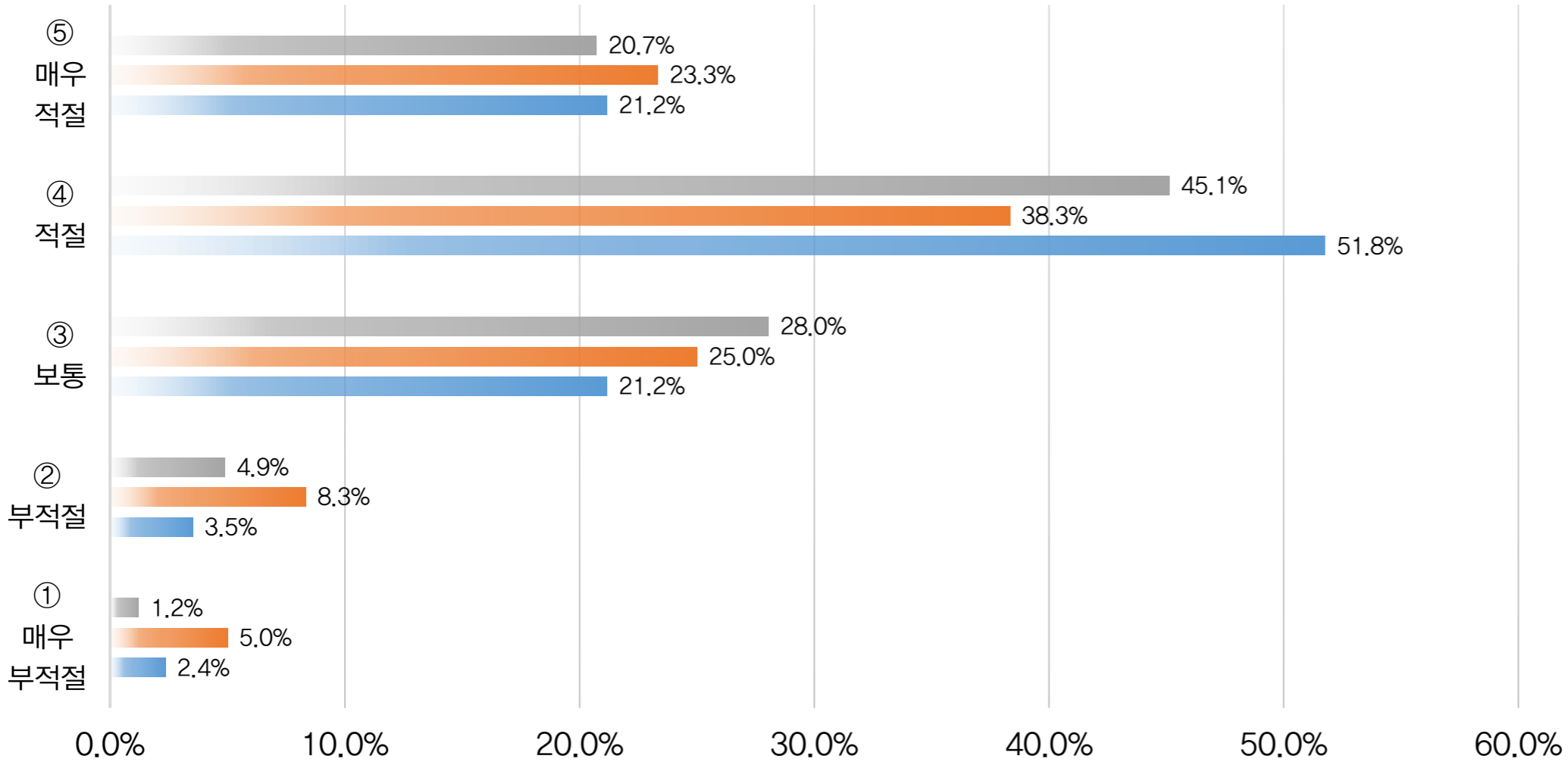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32(0.91)
- 실무수련자: 3.25(1.09)
- 교수용: 2.91(1.13)

P=0.031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9(0.87)
- 실무수련자: 3.66(1.08)
- 교수용: 3.85(0.87)

P=0.473

학생수행평가기준(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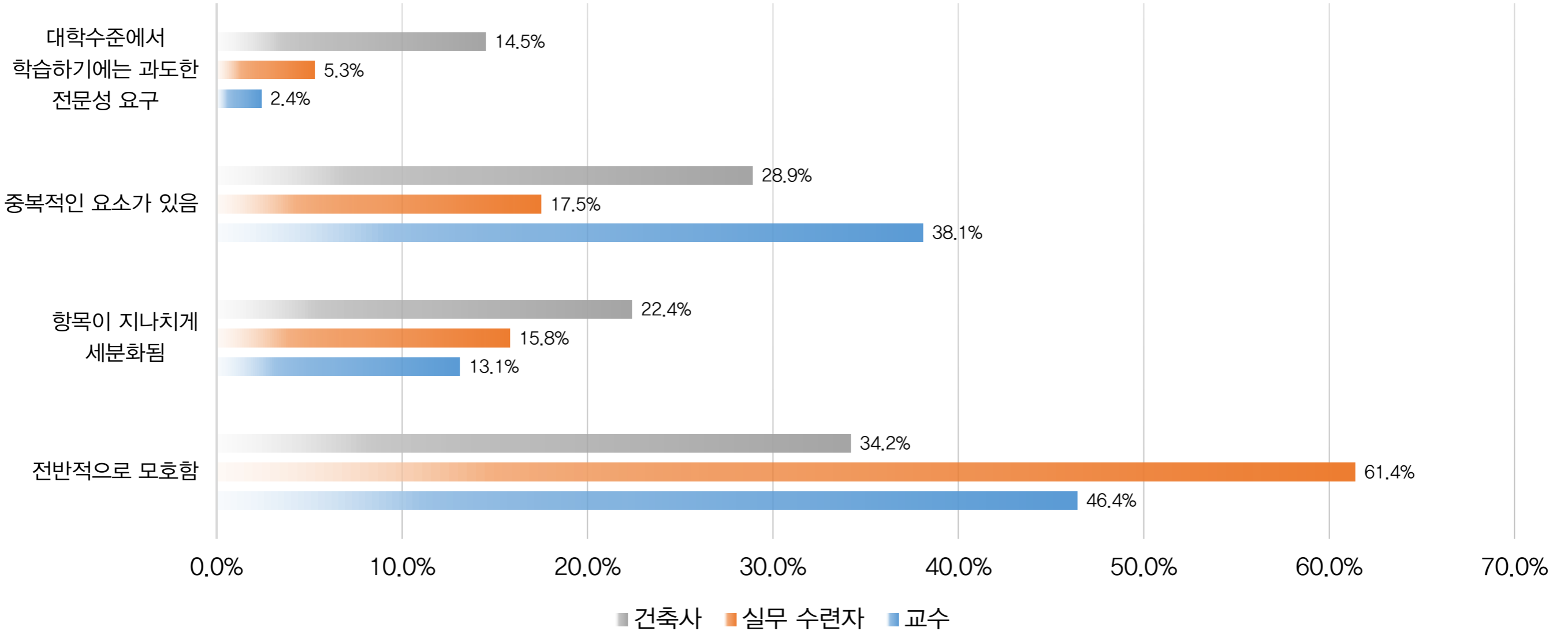
SPC 항목	대상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01.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교수용	3.67	1.08	0.673
	실무 수련자	3.80	0.94	
	건축사	3.78	0.80	
0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교수용	3.93	0.91	0.226
	실무 수련자	3.92	0.87	
	건축사	3.72	0.79	
03. 한국 건축과 전통	교수용	3.84	1.01	0.422
	실무 수련자	3.80	0.89	
	건축사	3.65	0.84	
04. 건축과 사회	교수용	3.55	1.03	0.346
	실무 수련자	3.78	0.99	
	건축사	3.67	0.79	
05. 인간행태와 공간	교수용	3.46	1.10	0.008
	실무 수련자	3.85	1.01	
	건축사	3.90	0.82	
06.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교수용	3.75	1.03	0.427
	실무 수련자	3.88	0.98	
	건축사	3.94	0.85	
07. 건축 소통능력	교수용	3.94	0.94	0.306
	실무 수련자	3.70	0.98	
	건축사	3.89	0.96	
08. 형태 및 공간구성	교수용	3.96	1.04	0.119
	실무 수련자	3.83	0.87	
	건축사	4.15	0.77	
09. 조사 및 분석	교수용	3.98	0.95	0.853
	실무 수련자	4.05	0.81	
	건축사	4.04	0.80	
10. 대지 계획	교수용	3.83	1.04	0.508
	실무 수련자	3.93	0.88	
	건축사	3.99	0.79	
11. 무장애 설계	교수용	3.26	1.14	0.054
	실무 수련자	3.67	1.05	
	건축사	3.52	0.84	
12. 안전 및 피난 설계	교수용	3.31	1.09	0.025
	실무 수련자	3.72	1.01	
	건축사	3.66	0.85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교수용	3.65	1.06	0.658
	실무 수련자	3.70	1.03	
	건축사	3.79	0.88	

14. 리모델링 설계	교수용	3.12	1.20	0.001
	실무 수련자	3.72	1.03	
	건축사	3.61	0.89	
15. 건축과 도시설계	교수용	3.77	0.94	0.673
	실무 수련자	3.90	0.92	
	건축사	3.78	0.92	
16. 종합 설계	교수용	3.49	1.19	0.000
	실무 수련자	3.98	0.79	
	건축사	4.06	0.87	
17. 구조원리와 시스템	교수용	3.83	0.86	0.500
	실무 수련자	3.64	1.00	
	건축사	3.77	0.91	
18. 환경 조절 시스템	교수용	3.56	0.91	0.988
	실무 수련자	3.58	1.00	
	건축사	3.58	0.79	
19. 건축 설비 시스템	교수용	3.45	0.96	0.553
	실무 수련자	3.61	0.93	
	건축사	3.57	0.85	
20. 디지털 활용기술	교수용	3.73	0.99	0.698
	실무 수련자	3.78	1.01	
	건축사	3.85	0.79	
21. 건축재료와 구성방법	교수용	3.74	0.88	0.942
	실무 수련자	3.75	0.88	
	건축사	3.78	0.80	
22. 시공 및 건설관리	교수용	3.39	0.93	0.437
	실무 수련자	3.57	0.93	
	건축사	3.53	0.87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교수용	3.46	1.10	0.336
	실무 수련자	3.53	0.95	
	건축사	3.68	0.83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교수용	3.36	1.08	0.082
	실무 수련자	3.59	0.91	
	건축사	3.69	0.89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교수용	2.92	1.14	0.031
	실무 수련자	3.25	1.10	
	건축사	3.33	0.92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	교수용	3.86	0.87	0.473
	실무 수련자	3.67	1.08	
	건축사	3.79	0.87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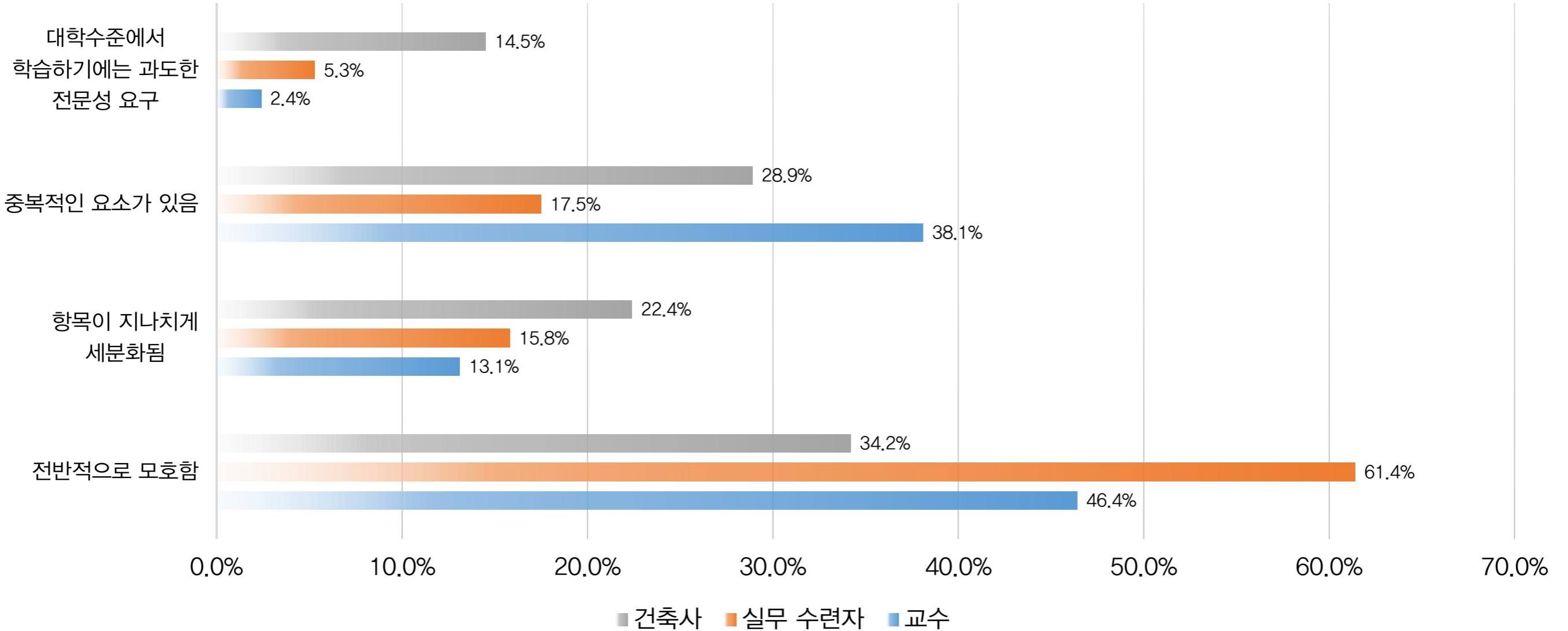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건축적 사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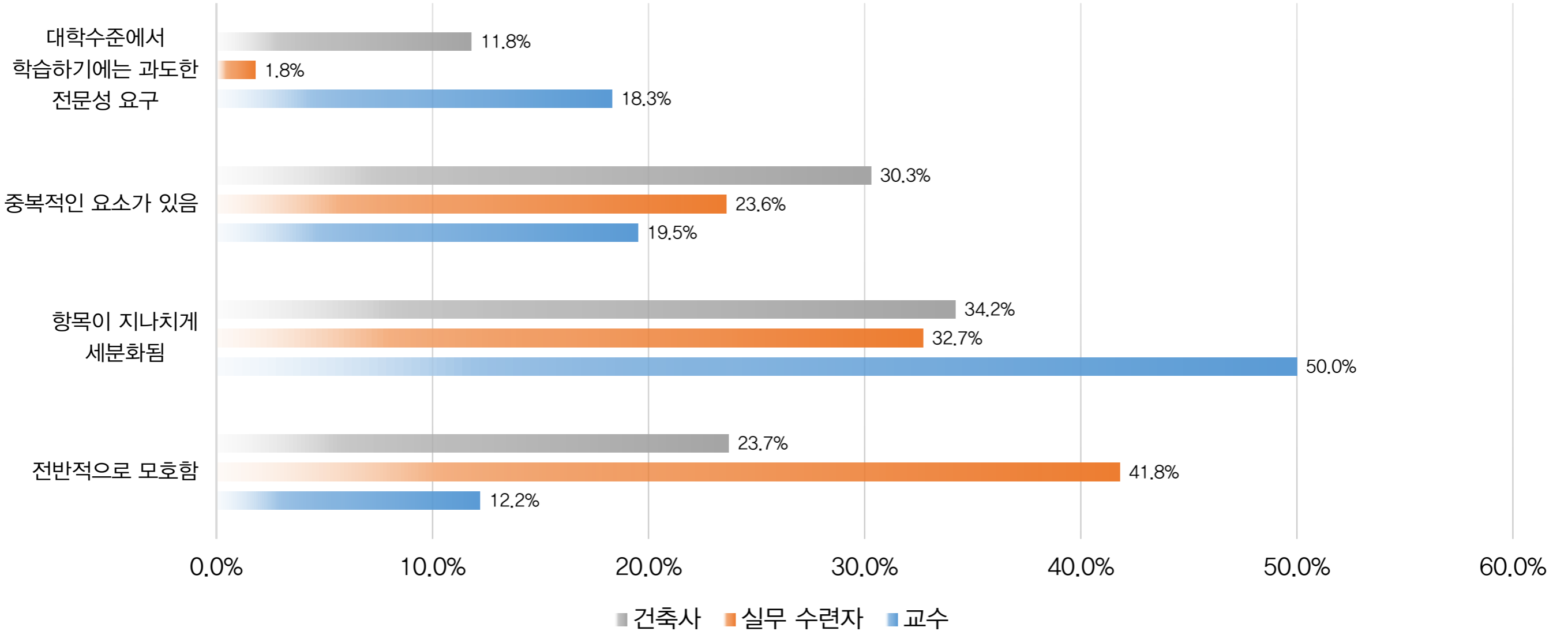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건축적 사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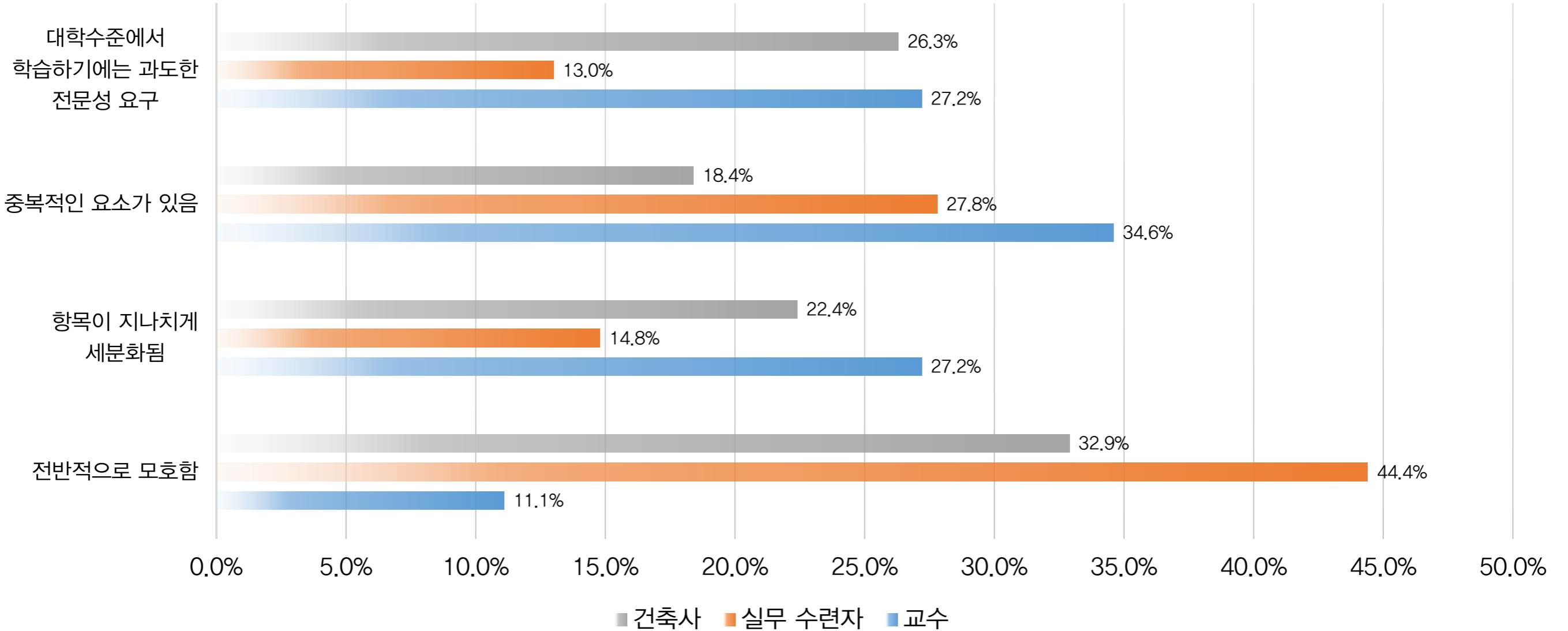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설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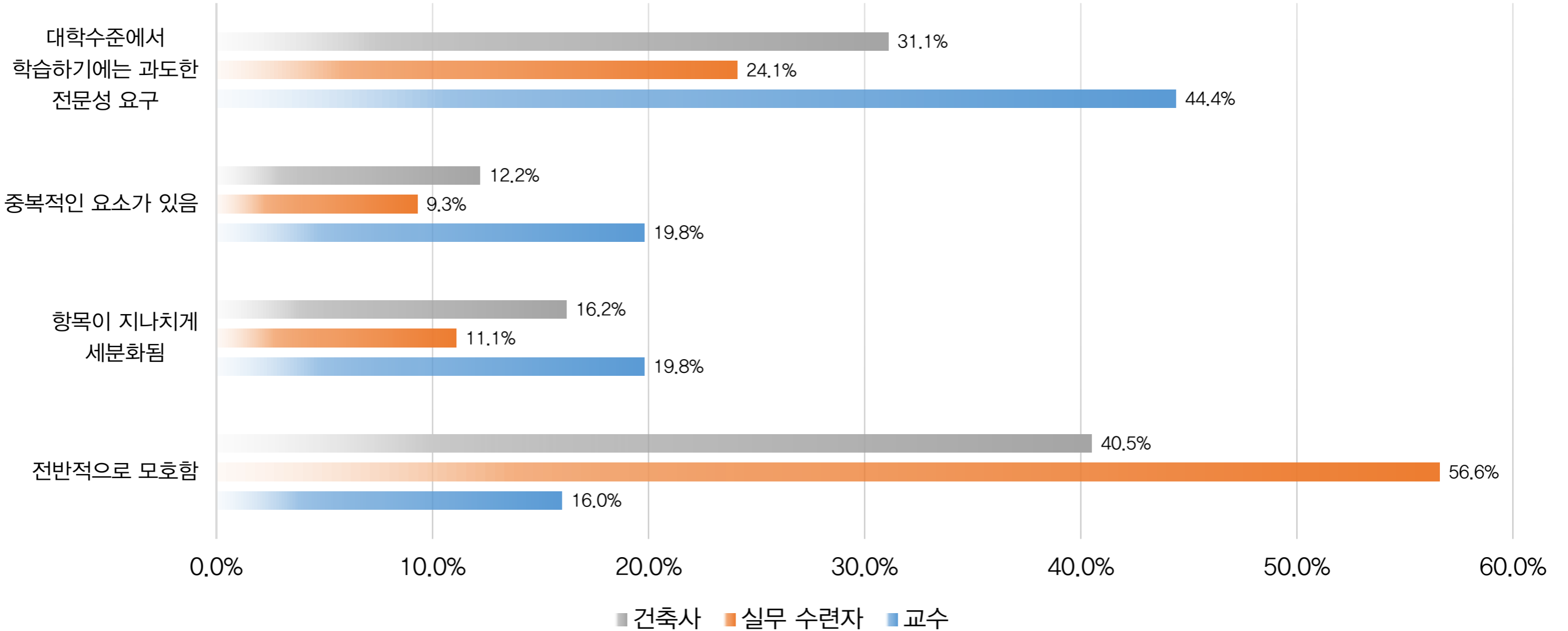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술 영역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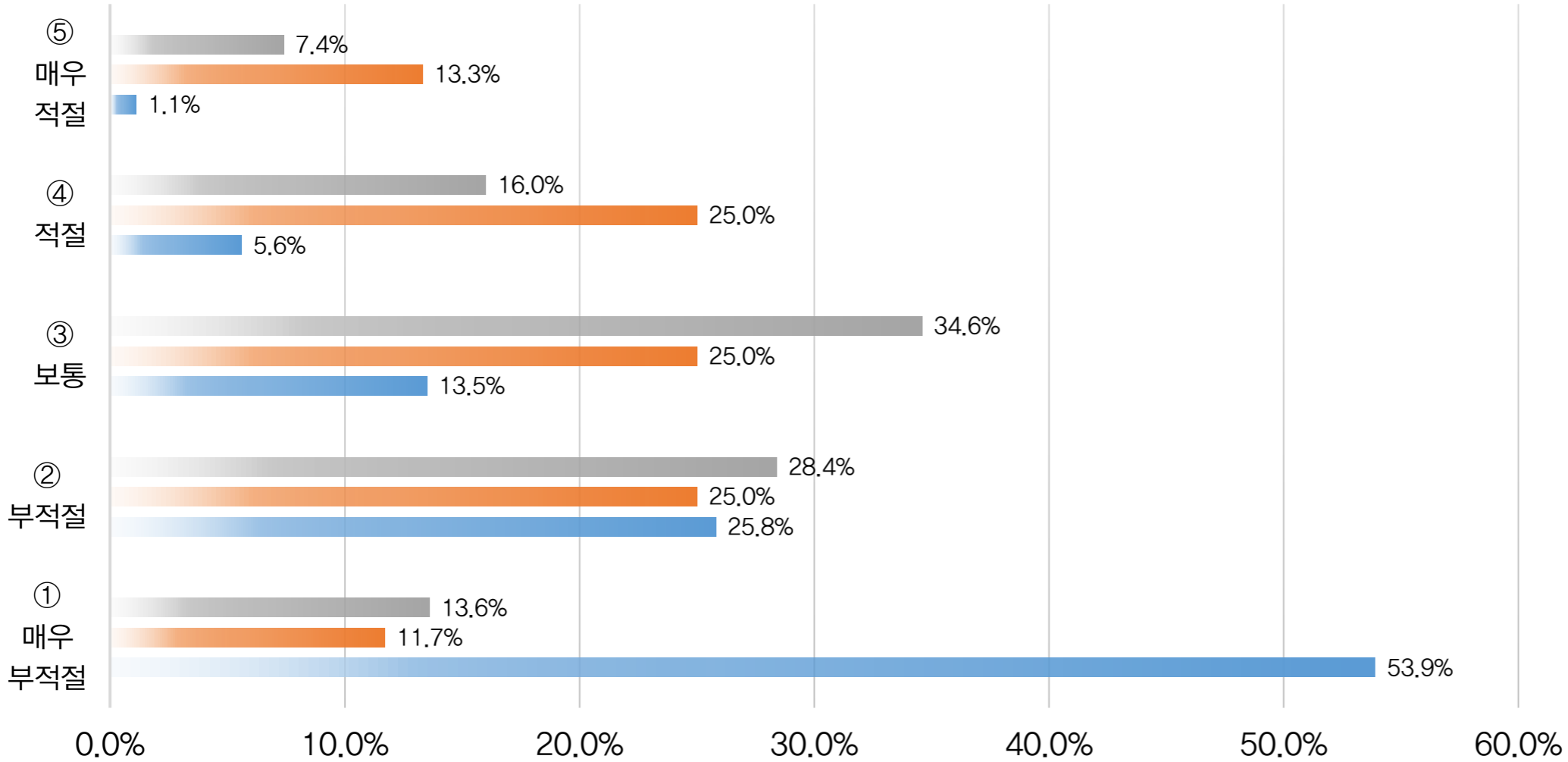
실무 영역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한옥건축설계(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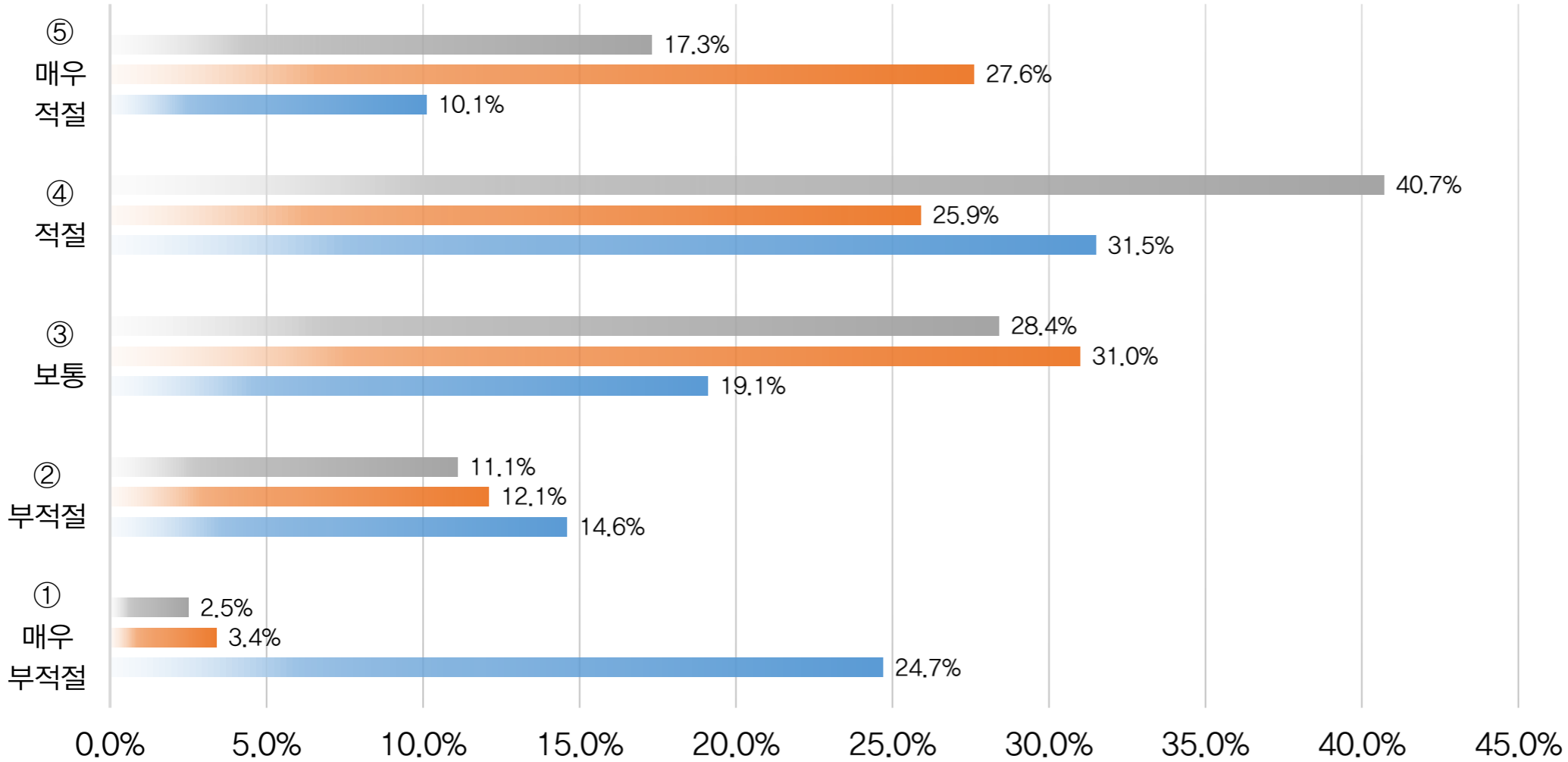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2.75(1.11)
- 실무수련자: 3.06(1.21)
- 교수용: 1.65(0.90)

P=0.000

도시재생(이해,능력)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59(0.98)
- 실무수련자: 3.64(1.10)
- 교수용: 3.00(1.39)

P=0.006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한국 건축과 전통: 한국건축의 건축원리 및 문화적 전통을 통하여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건축적 자아를 향상시킨다

도시와사회, 모호한 내용

인문, 철학, 및 경제학적 관점 필요

건축이론에 대한 학년별 다양한 강좌가 필요함

01.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 다소 추상적 내용으로 판단 됨

건축과 사회 항목과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항목을 결합->비슷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을 제외했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은 건축에 전반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기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예술에 대한 부분은 건축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기준

건축의 공공성 이해 필요,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 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존재하는 어절 수없이 봐야 하는 공공재임

실무수련자

평가기준이 모호함.

보편성이 아닌 다양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느낌.

대지분석과 전략 구축

제외하였으면 함 모호함

교수

04 건축과 사회 : 너무 범위가 넓고 애매 모호함으로 제외시키거나 범위를 구체화하고 축소시키기를 희망함

여러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복합적으로 사고해야하는 건축교육이 SPC로 나누어 학기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2,3번 SPC와 중복되서 꼭 있어야 하나 의문

SPC는 평가자를 위한 기준이지 대학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항목 통합: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음

01(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은 04(건축과 사회)와통합하거나 삭제: 매우 모호한 항목으로 보이며, 교양적 성격이 강함

인간행태와 공간(제외)-->설계교과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하여 교육

도시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건축적 사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인간행태는 기본이지만 spc로 지정될 필요는 없고 배경 지식 정도로 다루면 될 것 임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별도의 SPC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과목에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또한 적용 범위와 해석이 광범위할 수 있음. - 조사 및 분석: 설계외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영역에 조사 및 분석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보다 포괄적인 영역인 건축적 사고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와 3 한국 건축과 전통을 "건축의 역사와 문화"로 통합

4 건축과 사회와 5 인간행태와 공간을 "건축과 사회"로 통합. (인간행태와 공간은 상대적으로 세부사항이며, 건축과 사회로 통합가능)

건축적 사고가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구성됨

건축과 사회 / 범위가 넓고 모호하, 강의자와 평가자와의 관점 차이가 큼

인간행태와 공간 > 이론으로 이해하기보단 설계과목에서 이해 및 체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

4 건축과 사회 : 타항목과 중복되고 평가기준이 모호함

01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 0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 03. 한국 건축과 전통 / 04. 건축과 사회 / 05. 인간행태와 공간 : 해당 항목들은 건축교육의 속성상 이론 및 설계교육 전반에 걸쳐서 교육 과정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임. 그럼에도 개별적인 평가 항목으로 존재하고, 이를 개별화된 항목으로보고 실사단에서 이를 별개의 내용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교육이 획일화 및 기형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항목들로 여겨짐.

"인간행태와 공간"의 경우는 패턴 랭기지와 같은 오래전 유행했던 건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건축적 사고에 관한 개념해를 예시로 준거 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있음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01,02 통합. 04, 05 통합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도시설계, 환경조절시스템과 중복되어서 제외되어도 된다고 생각함

건축이라는 학문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본래의 통합적이고 탈영역적인 직무의 성격을 변질시킴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건축학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편성된 이유는 각자의 전공분야로 특화된 계획이나 설계방법론 및 표현방법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실무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전무한 교수들에게 건축사사무소 업무기준의 SPC를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평으로, 누군가는 계산식으로, 누군가는 영화적 상황으로, 누군가는 문학적 접근으로 건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큰 틀을 권장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자율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과연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총대를 매고 기존 사례를 획기적으로 벗어난 모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SPC가 건축교육의 기준이라고 누가 정했고, 정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인간행태와 공간(제외)-->설계교과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하여 교육

도시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건축적 사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1,4,6번 통합. 포괄적으로 교육가능

4, 5, 6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모호하여 실사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너무 많음. 이에 정량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친환경건축디자인 : 현장에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추세임

'리모델링 설계'를 제외했으면 합니다.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설계행위를 특정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 설계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시설용도를 설계할 수 있게 선택성을 부여하면 좋을듯 함

제대로된 도면의 이해 필요, 도면을 왜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그림으로 존재하는 건축은 의미가 없음 (실무와 중복)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 대학교육에서 전문성이 강한 항목으로 사료됨

개념과 형태 그리고 자연과의 연관된 통합된 SPC. 장애와 피난 관련은 핵심 사항만 계획 SPC에 합병하고 SPC 제외. 이유는 법적으로 시설에 따라 꼭 지켜야하는 강제 사항임으로 수행단계에서 수렴 가능함.

무장애설계 및 안전 및 피난설계는 형식적인 내용의 표현 보다는 실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이 필요함.

무장애 설계와 안전 및 피난 설계 항목 결합 -> 비슷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음.

실무수련자

합리적인 타당성을 요구하는 항목 필요

구조지식 혹은 창의적 디자인의 현실화 방법론 추가요망
재료 관련 설계 : 더 세분화 된 분야 공부

실시 설계 및 건축상세도 추가 교육

해당 설계에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 이해 지식이 필요함

구체적인 도면작성의 필요

도시계획 및 설계

계획능력

늘하는것의 중복

교수

리모델링은 현대 건축에서 기본이지만 굳이 별로 spc로 지정하여 학습할 필요는 없음

12 안전 및 피난 설계, 11 무장애 설계의 요구 정도, 너무 구체적이며 학교 교육으로 대처 무리

무장애 설계 (실무에 적용하는 도서작성을 하기위한 커리큘럼 운영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함)

SPC 항목이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간혹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됨

무장애설계 > 실무에서도 인허가시 경력자도 건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은 spc로 학사과정에서 일정 수준 능력을 갖추기엔 무리이며, 다양한 레벨의 공간 디자인을 창출하는 데 사고의 제약이 심함

리모델링설계: 특정한 건축방식의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무장애 설계: 이론적인 사항의 학습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대부분 구색 맞추기에 끝남.

[1] 10(대지계획)의 삭제 또는 07(건축소통능력)과 통합: 현재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대지계획의 원리(컨셉)를 잘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실제 배치도와 대지종횡단면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2] 14(리모델링설계)의 삭제 또는 13(건물시스템 통합설계)와 통합: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설계의 핵심은 구조체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삭제 또는 13(건물시스템 통합설계)와 통합이 바람직함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9,10,15통합 7,16통합 8제외(기본중의기본) 11,12,14통합

SPC는 평가자를 위한 기준이지 대학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편성된 이유는 각자의 전공분야로 특화된 계획이나 설계방법론 및 표현방법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실무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전무한 교수들에게 건축사사무소 업무기준의 SPC를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평으로, 누군가는 계산식으로, 누군가는 영화적 상황으로, 누군가는 문학적 접근으로 건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큰 틀을 권장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자율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과연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총대를 매고 기존 사례를 획기적으로 벗어난 모험적인 교육과정 에 대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SPC가 건축교육의 기준이라고 누가 정했고, 정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과도한 실무지향을 보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종합설계"라는 미명하에 실시설계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하거나 "이론교과와 설계교과의 연계" 또는 "학년별 순차적인 교육수준의 명시화" 등 피감기관으로서 도저히 가시화할 수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충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 현재의 인증실사는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뿐더러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 최소한 3회 이상 인증실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라도 혁명적인 간소화가 요구됨.

14번 리모델링 설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선택적인 주제로서 필수 SPC가 되기에는 설계 교육의 자율화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제외를 고려해보아야 함.

10 대지계획 : 범위가 너무 넓고 학생 수준에서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움. 범위를 구체화하여 축소시키기를 희망함. 15 건축과 도시설계 :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건축설계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도시계획의 기본원리까지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으로 건축설계하라는 부분은 학생으로서 달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16(종합설계) 항목 내용이 모호하여 삭제 고려

설계에서 방점을 두고 주제와 규모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고민하게 하는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spc를 나누어 선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느낌. 또한 시대적으로 추가 또는 배제 되어도 되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요소는 각 대학에 제량에 맞기는것이 맞다고 보여짐. 하지만 교과내용에서 무장애 안전피난의 개념적인 내용을 소화는 가능하나, 매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어 이 교육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1. 건축 소통 능력, 형태 및 공간구성, 조사 및 분석 /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이 정도 기간에 인증 운영을 했다면 이들 SPC는 제외되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2. 무장애, 안전 및 피난, 건축시스템 통합, 리모델링 /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주의 이상을 받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무장애/안전 및 피난은 기초 교육 및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이수케하고 이를 SPC에서 제외하거나 교육 이수율로 대체하고, 건축시스템 통합/리모델링은 해석의 논쟁도 많고 현실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해법 제시가 어려우므로 과감히 삭제 필요)

배리어프리, 안전 피난 기준

무장애설계와 안전 및 피난설계 적용의 유연함 필요> 설계의 창의적 과정을 다소 경직 시킬 수 있음.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11. 무장애 설계/ 12. 안전 및 피난 설계 / 14. 리모델링 설계 / 16. 종합설계 : 11. 무장애 설계/ 12. 안전 및 피난 설계: 건축학인증이라는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실무적인 항목이고, 실사단 또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항목으로 건축설계교육을 실무적이고 과도하게 획일화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건축학인증교육에서 추구하는 설계교육의 목적이 졸업후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인 양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11번과 12번 항목은 고질적으로 실무중심(실무에서 사용하는 도면작성 등에 준하는 수업내용)의 평가가 인증실사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건축설계교육이 건축설계의 본질이 아닌 실무를 위한 기능적 교육으로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예, 실제 실사 때 실무의 인허가 때 작성하는 장애인 상세도 및 사인상세도가 없으면 교육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하지만 해당 내용은 상당수 기존의 실무 도면을 카피 페이스트 하는 정도의 기능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정받는 역설적인 경우가 발생. 실제 실사 때 피난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비도면이 없으면 안전 및 피난설계로 인정해주지 않음. 실제 스프링쿨러 설비도면을 건축사무소에서 그리지 않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에도 그런 실무적 도면작성을 요구함.) 14번 리모델링 설계: 이 항목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인증실사에 필수로 넣어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각 학교에서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루도록 선택적인 내용으로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건축교육이 자율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필수적인 인증항목으로 둔 것에 따른 폐해중 가장 큰 것은 교육의 획일화라고 봅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건축설계의 소양을 갖추고 적어도 한학기는 오롯이 리모델링만을 해야 어느 정도의 교육과 설계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3-4학년 중 한학기를 리모델링을 위한 학기로 필수로 배치하는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증실사평가때에도 리모델링 설계를 평가할때 획일적이고 실무중심의 기능적 잣대로 실사단에서 평가함에 따라 (예, 실제 실사 때 벽체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인정못하고 반드시 평면의 바닥을 뚫어야 리모델링으로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며 교육과정의 리모델링 내용을 인정해주는 경우) 교육의 획일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항목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6번 종합설계: 종합설계에 대한 인증실사단의 평가 방식과 이에 대한 대학교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설계가 건축가로서의 종합적인 설계능력 (초기 시작의 조사-분석에서부터 컨셉-기획-계획-설계 발전-최종결과물 완성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건축설계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정성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항목임에도 (왜냐하면 현재, 그 외의 모든 설계 항목은 건축설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세분화된 항목임) 이를 보지 않고, 건축도면-설비도면-기계도면-구조도면 등 실제 실무에서 실시도면작성시에 하게되는 도면작성을 통해서 종합설계로 인증을 받은 학교들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 실사때에도 이런 실무실시도면들의 종합적 작성을 평가의 합당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합설계가 건축설계의 통합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질적 내용이 아닌, 실시도면을 작성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질적 저하가 되는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대학교들의 설계교육의 획일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증 받는 학교들이 실시도서 작성을 하는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건축대학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건축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데 쓰게 되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설계에 대한 항목이 보다 정성적-통합적으로 설계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무장애설계와 안전 및 피난설계 적용의 유연함 필요> 설계의 창의적 과정을 다소 경직 시킬 수 있음.

건축과 도시설계(제외)-->기준자체가 모호 안전 및 피난, 건물시스템(변경)-->창의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는 기준 마련
지속가능성의 중요도에 비하여 SPC에서 약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강화필요. 도시설계스케일과 건축설계스케일 모두 필요함.

종합설계와 통합설계가 모호함 하나로 합칠수 있으면 좋겠음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 조사 및 분석: 건축적 사고 영역으로 추가하고 설계에서는 제외 - 건축법 및 관계법령: 설계 영역으로 추가하고 실무에서 제외. 실무영역은 법과 제도에 대한 윤리적 책임 등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제 설계 과정에서 법의 적용은 설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함. - 무장애, 안전 및 피난 설계 외 거시적으로 건축 및 관련법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내용임. 두 항목 외에도 환경, 재해, 다양성 등 보다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법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할 필요 있음
리모델링, 도시설계 제외,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 있음

- 리모델링 설계가 제외되어야 함-> 학생 수준에서 너무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함 - 안전 및 피난설계-> 학생 수준에서 너무나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함. 다른 SPC와 묶어서 (법규 등)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종합설계-> 대부분 설계도면집을 만들어 내는데, 전 인증평가에 따라 불필요한 도면집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음 (통신, 설비 도면 등)

14 리모델링 설계: 기준이 애매하고 보다 명확해질 필요

"무장애 설계" 및 "안전 및 피난" 등의 경우는 대학교육에서 실제 설계 능력보다는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디자인 능력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바, 각론적 이해와 프로세스의 교육을 점검할 수 있다면 좋겠음.

대지계획과 도시설계 통합: 건축학에서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지계획과 도시설계 분석 내용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
무장애설계 - 약식으로

11 무장애 설계와 12 안전 및 피난 설계를 "무장애 및 피난설계"로 통합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와 16 종합설계를 "종합설계"로 통합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심화교육 필요

'시공 및 건설관리'를 '실무'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건축물 설계 또는 계획에 필요한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시브적 설계기법이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설계시 엔지니어링의 기본개념 이해 필요

실제적으로 교육되기 어렵다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순 PC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에서 상세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이와 펜으로 그리는 스케치 항목이 필요

-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구조 설계분야 추가 또는 강화 이유: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학교에서 안 배워서 모른다는 이유로 구조전문분야와 계획안(디자인)협의 할 수 없음. 향후 구조분야가 건축과 분리계약되어 발주되면 계획설계(디자인)은 구조설계 따라 변경될 경우 대응이 어려움 있음.

22. 시공 및 건설관리 : 대학교육에서 전문성이 강한 항목으로 사료됨

스스로의 스튜디오 설계과정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그 의미(비용, 기간, 리스크 등)를 연계하여 이해 필요.

시방, 견적, 구조개념및 기.전.소방등 전반적인 통합 개념 필요.

건축사의 직업윤리부분은 요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으므로 건축사 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및 비중이 확대되었으면 함.

환경조절시스템과 건축설비시스템 학목 결합 -> 비슷하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항목임.

실무수련자

건축계획 과정에서 동시에 적용가능 항목 필요

구조 혹은 설비 시스템의 이해 및 적용

설비와 구조가 실무랑 연결성이 전혀 없음.

건축 디테일과 현장 답사 혹은 체험 직접 연계

전문가의도움이필요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건축기술의 통합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이 인증의 주요 방향임은 알겠으나, 수년간 제도 시행에 따라 오히려 건축 기술 분야의 인력감소 등은 건축설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내용의 축소를 원하는 바는 아니며 이러하누실태를 고려하여 추후 인증 방향설정에 반영하였으면 함.

19 건축설비 시스템 요구 정도, 너무 구체적이며 학교 교육으로 대처 무리

디지털 활용기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증심사시 자의적인 평가가 수행되는 느낌이 있음. CAD 등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나, 더 깊이 있는 기술까지 요구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의를 주거나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기술적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공학과와의 협업경험향상이 필요함

기술 항목 해석에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을 적용하고 있음

환경조절 시스템 > 선택적 항목이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음. 설비 시스템 항목과 중복

18,19통합 21,22통합

SPC는 평가자를 위한 기준이지 대학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편성된 이유는 각자의 전공분야로 특화된 계획이나 설계방법론 및 표현방법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실무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전무한 교수들에게 건축사사무소 업무기준의 SPC를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평으로, 누군가는 계산식으로, 누군가는 영화적 상황으로, 누군가는 문학적 접근으로 건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큰 틀을 권장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자율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과연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총대를 매고 기존 사례를 획기적으로 벗어난 모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SPC가 건축교육의 기준이라고 누가 정했고, 정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모든 항목에 있어 최소한 습득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심사단은 이에 대해 수행여부를 체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18(환경조절시스템)과 19(건축설비시스템)을 통합하고 [2] 친환경계획(또는 에너지절약계획) 등의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함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19. 건축설비 시스템: 기능과 설비 중심이 아닌 환경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18번 환경조절시스템 항목과 함께 보다 통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게 더 발전적이라고 보고, 평가또한 보다 통합적인 항목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2. 시공 및 건설관리: 기초적인 시공기술에 대한 지식 및 건설관리에 대한 지식은 건축설계 및 건축교육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의무화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추구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 자율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 디지털 활용기술: 거의 모든 학교가 기초적인 단계의 디지털 활용기술은 이루었다고 봅니다. 해당 항목이 막연하게 디지털 활용기술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방향으로 항목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환경조절)과 19(건축설비시스템) 항목은 서로 유사하여 통합 고려

07, 08, 09 통합후 신설. 일반적이고 반복되는 사항임 11, 12 통합 후 신설

환경조절 시스템과 건축설비 시스템 통합 / 중복요소가 많아 통합하는게 적절

항목 축소 요함

BIM에 대한 명시필요

특별히 없음

전반적으로 기술을 설계와 별도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설계의 과정 안에 디자인, 기술적 적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함.

17 구조원리와 시스템 : 구조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

설비, 전기, 구조등 분야의 깊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기계설비라면 시스템까지라든지...

건설관리는 제외: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과도한 건설관리 항목까지 필수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음

건축사 업무

18 환경조절 시스템과 19 건축설비 시스템을 환경조절 설비시스템으로통합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시공 및 건설관리'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사의 업역은 시공감리, 발주, 건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실무 교육은 큰 의미 없다고 봄

현장실습의 시기를 4학년 때 실시하는게 적절함

건축사사무소 구조와 경영

실무는 인턴을하면서 체험하는것이 적절

학생은 학생답게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에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웠으면 좋겠음. 실무과정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제대로 배우면 좋겠음. 그전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 공동작업 시 문제 해결능력을 배웠으면 좋겠음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본인이 판단하여 추구하는 실무의 방향을 도출하도록 목표가 필요.

계약 및 건축사 윤리 절차 등의 교육 필요.

기술 분야의 단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도 필요해 보임.

사무실 운영, 회계원리 등 경영적 부분 추가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제외 -> 기준에 대한 교육이 모호함

실무수련자

실무 경험 필수 항목으로 추가 필요

건축적 담론, 대략적인 법규검토

공정대로 설계를 경험하는것, 분야별 교류도 포함

사무소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 하나도 없음. 보여주기식 과목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여 수업개설을 해야됨

스케줄링 적용

현장실습

학교와 실무의 괴리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건축학 교육에 있어, 실무에서 수련하는 바와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 바가 분명히 달라야 함.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건축사 취득 후의 교육내용에 필요

실무 항목들은 인증원 중심으로 별도 의무 교육 신설하면 됨 (졸업후 실무 수련 기간 중)

비슷한 항목이 다수 있어 중복적인 편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실무하는 것이 훨씬 좋음. 현장 실습경험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음.

실무 항목은 중요하므로 다양하게 SPC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음. 다만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관리 > 건축사사무소 개소 및 임원을 전제로 한 항목

23,24,25통합

SPC는 평가자를 위한 기준이지 대학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편성된 이유는 각자의 전공분야로 특화된 계획이나 설계방법론 및 표현방법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실무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전무한 교수들에게 건축사사무소 업무기준의 SPC를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평으로, 누군가는 계산식으로, 누군가는 영화적 상황으로, 누군가는 문학적 접근으로 건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큰 틀을 권장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자율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과연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총대를 매고 기존 사례를 획기적으로 벗어난 모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SPC가 건축교육의 기준이라고 누가 정했고, 정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25번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며, 대학 교육을 고려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 실무도서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개략 공사비 산정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부분적인 범위의 축소가 필요함
25. 건축사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 재무관리, 사업계획, 영업 및 수주, 조직관리 등은 학생들에게는 아직 와 닿지 않는 얘기임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 : 위의 4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기 보다는 1개 혹은 2개 정도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평가해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23, 25 통합후 신설 24, 26 통합후 신설 요망 : 중복됨

실무는 학부에서 다룰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적이라 판단되고, 졸업후 설계진로를 택하는 학생수의 편차가 학교별로 매우 많아 실무의 내용이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설계를 그 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짐. 대부분이 5년제는 학부생이라는 점을 가만하여 현재 설계사무소의 운영보다는 미래의 건축설계가 추구해야하는 다학제적 타분야와 협업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설계영역의 확장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건축사 사무소 운영과 관리 / 필요하나 학생 수준에서 배우기 애매하며 실제로 SPC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2. 건축법 및 관계 법령 / 현재 교육 수준에서는 건축법 교육 만으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흥미를 잃거나 등의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SPC 충족만을 위해 관계 법령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건축기획과 관련된 과목추가 필요

건축사사무소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음

설계단계상 다양한 업역과의 협력관련 사항 추가. 설계단계별 계약과 구체적 내용보완 필요.(특히 공공부문의 인증관련부분)

5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량을 넘어서고 있음

건축사의 윤리, 프로젝트의 수행, 사무소 운영등은 과도한 SPC의 내용은 학업이후 실무3년 수행기간 건축사협회와 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건축법 및 관계법령: 실무에서 설계로 조정 필요.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관리,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는 한국 사정에 맞는 책이나 내용이 없어서 가르치기 애매함.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관리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임. 이 두 항목은 축소되었으면 함.

23-24 통합 : 중복되는 내용

건축사사무소 운영등은 사무소의 구조와 업무범위 정도로 구체화되면 좋을 듯함.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관련 항목들은 통합 가능

학생인데 건축사업무 영역은 지나침

21 건축재료와 구성방법과 22 시공 및 건설관리를 "건축시공관리"로 통합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건축사

SPC 상호간에 Mutual exclusiveness (상호 독립성?)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함. 어느 항목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어느 다른 항목은 지나치게 세세한 하부적인 문제를 다루게 유도하는 것 같은 항목이 혼재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포괄적인 항목들이 프로그램에게 해석과 응용의 여지를 부여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실무에서 통합설계와 종합설계, 협업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구분이 필요

대학별 특화항목이 필요함

건축학교육인증은 최종적으로 건축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건축사=건축물 설계'가 바탕 또는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각대학 특성에 대한고려가 필요함

건축법과 제도에 맞는 설계를 지향 했으면함

일률적인 아닌 각 대학별로 특화방안과 평가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1. 자체평가를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유도하도록 연구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3차이상의 인증실사의 경우 불필요한 일정과 내용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체평가체계의 성취도를 높여주는게 바람직합니다 2. 학생수행평가기준의 경우 프로그램측의 과도한 해석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인증원의 해석과 실사 취지등을 보완하여 해당 프로그램측의 성숙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증기준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교과내용은 학교와 교수의 자율적인 방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인증기준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고 이를 빌미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것이 과연 미래 건축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인증위원들의 월권행위와 과도한 지적, 간섭 역시 잘못된 인증기준지침에 근거한다고 보입니다.

건축실무 분야 현실화 필요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건축사

인증제도 무효화, 중규모, 소규모사무소는 인적자원 충원에 심각성검토요망

획일화된 인증기준이 각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고유의 특색있는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인증기준보다는 범위는 넓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증항목들을 통해 각 교육기관들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실무능력과 함께 건축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실험정신을 장려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제도 역시 개선방향으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 건축교육의 자율성이 필요하며 인증실사가 매년 기준이 인증위원이나 위원장에 따라 의견이나 인증년도가 틀려 신뢰성이 없다

획일화된 인증기준. 대학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확보

지난 인증에서 좋은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간소화하여 기존의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별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어서, 결국 학교에서는 결과물을 어떻게든 인증 기준에 맞추려고 중복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나 인증은 실무와 교육경험이 많은 교수님이 담당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신입이나 갓 교육을 시작하신 교수님이 맡는다는건 귀찮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증실사 시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전 시실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축학에서 건축구조 및 설비수업은 설계수업시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아 실무시 설계에서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저하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틀에 맞지 않아도 그 깊이와 노력이 발견된다면 인정해주는 항목 필요

SPC 항목을 포괄적으로 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자율성 보장 과 국제적으로 특히 동남아에서 필요한 국제기준으로 발 돋움 할 시점으로 봄.

1.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5년제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건축사시험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한 건축설계 분야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2.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의 영역을 함께 다룰수 있는 구조 및 시공과목을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 (9~12시간)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임. 3.건축사가 건축물의 외관만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건축 전반적인 분야(건축, 구조, 토목,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 및 기타 다른 분야)의 내용도 함께 공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사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건축사

대학별 자율 프로그램 운용으로 획일적 시스템 탈피 필요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많으며 항목별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물을 요구하여 서류화하는 작업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인증 기준에서 특히 설계 과목의 경우 평가가 매우 교수 주관적이며, 모호합니다. pass/fail제도로 보완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ass/fail제도로 도입되었을때 실사 단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도입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각 학교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현재의 인증기준은 지나치게 학교, 교수들의 자율성을 침범하고 있으며, 인증준비를 위한 과도한 준비와 비용이 소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실무수련자

법규와 실무과목 보강 및 추가

없음

입학자 전원 보다는 필요한 사람만 5년인증을 실시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창의성을 우선으로 배워야 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함. 그나마 구조 정도 도움이 되는데, 학교나 학생마다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함.

항목에 대한 선택과 유연성으로 학교별 특화를 형성해야함. 기존엔 너무 뻑뻑하여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교육받지만 교수나 외부 환경 역량에 따라 결국 차별화된 환경이 구성될 수 밖에 없음. 오히려 학교별 인프라를 통해 특화하는 방향도 적용해야함

실무능력

건축사 설비기술사 구조기술사 다필요하다고봄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교수

각 대학의 자율적 커리큘럼 허용. spc 미충족 상황으로 인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어려움 등의 자율성 저하.

대학의 개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건축사 관련 내용은 건축사 취득 후 보수교육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됨. 실사 위원 1명 할당에 대한 생각도 동일 선상에서 제안함
건축법규 및 안전 그리고 무장애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화된 이론 교과 및 실습의 형태로 운영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이며 spc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종합하여 배포하거나(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축소하여 기본 조건 정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기술비중의 부분이 좀더 낮아져야하며 건축적 사고 및 공간 형태등 개념적 부분 비중이 증가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인증제도의 취지, 효용성, 그리고 성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은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영역은 학교별 특화 전략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음

공학인증처럼 인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일 필요.

각 학교의 자율성 보장

인증으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인증평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괄적 기준제시보다는 각 대학의 학풍을 다양화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의 다변화와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평가편의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증제는 각 대학 건축학과와 다양한 발전가능성에 대한 발목잡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수과목 체크를 통한 개인별 인증의 형태로 조정하여, 건축학과와 모든 학생은 건축사로 이어지는 진로의 일원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인증제는 현재 대학의 교육방향(융합, 통섭)과도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건축학과 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자 학생들의 학사 학위 취득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존의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직원양성소가 아닙니다. 다양한 논의와 상상력의 발전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인 한국건축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20~30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교수

인증실사를 2회 또는 3회 이상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증실사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교육환경은 인증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시스템 자체가 존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기로서에 있는 만큼 인증원만이라도 더이상 학교현장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지 않기를 간곡히 바램. (개인적으로 본인은 인증실사 주기마다 교수직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램. 진심으로 인증이라는 말부터 지긋지긋함.)

spc의 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학인증프로그램 이수이후 석사학위와 더불어 건축사 자격(일반의 자격과 유사)수여 방안과 연계 검토 / 사회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증항목의 대폭적인 축소 및 수정 / 정성적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무엇보다도 항목별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실사단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 5년간의 학업에도 학부졸업은 장기적으로 학생수급에 불리함. 5년제 석사과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제도건의 2.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방향에 맞는 자율적 SPC의 설정(2~4개)

인증교육이 건축교육의 향상을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증원에서 국제적 기준과 자격증교류를 목표로 진행했던 5년제는 심각하게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학사학위로서 5년제를 하고있는 극소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는 미국외에 유일한 나라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인증프로그램이 롤모델로 적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학부로서 5년제 프로그램은 주요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대학의 인증받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미국의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대학들의 대부분은 대학원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학부는 4년제 비인증을 하거나 학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대학원 중심교육으로 건축학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5년제 프로그램을 하는 대학들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5년제를 그대로 들여와서 한국에 적용한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제기준의 5년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권에서는 3+2로 5년제를 하면서 3년 학부에 전체 5년을 마쳤을 경우 석사학위를 줍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인증원에서도 오래전 부터 알고 있던 내용일것 같습니다. 학부의 교육이 영원히 평생직업으로 갈 필요가 없고,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하고 섞이는 상황에서 건축학에서 고집하는 5년제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잃게 되는 기회가 더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국내 인증대학들의 경우 상당수 1학년에서는 가볍게 설계수업(3학점)을 하고, 5학년에서는 1학기에 졸업설계를 하고 2학기에 취업준비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교육이 밀도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3년반정도입니다. 4년으로 운영을 해도 현재 5년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인증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와 건축계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을 고려한다면,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5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늦기전에 진지하게 건축학인증을 4년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교수

도시재생 항목은 기존 항목(06지속가능한도시와건축 / 15건축과도시설계)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 한옥건축설계는 03(한국건축과 전통) 항목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

spc 수를 대폭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화를 유도해야 함

학부 5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건축학인증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점수로 학과를 대부분 정해서 들어오는 현실에서 건축을 다학제적인 디자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학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진정으로 전문직업으로 건축설계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건축분야의 전문적 교육이 뒷받침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체계이지 않을까 생각됨.

가장 문제는 SPC 충족을 위한 형식적 교육이 상당수 진행되고 이것이 마치 문제풀이 요령처럼 상당수 프로그램들에 퍼져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교육을 포함한 상당수 인증/지원 프로그램들에서 자체평가 기준을 강조하는 것과 과를 함께하여 몇몇 필수 SPC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자율 SPC나 선택형 SPC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회 등과 연계한 교육, 실무 과정 이수로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SPC 개발 또는 기존 SPC 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협회와 연계하라고 할게 아니라 협회와 인증원 간의 연계를 통해 설계, 실무 관련 SPC를 자연스럽게 교과과정 내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의 균형성 보완이 필요

기술적인 부분을 약화하고 학생들의 사고 부분에서 융통적으로 진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설계를 위해 설계에 대한 흥미를 높여야 요즘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건축 학과의 생존이 될 수 있음. 인증을 하고 있지만 안할 수 있으면 안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은 위의 내용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아무리 인증 SPC가 좋아도 이를 적용하는 실사위원의 자질이 폐쇄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인성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 6년간 그 짐을 감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함. 인증의 과정이 평가가 아닌 공유와 축하의 장이어야지 불만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 인증의 문턱을 낮춰 최대한 많은 학교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지 인증이 힘들면 많은 학교들이 틈만 생기면 모두 이탈할 것임.

인증기준 자체보다 실사시 실사위원들이 인증 기준의 해석을 유연하고 넓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음.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설계교육의 방향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

교육자의 실무능력 평가

인증기준에 따른 실사방법의 B/C화가 필요함, 즉 과도하게 형식적 실사가 아닌 설계교과목만 전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강력하게 필요함

지속가능성관련 교육내용 강화필요. 건설관리 삭제요망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교수

1. 대학의 특성화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것. 2. 무조건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변화에 따라 더욱 가르치는 것과, 이에 따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변화하는 세상에 프로그램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인증이 변화하여야 함.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틀로 평가를 지속하여서는 안됨. 3. 프로그램 스스로 평가항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함.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창의성을 죽이는 평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실무부분에서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좋으나, 그 내용을 SPC로 한정하여 특정과목이 생기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건축실무수련기간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움.

본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연례보고서, APR 보고서, 인증 심사 과정, 인증원 웹 및 온라인 자료 접근 등 전반적인 현대화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SPC 개정 관련 한옥, 도시 재생 등 특정 주제를 설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일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주제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각각 분류 내용을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서술하여 프로그램 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인증에 대한 내용이 학생시절에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음 - 5년 안에 창의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가르치기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감 - 학생들의 번 아웃으로 추후 건축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증가와 교수들의 무리한 업무로 이어짐. - 건축학 인증 덕분에 전반적으로 건축학과의 교육 질은 향상되었지만, 건축이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보다는 건축업을 하기 위한 직업학교로 되었음. - 건축사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취업 시 곧장 작업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융합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2. 인증기준의 세부항목이 모호하여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 받는 사람의 이해도 차이가 큼 - 평가 받는 사람은 인증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게 됨 - 정확히 기술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 - 인증실사를 위해 전시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듦. 심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 설계 패넌이나 그 외 상담 설문지의 Hardcopy 필요유무를 인증기준/절차에 명시할 필요. 프로그램의 이중적이고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함. 2. 심사기간을 2박3일로 완화할 필요. 3. 다전공제/자유전공학부의 운영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설계교과목의 역학기 수강제한이나 이론교과목의 선수강 조건 등을 완화할 필요 있음. 4. 프로그램별 특성화 및 자율성에 대한 항목 추가 SPC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개성과 차별적 우수성이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학 교육의 방향을 실무(?)위주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프로그램의 자율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인증기준은 기술과 실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챙겨야 할 SPC 갯수가 많아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게 됨. 가능한 단순화하고, 각 학교가 해석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음

현행에서 큰 변화는 또 다른 혼란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SPC는 소폭 줄이고 자율적 항목을 추가해서 차별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인식이 되도록 함이 좋겠음.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교수

대학별 자율성 필요

항목들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며, '대학'의 교육기관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통해 교육되어야 할 내용의 구분이 필요함

spc항목중 일부는 학교 자율적으로 변경가능하면 좋겠음

대학 자율성 확보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와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을 "건축사의 책임윤리와 프로젝트운영"로 통합

실사의 범위 및 기간의 대폭 축소,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획기적 변화 필요,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위한 태도 전환